興法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

原州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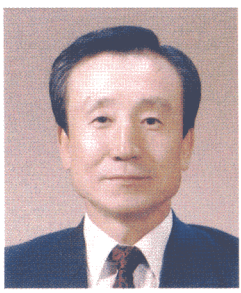
興法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

2000. 7

原 州 市

發 刊 辭



우리 원주시는 한반도의 중심축에 자리한 사통팔달의 요충지로서 통일신라 때에는 5소경(五小京)의 하나인 북원소경(北原小京)이 자리하여 지방행정의 중심지였고, 조선시대에는 강원감영(江原監營)이 설치되어 약 500년 동안 강원도의 수부(首府)로서 수려한 치악산(雉岳山)의 정기를 이어받아 독창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원주시에 현존하고 있는 폐사지(廢寺址)는 흥법사지(興法寺址)를 비롯하여 거돈사지(居頓寺址), 법천사지(法泉寺址)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날까지 잔존유구가 다수 남아있어 원주시가 융성했던 고려불교문화의 근원지였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본 지표조사 대상인 흥법사지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의 유지(遺址)로서 지금은 많은 전각과 유구가 없어지고 고려시대에 건립된 진공대사탑비(眞空大師塔碑, 寶物 第463號) 및 삼층석탑(三層石塔, 寶物 第464號)을 비롯하여 석축, 문지(門址) 등이 옛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지주변 일대는 농경지로 변하였고 또한 절터의 제자리에 있어야 할 진공대사탑 및 석관(眞空大師塔 附 石棺, 寶物 第365號), 그리고 진공대사탑비의 비신(碑身)은 일정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경복궁으로 옮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유서 깊은 흥법사지에 대하여 석물실측을 겸한 지표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불교문화유적에 대한 바른 이해와 문화재 보존적인 측면에서 다행한 일이며 향후 발굴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고건축 연구와 관련 학술분야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끝으로 조사작업과 보고서 발간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년 7월

원주시장 한 만 희

目　次

發 刊 辭 3
原色畵報 9
序　　言 15

Ⅰ. 沿 革

1. 興法寺의 沿革 21
2. 眞空大師의 生涯 25

Ⅱ. 寺址의 槪觀

1. 立地 및 環境 29
2. 興法寺址의 現況 33
3. 殘存遺構 37

Ⅲ. 遺構調査

1. 建物關聯 石物遺構 41
   1) 石築 41
   2) 礎石・基壇石 44
2. 眞空大師塔 및 石棺 (寶物 第365號) 53
   1) 構造 및 樣式 53
   2) 各部 實測調査 57
      ① 基壇部　② 塔身部
      ③ 上輪部　④ 石棺(石函)

3. 眞空大師塔碑 龜趺 및 螭首 (寶物 第463號) 67

1) 構造 및 樣式 67

2) 各部 實測調査 70

① 龜趺 ② 碑身

③ 螭首

4. 三層石塔 (寶物 第464號) 79

1) 構造 및 樣式 79

2) 各部 實測調査 84

① 基壇部 ② 塔身部

③ 上輪部

5. 其他遺物 97

1) 石物遺構 97

2) 瓦塼片 및 其他 98

Ⅳ. 綜合考察

1. 伽藍配置 推察 107

2. 發掘調査의 範圍 109

3. 發掘調査로 期待되는 成果 111

4. 遺蹟整備淨化案 115

附錄

1. 眞空大師塔碑 碑文 121

2. 1929年 現況調査資料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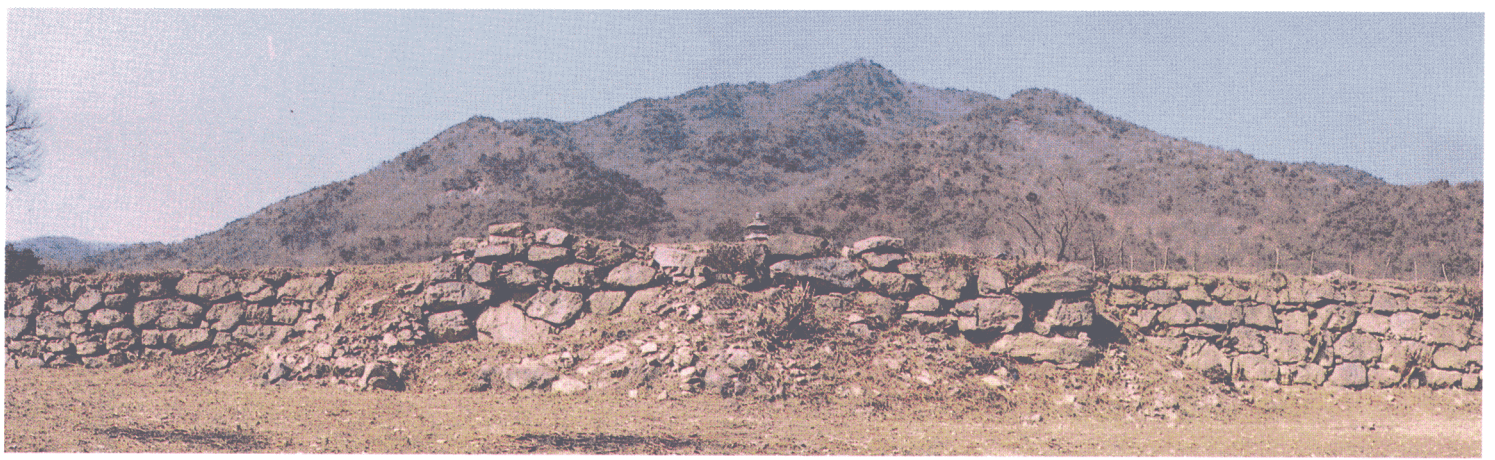
黑白寫眞 139

圖面圖版 175

原色書報

흥법사지 원경

흥법사지 중심곽 전경



전면석축 현황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제365호) - 경복궁 소재

진공대사탑 정면

진공대사탑 옥개석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보물 제463호) 정면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측면

삼층석탑(보물 제464호) 근경

삼층석탑(남동우)

삼층석탑 탑신부

초석(방형주좌)

초석(원형주좌)

석등 하대석

序 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1984. 6. 2)되어 있는 흥법사지(興法寺址)는 1950년대말 학계에 보고된 후 많은 관련분야 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답사하였으며 사지의 규모와 성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학술조사의 필요성을 느껴 금번에 흥법사지의 석물실측 및 지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사지 전면의 장대하고 우람한 석축 위에 조성된 중심곽에는 삼층석탑과 진공대사탑비 등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그 주변에는 여러 채의 민가가 들어서고 경내의 대다수 면적이 경작지화 되었다. 그리고 초석이나 기단석부재 등 일부 석물유구는 본래의 위치를 잃고 민가의 기단과 장독대 등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유구 보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되었다.

특히 인근(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거돈사지(居頓寺址) 지표조사(1986) 및 법천사지(法泉寺址)에 대한 지표조사(1992)가 시행되면서 흥법사지내 유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근래에 이르러서 삼층석탑 및 진공대사탑비에 대한 보수 및 주변정비가 문화재청과 원주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사지에 있어야 할 진공대사탑과 석관, 진공대사탑비의 비신 등은 일정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져 경복궁 뜰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등 아직도 본래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사지내에는 중문지(中門址)로 추정되는 전면 석축 중앙부분 외에 이렇다 할 지표상의 뚜렷한 건물지 유구가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다. 초석 몇 개만이 제 위치를 잃고 남아 있을 뿐이다.

사역의 중심곽 후반부에는 건축한지 50여년 된 민가 2채가 들어서 있으며 북서쪽과 남동쪽에 모두 민가 여러 채가 들어서 있다. 그리고 정교하게 치석한 기단석 부재와 석등 하대석 등 잔존유물들이 제 위치를 이탈한 채 지표상에 남아 있고 무수한 와편들이 경작지를 비롯한 사지의 중심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바 성관(盛觀)을 이루었던 고려시대의 사찰 모습을 짐작케 한다.

사역(寺域)의 정확한 범위 및 건물지의 위치는 향후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발굴조사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지

의 정확한 토목지형측량을 실시하여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지의 제자리에 남아 있는 석물인 지정문화재, 그리고 서울 경복궁에 옮겨진 석물(진공대사탑 및 석관) 등을 실측조사하고 진공대사탑은 옮겨지기 전의 원래의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차후에 진행될 구체적인 발굴조사의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민가와 그 주변에 흩어진 석물의 실측과 사지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홍법사지에 보물급 문화재가 여럿 남아있는 점으로 미루어 발굴조사가 시행되면 성관을 이루었던 시기의 옛 건물지 및 기타 유구들이 지상에 그 모습을 속속 드러낼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본 지표조사를 계기로 삼아 홍법사지의 역사성과 잔존유구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유적지 보존관리 차원에서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어진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課業의 槪要

ㅇ과 업 명 ; 홍법사지 석물실측 및 지표조사

ㅇ목　　적 ; 홍법사지의 가람성격을 파악하고 유구를 실측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사적지정 및 향후 사지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ㅇ조사기간 ; 1999년 7월 29일~2000년 7월 28일

2) 課業의 範圍

ㅇ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된 홍법사지 문화재보호구역 내외의 석물 등 유구와 사지를 실측하고 사지 안쪽과 주변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행한다.

ㅇ홍법사지에 대한 관계문헌 사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사지의 연혁과 역사·지리적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하여 홍법사지의 가람성격을 규명한다.

3) 課業의 內容

- 정밀지형측

ㅇ사지 전역에 대한 정밀지형측량(평판 및 LEVEL)을 하여 현황배치도를

작성하고 여기에 실측조사된 유구와 석물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한다.

ㅇ위의 현황배치도를 기본으로 하여 가람배치의 파악은 물론 향후 가능한 범위내의 사지정비 및 발굴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석물 및 유구의 실측조사

ㅇ이미 표출되어 있는 석축 및 삼층석탑, 탑비 등을 정밀실측하고 사진촬영하여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사지내에 산재한 초석·기단석 등 모든 석조유구를 실측 도면화한다.

ㅇ실측은 지표상에 노출된 부분만을 조사하고, 조사과정 중 필요한 부분에는 표토정리 등의 간략한 토사제거와 잡목제거를 병행한다.

ㅇ조사중에 수집되는 와편, 토기편 기타 석편 등도 사진촬영 및 탁본하여 도면화한다. 또한 현재 서울 경복궁에 이전된 진공대사탑 및 석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진공대사탑비의 비신도 조사한다.

- 흥법사의 연혁과 지리적 환경조사

ㅇ흥법사 가람에 대한 관계문헌 사료를 종합조사 정리하고 인근에 위치한 법천사지, 거돈사지 등의 사적과 역사지리적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하여 사찰의 성격을 규명한다.

4) 調査報告書의 刊行

ㅇ위의 실측과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ㅇ보고서에는 지형측량도, 가람배치도, 석탑, 탑비 등을 비롯한 석조물의 도면, 수집 출토물의 도면, 사진도판, 그리고 연혁 및 주변사지에 대한 종합적 고찰 등을 수록한다.

ㅇ보고서의 규격은 4×6배판 200면 내외로 하며 500부를 제출한다.

ㅇ이상의 제시된 과업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실측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측과 도면작도를 하면서 관계문헌 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조사에 관여한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도위원 ; 김 정 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장)
정 영 호 (문화재위원, 제1분과위원장, 한국교원대 교수)

• 관 계 관 ; 김 수 운 (원주시 문화관광과장)
하 용 운 (원주시 문화재담당)
유 성 선 (원주시 문화재담당자)
• 조사책임 ; 한 충 현 (신평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조 사 원 ; 채영권, 이봉수, 남상규, 김병훈, 김인태, 홍석주
김병문, 김종윤 (이상 신평종합건축)
• 지형측량 ; 정환수, 이재훈, 서정철 (이상 삼정측량)

• 원고작성(목차순)
- 홍법사의 연혁 ; 정 영 호 (문화재위원, 한국교원대 교수)
- 입지 및 환경 ; 한 충 현 (신평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홍법사지 현황 ; 김 정 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장)
- 석조물 구조·양식 ; 정 영 호 (문화재위원, 한국교원대 교수)
- 실측조사기록부분 ; 이 현 준, 김 덕 문
- 종 합 고 찰 ; 김 정 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장)

• 보고서 편집 ; 이 현 준, 천 영 재

I

沿 革

1. 興法寺의 沿革

2. 眞空大師의 生涯

Ⅰ. 沿 革

1. 興法寺의 沿革

홍법사의 창건년시(創建年時), 중창(重創), 폐사(廢寺)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알 수 있는 문헌이나 금석문(金石文)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46 원주목(原州牧) 불우조(佛宇條)에 「興法寺 在建登山 寺有碑高麗太祖親製其文 命崔光胤集唐太宗書模刻 李齊賢嘗曰 辭義雄深偉麗如玄圭赤 揖讓廊廟 而字大小眞行象間鸞漂鳳泊 氣呑象外眞 天下之寶也」라 보이므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던 조선 제9대 성종 11년(1480)경에는 이미 홍법사가 법등(法燈)을 밝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 태조가 친히 비문을 제문(製文)한 석비(石碑)도 홍법사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에 앞서 홍법사 석비에 관해서는 이제현(李齊賢)의 「櫟翁稗說 後集(1)」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北原(原州)興法寺碑 我太祖親製其文 而崔光胤集唐太宗皇帝書 模刻于石 辭義 雄深偉麗 如玄圭赤 揖讓廊廟 而字大小眞行象間鸞漂鳳泊 氣呑象外眞 天下之 寶也」

이 내용을 보면 이제현(고려 제25대 충렬왕 13년, 1287~고려 제31대 공민왕 16년, 1637) 생존시인 고려말까지 석비는 건재하였으며, 특히 당나라 태종의 글씨를 집자(集字) 모각우석(模刻于石)한 것을 보고 「天下之寶」라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제현의 찬사를 그대로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興法碑 在原州建登山興法寺眞空大師碑 唐文皇集字 麗太祖文 崔光胤集字 後晋高祖天福五年庚子立 麗太祖二十三年也 陰記無名氏」

이 기록의 내용에서는 홍법사의 석비가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임을 밝히고 있으며 고려 태조가 제문(製文)한 것을 문신(文臣) 최광윤(崔光胤)이 당태종의 글씨로 집자하여 고려 태조 23년(940)에 건립하였다고 하는 확실한 건조연대를 적어놓아 주목된다.

이와 같은 몇가지 홍법사와의 관계 기록을 보면 홍법사의 창건이나 중흥, 중

창, 폐사 등 직접 홍법사와 관계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홍법사의 비(碑)로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를 지적하며 고려 태조의 제문(製文)을 당태종의 글씨로 집자(集字)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당태종의 글씨가 유명하며 특히 당시 왕희지(王羲之)의 글씨체를 좋아했던 당태종의 글씨라는 점, 진공대사가 고려 왕건 태조의 왕사(王師)였다는 점에서 볼 때 홍법사를 대표하는 건조물로 이 진공대사비가 내세워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사실은 홍법사의 위상(位相)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즉, 홍법사의 위상을 진공대사와 그의 비(碑)에 두고 있음인지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이나 기록에서도 모두 홍법사와 진공대사비를 같이 다루고 있다.

- 海東金石苑 卷3 晋高麗國興法寺眞空大師 忠湛塔碑銘 碑陰記
- 朝鮮古蹟圖譜 6. 同解說 6
- 朝鮮金石說明(朝鮮總督府月報 第4卷 第9號)
- 朝鮮金石總覽 上卷(朝鮮總督府)
- 雜攷 第4輯 上卷(鮎貝方之進 著)
- 朝鮮美術史(關野貞 著)
- 書道全集 第12卷, 圖版及釋文解說

한편 권상노(權相老)는 여러 문헌에서 홍법사와 관계된 내용들을 발췌하여 정리해 놓아 오늘날 후학들이 이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즉 「韓國寺刹全書 下卷」(權相老編, 東國大學校出版部 發行,1979)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東國輿地勝覽 卷46에

「興法寺 在江原道原州建登山 寺有高麗太祖製其文 命崔光胤集唐太宗書模刻 李齊賢嘗曰 辭義雄深偉麗 如玄圭赤 揖讓廊廟 而字大小眞行象間若鸞漂鳳泊 氣呑象外眞天下之寶也」

-梵宇攷 原春道 原州 寺刹條에

「壬辰倭酋見之知其爲寶輦移屯所 其後仍在州內客館中 仁祖時有一營將造鐵甲 以石碑竪緻煉鐵於此石盡破碎 今只餘破石兩片文不可讀字畵惟奇識者惜之」

-伽藍考에

「在州南二十里有僧忠湛碑(中略)眞天下之寶也 而後移置州癬有守惑俗忌投溝塍 中 仍折以破今存二片寺廢」

-高麗史에

「高麗太祖二十三年庚子秋七月忠湛死 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 親製碑文」

-金石總覽上에

「在原州郡地正面安昌里 有廉居和尙塔今移置于京城塔洞公園」

-寺塔古蹟攷에

「址在原州郡地正面安昌里興法洞部落 石垣尙存尾瓦散在 有眞空大師龜趺螭首僅存 有石塔一座三重方塔高約十尺完全 共高麗時代遺物」

이와 같이 권상노가 적어놓은 흥법사 관계 내용을 찾아 살펴보았는데 이 가운데서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은 이미 분석하였고 고려사(高麗史)의 내용도 진공대사의 묘탑(墓塔, 浮屠)과 탑비(塔碑)의 건조연대 추정에서 밝혀질 내용이다.

그런데 범우고(梵宇攷)와 가람고(伽藍考)의 내용에서는 진공대사의 탑비가 파손되어 두 토막이 나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또한 흥법사도 폐사(廢寺)되었음을 적어놓고 있다. 범우고는 조선 제22대 정조 3년(1779)에 편찬된 것이고 가람고는 제21대 영조대(1725~1776)에 신경준이 지은 것이므로 모두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겪은 이후의 상황을 밝혀놓은 내용들인 것이다. 또한 사탑고적고(寺塔古蹟攷)에서 흥법사지가 지정면 안창리 흥법동에 남아있고 석축이 있으며 고와편이 산재하고 진공대사탑비의 귀부와 이수, 삼층석탑이 완전한데 모두 고려시대의 유물이라 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이것은 가장 근년(近年)의 기록이기 때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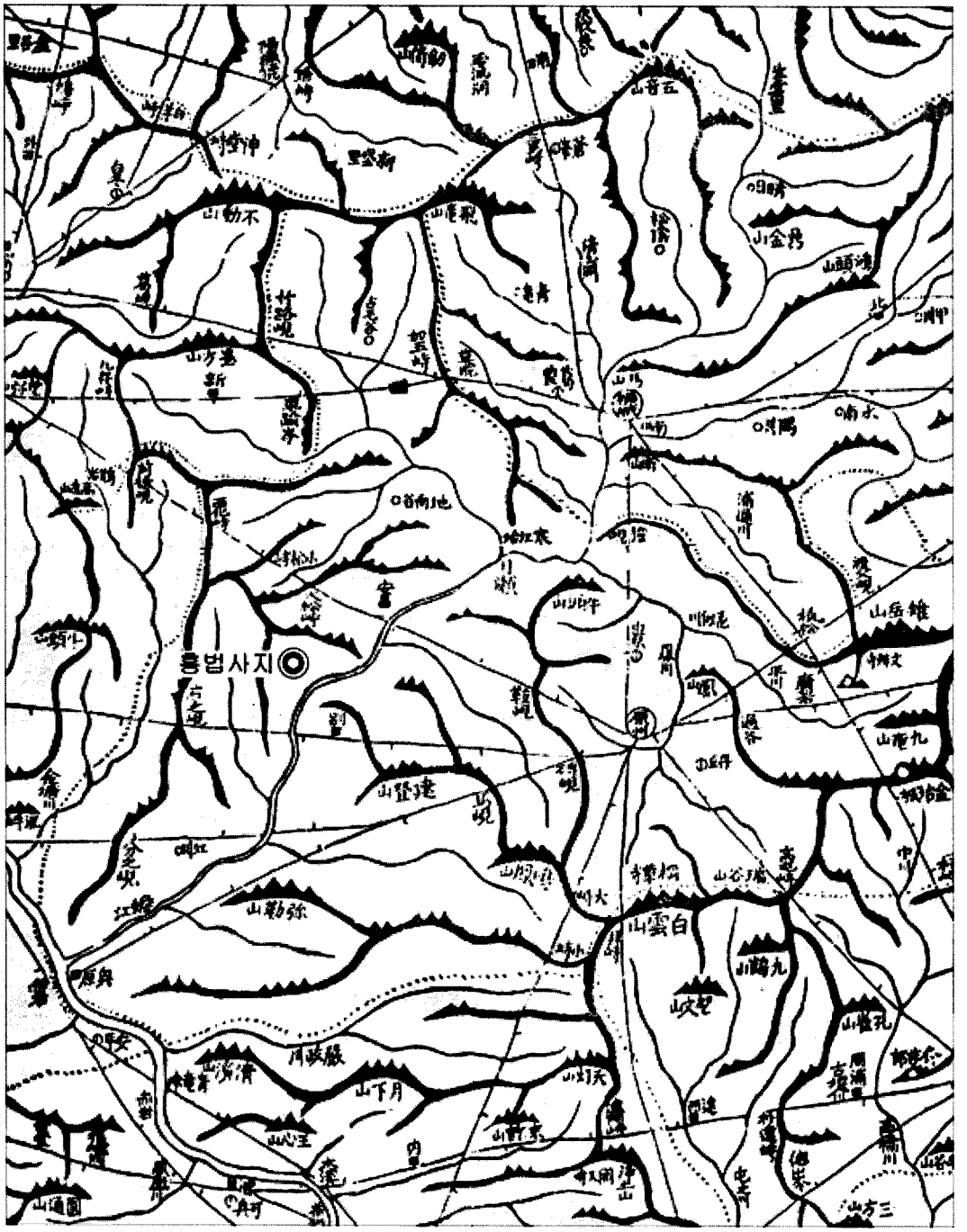
그런데 금석총람상(金石總覽上)에서 안창리에 있었던 염거화상탑(廉居和尙塔)을 경성 탑동공원(塔洞公園)에 옮겨 놓았다는 기록은 사실과 다르므로 별도의 항목에서 그 내용을 밝히려고 한다.

이상과 같이 흥법사와 관계된 모든 기록을 참고해 보았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뚜렷한 사적(事蹟)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 기록을 참고하고 절터에 남아있는 몇 가지의 유적, 유물을 종합해 보았을 때 대략 다음과 같은 사적임을 알 수 있겠다.

첫째, 작은 규모의 이 사찰은 신라 말에 창건되었던 것 같다. 그것은 절터에서 수집된 신라 말의 막새나 평기와, 토기편, 석축의 일부 등에서 짐작된다.

둘째, 고려 초 왕건 태조 때에는 상당히 융성했던 사찰로 왕사(王師) 진공대사가 주석(住錫)하였던 곳이다.

셋째, 성(盛)했던 사세(寺勢)는 고려중엽 이후까지 계속되어서 삼층석탑을 새로이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대동여지도(원주부근)

넷째, 조선시대 전기까지 법등(法燈)을 밝혔으나 임진왜란(壬辰倭亂)이후 폐사(廢寺)되어 이후 중창(重創)은 없었던 것 같다. 진공대사탑비도 이때에 도괴되어 파손된 것 같다.

현 상태로 보아 홍법사는 큰 규모의 사찰은 아니었던 것 같으나 고려 태조의 왕사가 있었던 사찰인 점에서 홍법사의 위치를 가히 알 수 있다. 특히 진공대사의 탑비문을 태조가 친히 짓고 그 글씨를 당태종(唐太宗)의 글씨로 집자(集子)케 한 것은 진공대사의 위대함 뿐만 아니라 홍법사의 위상(位相)이 높았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절터에 남아있는 귀부(龜趺)와 이수(螭首)의 조각은 고려 태조 23년(940) 조성으로 당시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석조물의 연대추정에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지에 남아있는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하며 모든 점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 홍법사지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바이다.

2. 眞空大師의 生涯

진공대사의 생애와 업적 등, 관계된 모든 내용은 남아있는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현재의 상태는 비신의 중간부분이 결실되고 또한 결락(缺落)부분이 많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유감이다.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살피어 대사의 일생을 적으면 대략 다음과 같다.

진공대사는 신라말 고려초기의 명승(名僧)으로 법휘(法諱)는 충담(忠湛)이고 속성(俗姓)은 김씨이다. 그의 선대(先代)는 계림(鷄林)의 관족(冠族)으로 신라 경문왕 9년(景文王 九年) (869) 1월 1일에 탄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아 헛된 점이 없었다고 한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아버지의 친구인 장순선사(長純禪師)를 따라 출가하였으며 진성여왕 3년(889) 21세에 전라남도 광주(光州, 당시는 武州라 칭함) 영신사(靈神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후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운개선우(雲蓋禪宇)에서 정원대사(淨圓大師)에게 수학(修學)하며 성전(聖典)을 깊이 익히고 효공왕(孝恭王, 897~911)때 귀국하였다. 신라의 신덕왕(神德王)은 그를 깊이 존중하여 내전(內殿)으로 모셨으며 왕사(王師)의 예(禮)로 받들었다.

고려 건국 후에도 태조의 왕사가 되었다가 태조 23년(庚子, 940)에 속년 72세로 입적하였다. 태조는 부음(訃音)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진공대사(眞空

大師)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은 비신의 중간부분을 결실(缺失)하고 있기 때문에 생전에 있었던 태조 왕건(王建)과의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으며 탑호(塔號)도 무엇이라고 시호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비를 건립한 년시(年時)와 비문의 년호(年號), 년차(年次) 부분이 결실되었으나 고려사(高麗史) 세가 태조 23년조에 「秋七月王師忠湛死 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 親製碑文」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그리고 이밖에 여러 문헌에서 탑비의 건립년대를 「晋高祖天福五年」이라 하여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즉, 태조 23년 경자(庚子, 940)년을 대사의 입적(入寂)과 함께 탑비를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비문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고려 태조가 친찬(親撰)하였으며 문신 최광윤에 명하여 당태종의 글씨를 집각(集刻)토록 하였다. 비신 하부 쪽에는 「臣崔光胤奉敎集太宗文□□」이라 적혀 있는데 훼손되어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은 「太宗文皇帝」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탑비의 뒷면에는 음기(陰記)가 있어 대사로부터 태조에게 진표(秦表)한 내용을 각자(刻字)하였으나 결락되어 전후 관계를 알 수가 없다. 다만 「興法禪院」이라는 글자가 있고 제자(弟子)들의 성명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진공대사탑비 현황

이상과 같이 탑비에 의하여 진공대사의 생애를 살펴보았으나 비문의 결락부분이 많아 여러 가지 중요한 관계 및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유감이다. 그러나 신라 말 고려 초 선승(禪僧)으로서 왕사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고승대덕(高僧大德)이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하겠다.

Ⅱ

寺址의 槪觀

1. 立地 및 環境
2. 興法寺址의 現況
3. 殘存遺構

Ⅱ. 寺址의 槪觀

1. 立地 및 環境

흥법사지(興法寺址)는 강원도 원주시(原州市) 지정면(地正面) 안창리(安昌里)에 소재하며 남쪽의 문막읍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10㎞, 원주시내로 부터는 서쪽으로 약 25㎞가량 떨어진 산간오지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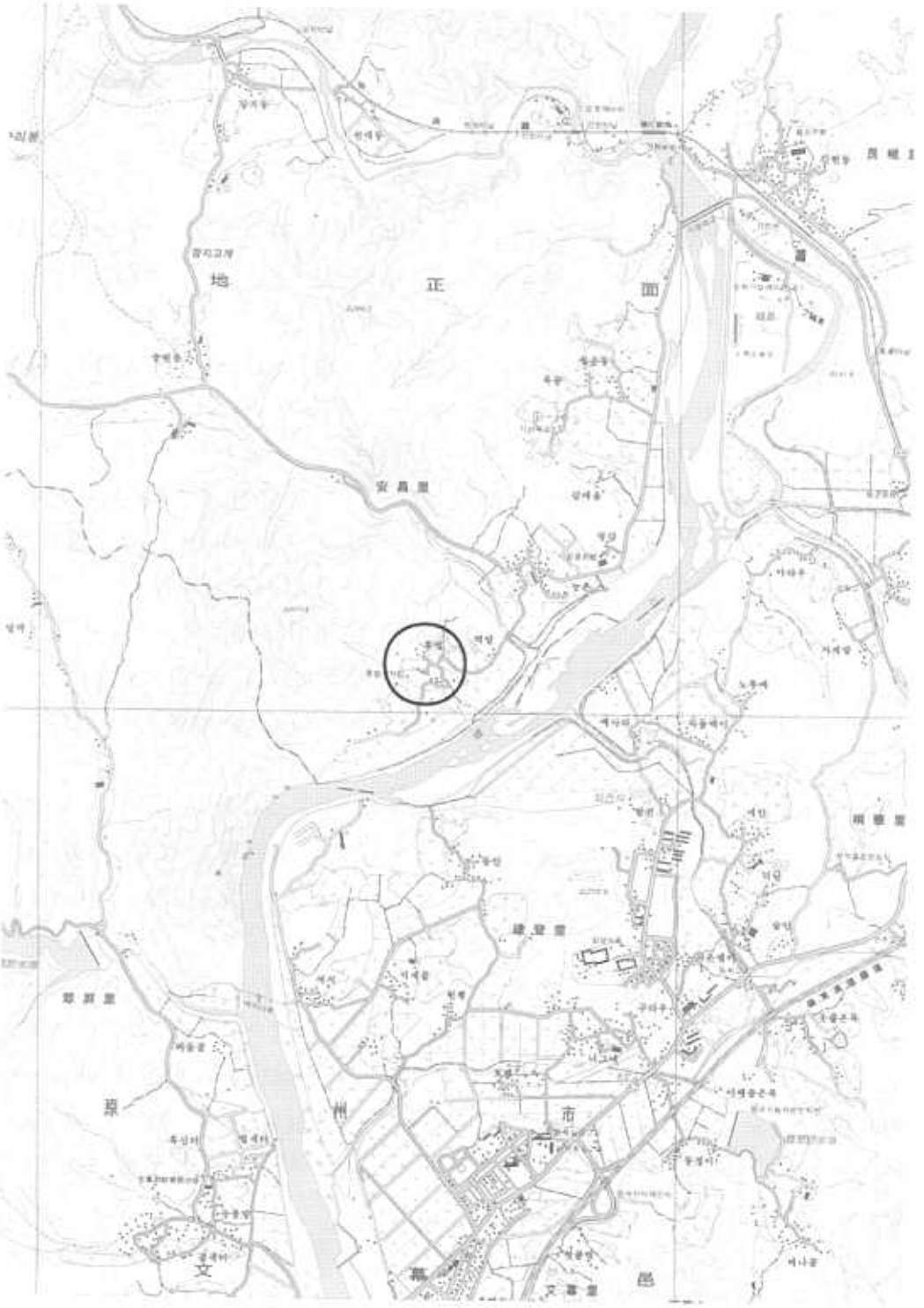
흥법사지가 위치한 지정면 안창리 일대는 한강(漢江)의 지류(支流)인 섬강(蟾江)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이루어져 있으며 북서쪽이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섬강은 동북쪽의 횡성군과 경계를 이루어 흐르다 남쪽을 향하면서 지정면(地正面)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흐르며 하류에서 남한강(南漢江)과 합류한다. 이 지역의 서북에서 서남으로는 해발 200~500m의 산악이 형성되어 있으며 흥법사지 주변은 해발 100m이하의 저평한 산간분지로 이루어져 있다.

흥법사지를 비롯하여 남쪽의 남한강변에 이웃한 여러 사찰들은 육로(陸路)보다는 수운(水運)을 이용한 교역과 왕래 등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며 불교문화가 일찍부터 싹튼 충주지방과는 제천·단양으로 이어지는 죽령(竹嶺)과 수안보·문경으로 이어지는 조령(鳥嶺)으로 연결된다.

한강 하류와의 교통은 강을 따라 여주·양평을 지나 서해안까지 연결되며 또한 정선(旌善)이나 강릉(江陵)으로 가는 사통오달(四通五達)의 교통상 편리점과 지방문화의 근거지로서 풍수지리적인 안목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터에 절의 위치가 정하여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흥법사의 인근지역에 고려시대 대표적 사찰들이 집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옛부터 사찰의 승려들이 서로 왕래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나말여초(羅末麗初)의 시기에 이 지역의 사찰들에서 국사(國師)·왕사(王師)들의 배출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사지에 잔존하고 있는 부도(浮屠)·탑비(塔碑)·석탑(石塔)·당간지주(幢竿支柱)를 비롯한 다수의 석조유물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유명한 지광국사현묘탑(智光國師玄妙塔)이 세워졌던 부론면(富論面)의 법천사지(法泉寺址) 및 거대한 석축과 삼층석탑이 현존하는 거돈사지(居頓寺址) 등은 지광국사 해린(智光國師 海麟, 984~1070), 원공국사 지종(圓空國師 智



흥법사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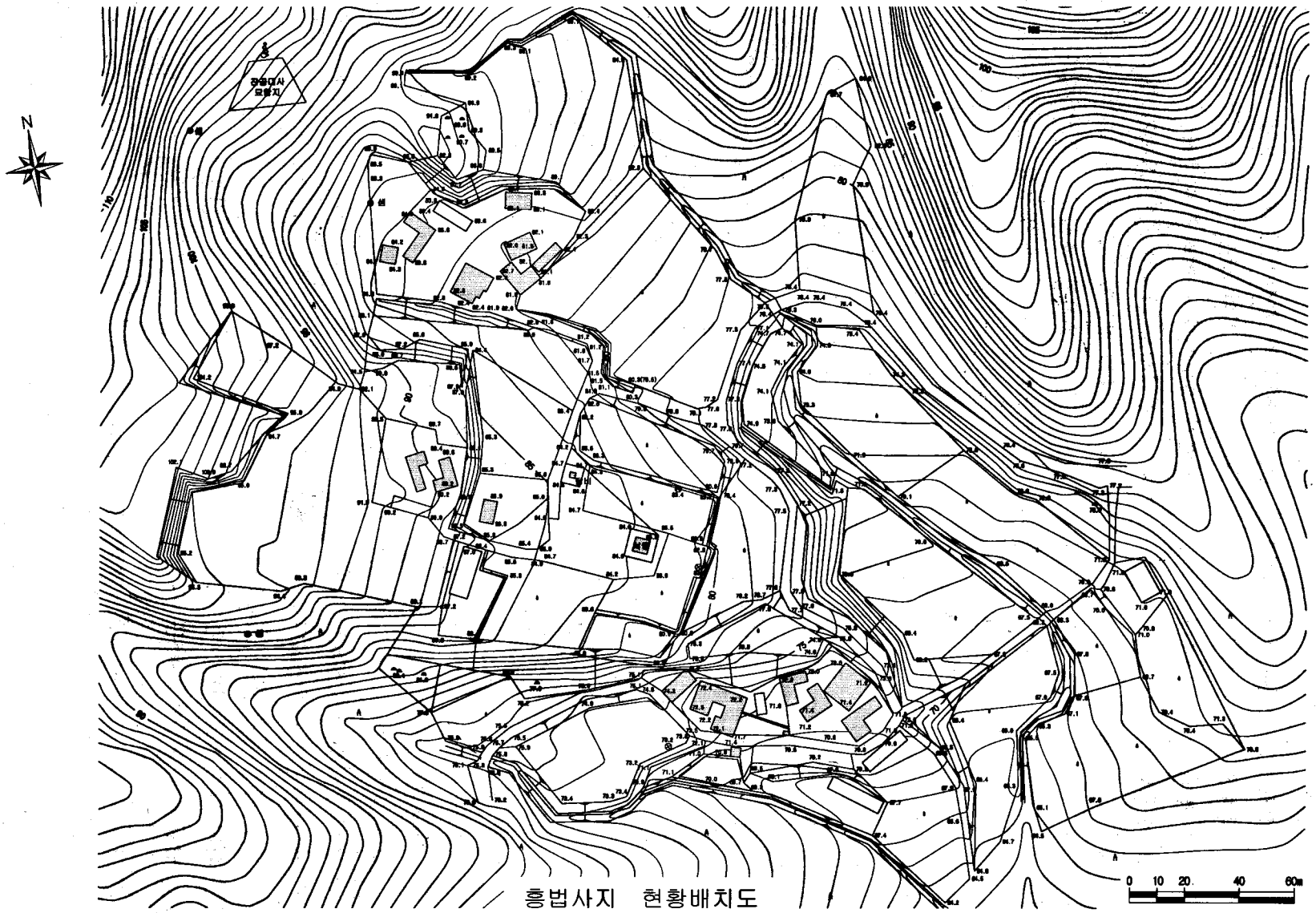
宗, 930~1018)과 같은 고려시대 고승(高僧)들의 주석지(住錫地)였다. 이들 두 사찰은 고려 초기에 성하였으며 가람의 경영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한강의 북안(北岸)에 위치하면서 홍법사와 근거리에 이웃하기 때문에 주목된다. 잔존 유구와 석물의 형태, 문양에서도 서로 비슷한 요소가 발견되어 양식적인 면에서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고려조(高麗朝)가 전국을 십도(十道)로 나누어 통치할 때에는 원주 일대가 중원도(中原道)에 편입되었던 까닭에 충주중심의 중원지방과 밀접한 연관을 갖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러한 연유로 홍법사지 남쪽으로는 전기한 인근의 거돈사지, 법천사지 외에도 남한강 강변을 따라 청룡사지(靑龍寺址), 충주시 가금면의 내동사지(內洞寺址), 원동사지(院洞寺址), 탑평리사지(塔平里寺址), 정토사지(淨土寺址), 억정사지(億政寺址) 등 신라말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지들이 강안(江岸)이나 그 인근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고 있어 이 부근이 융성기의 찬란했던 고려불교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느끼게 한다.

홍법사지(興法寺址)는 후면쪽에 높게 솟아있는 해발 403.6m의 영봉산(靈鳳山)의 지맥(支脈)이 흘러내려 작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지에서 멀리 동쪽 전방으로 낮은 산봉우리(해발 259.9m)가 마주 보이고 있다. 사지(寺址)의 앞쪽은 낮은 지역에 전답을 사이에 두고 0.5㎞ 가량의 가까운 거리에 섬강(蟾江)이 흐르고 있어 사지에서 바라볼 때 전방쪽의 시야가 시원스레 트여져 있다.

사역은 대체적으로 동저서고(東低西高), 남저북고(南低北高)의 지형으로서 사지 내와 주변에 민가들이 몇 채씩 군(群)을 이루며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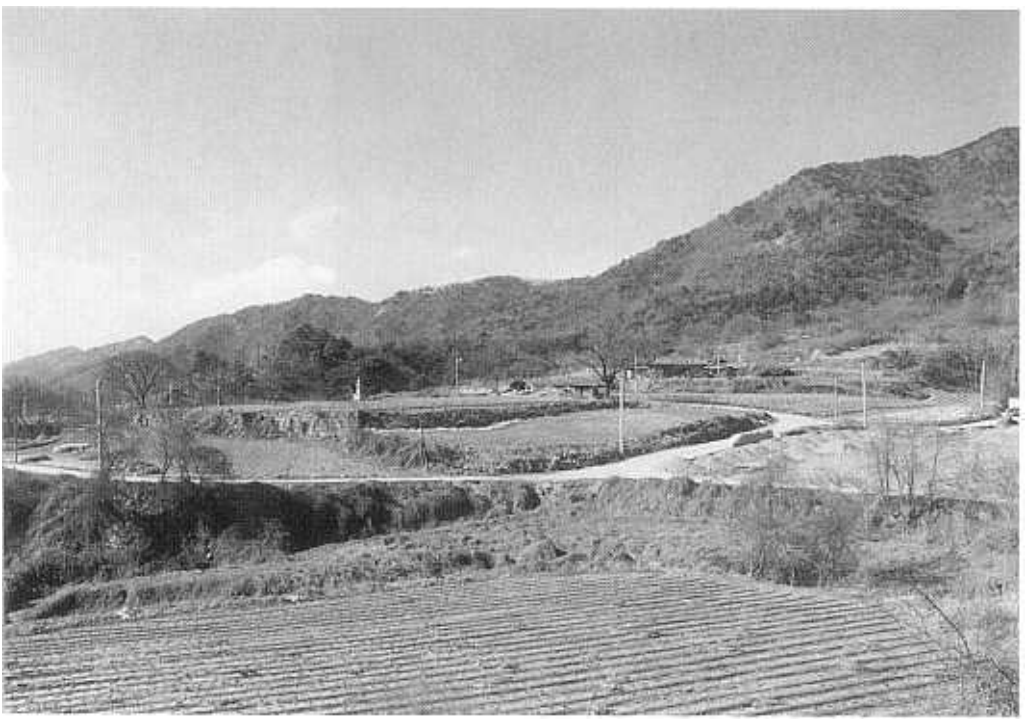
진공대사(眞空大師, 869~940)가 크게 활약하던 시기에 성하였던 홍법사는 사운(寺運)이 다하여 향화(香火)가 완전히 꺼진 후 조선 숙종 19년(1693)에는 도천서원(陶川書院)이 폐허가 된 홍법사지에 세워졌다가 고종 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 사지 내의 민가들은 서원이 훼철되고 나서 한참 후인 1940년대 이후에 들어선 것으로서 대부분 건축한지 오래되지 않은 집들이다. 현재 사지의 서북쪽에 민가 몇 채가 모여있는 곳은 윗말, 남동쪽에 형성된 촌락은 아랫말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흥법사지 현황배치도

2. 興法寺址의 現況

흥법사지는 사지(寺址)의 서북쪽에 정상(頂上)을 갖는 건등산(建登山, 古名 靈鳳山) 동남쪽 산록(山麓)의 구릉사면(丘稜斜面)에 위치하며 가람의 중심축(中心軸)을 동남-서북(동남쪽으로 약 21° 틀어짐)으로 잡은 듯한 사지(寺址)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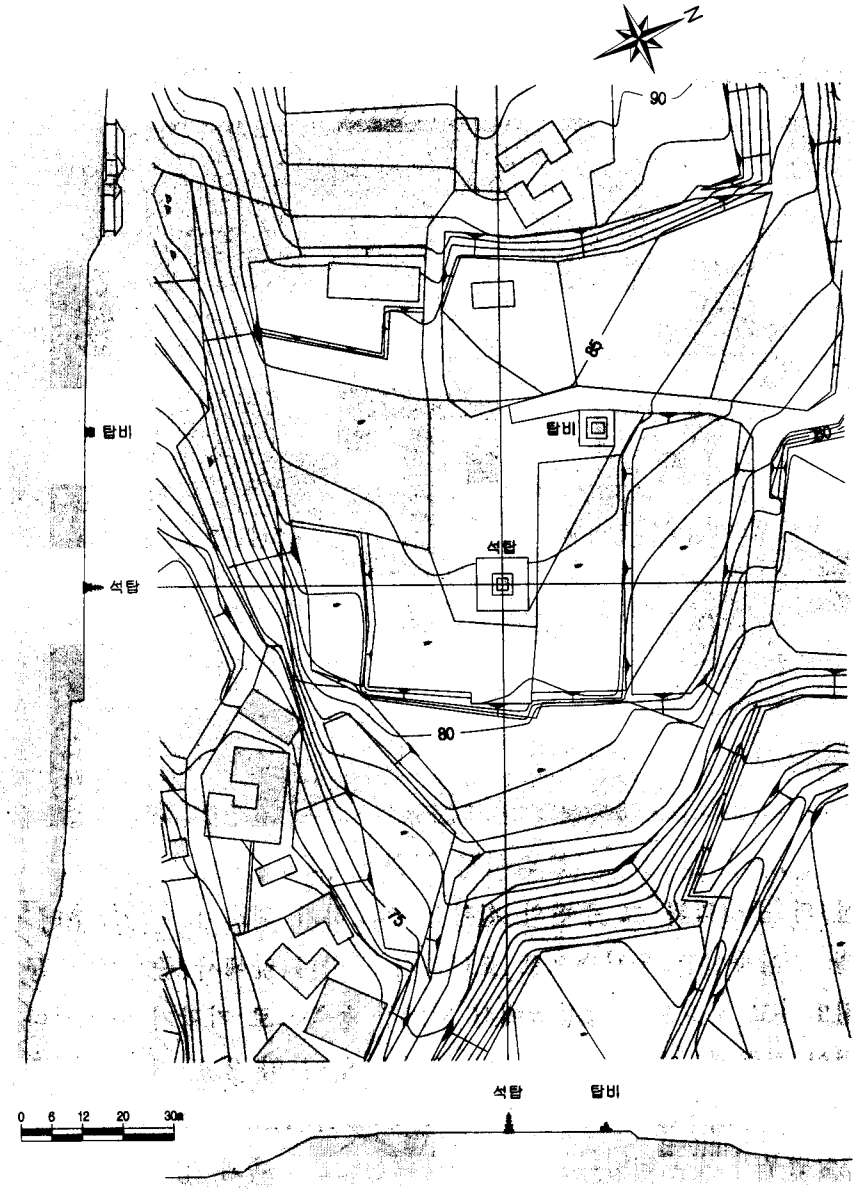
흥법사지 전경

사지(寺址)의 중심곽과 그 주변의 현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서부터 편의적으로 사찰 중심축선을 동서축으로 표현하기로 한다(앞에서 중심축을 동남-서북으로 잡았다고 하였으나 정동남에서 얼마간 동쪽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사지 전면인 동쪽에는 거석(巨石)으로 축조된 높이 약 2.4~3.6m의 축대가 남북으로 약 50m 남아있다. 축대 중앙에는 길이 약 12m 정도의 돌출부가 있으나 남측 상단부가 붕괴되었다. 이 전면축대는 그 북쪽과 남쪽 끝에서 각각 서쪽으로 꺾이어 역시 같은 거석(巨石)으로 쌓은 축대가 서쪽으로 연장되며 지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낮아지는 경사지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그 높이를 줄이고 있으나 축대 윗쪽에서 유입된 퇴적토(堆積土)에 의

해 축대의 높이나 양단부(兩端部)의 마무리 모습은 알 수 없다.

축대 상면 앞으로 치우친 가람 중심축선상에 현재 삼층석탑(三層石塔)이 있고 그 뒷쪽에는 원래 금당지(金堂址)가 있었던 것으로 1929년의 현장조사복명서[1]에 기록되어 있고 또 1950년대에 현지조사한 정영호(鄭永鎬) 박사도 그



홍법사지 중심곽 배치도

1) 故 小川敬吉氏 蒐集資料 「興法寺址現況調査復命書」 寫本 - 國立文化財硏究所 提供(本 復命書 日本所在)

때에는 뚜렷이 높아진 돌무지 같이 보이는 금당지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삼층석탑 뒤에서 금당지 쪽으로 길게 근래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 자연석 박석이 계속되고 그 중앙에 콘크리트 전주가 서 있어 금당지의 흔적은 지표상에 남아있지 않다.

삼층석탑에서 약 52m 가량 떨어진 서쪽(배면쪽)에는 이미 빈집이 된 한 채의 민가가 있고 그 뒤에 다시 높이 약 2.1~3.0m, 남북의 길이 약 60m의 축대가 있는데 상부쪽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거의 대부분 석축돌이 없어진 것을 주변의 작은 돌로 새로 쌓은 흔적이 나타나며 무너져 내린 상태를 그대로 두고 쌓은 탓인지 약간 만곡(彎曲)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 끝 부분에는 원형(原形)으로 보이는 거석 축대의 일부가 조금 남아있다. 이 축대 북단은 서쪽으로 꺾인 것 같으나 남단(南端)은 밭과 농로 등에 의해 변형되어 그 끝이 남쪽으로 연장되는지 서절(西折)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1929년 3월, 일본인 소천경길(小川敬吉)은 현지조사복명서에서 이 축대 앞쪽이 강당지(講堂址)일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삼층석탑의 서북쪽으로 약 30m쯤에는 진공대사탑비의 귀부(龜趺)와 이수(螭首)가 포개어진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 탑비의 위치는 당초 건립시의 원위치(原位置)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신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삼층석탑 전경

사지 중심곽 주변의 상황은 사찰과 관련되는 유구(遺構)들이 지표상에 전혀 남아있지 않거나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면 축대 남쪽에는 평지를 이루어 밭으로 변한 폭 약 25m, 길이 약 65m의 부정장방형(不整長方形)의 넓은 광장이 있다. 그 앞쪽 끝은 북에서 동남으로 나오다가 남쪽(아랫마을쪽)으로 휘어지는 소로(小路)가 있고 그 앞은 비교적 급한 경사를 이루어 지대가 한 단 낮아진다.

중심곽의 북쪽은 북쪽 축대에서 약 20m 정도 북쪽으로 약간 경사되는 경작지로서 그 끝은 전면 축대 앞의 소로에 연결되어 서쪽으로 올라가는 소로를 사이에 두고 그 북쪽에 역시 완경사면으로 된 경작지로 이어진다. 이들 중심곽 정면과 북쪽 축대 바깥의 경작지에서는 고와편(古瓦片)들이 산재한다.

전면(동측)축대 앞쪽에서 북측축대 북쪽으로 연결되면서 서행(西行)하는 소로(小路)는 북측 축대 서단부의 북쪽에서 거의 "T" 자형으로 직각으로 갈라져서 남쪽으로는 현존 귀부 뒤를 지나 얼마간 더 남행(南行)하여 다시 직각으로 서절(西折)하고 추정강당지 뒤쪽 축대 위의 민가 입구로 연결된다. 또 북쪽으로는 약 15m 북행하다 서절(西折)하여 올라가면서 그 서쪽에서 북쪽에 걸쳐 산재하는 소집락(小集落)의 입구가 된다.

사지 중심곽의 남측면은 일부 거석이 남아있는 남쪽 축대에서 약 30m 북쪽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경작지를 이루고 있다. 남쪽 축대의 끝은 급경사로 낮아지며, 이 경사면은 계속 서쪽으로 계속되어 그 건너편의 능선과의 사이에 좁은 골짜기를 형성한다.

중심곽의 서쪽에는 추정강당지(推定講堂址) 뒷쪽 축대 위 사지 중심축에서 조금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 민가가 있고, 이 축대 위는 서쪽으로 약 55m까지는 완경사로 높아지는 경작지가 있다. 이 부근이 사역의 서단부(西端部)로 생각되며 그 서쪽은 근래에 삭토(削土)된 것으로 보이는 평지로 이어진다.

사지 북변(北邊)을 서행(西行)하면서 올라가는 소로(小路)의 끝 북쪽에 전개된 몇몇 가옥의 집락에서 북쪽의 급경사면을 올라가면 얕은 석축의 흔적이 나오는데 그 위의 완만한 경사를 갖는 좁은 평지에 진공대사탑지(眞空大師塔址)가 있다.

흥법사 원래의 사역(寺域)은 사지 중심곽을 중심으로 동쪽인 전면은 전면축대 앞 경작지 끝의 길가 급경사면 밑까지일 것으로 생각되고, 북측면은 중심곽 북면쪽 축대에서 약 135m 떨어진 동남쪽으로 완경사(緩傾斜)인 경작지에서 서북쪽 진공대사탑지에 이르는 그 아래쪽으로 완경사의 넓은 경작지까지, 그리고 중심곽의 후면은 약 60m의 완경사로 된 경작지까지 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殘存遺構

1) 寺址內 遺構

사찰의 중심곽에는 금당과 삼층석탑을 배치하는 한편 그 주변에 중문과 회랑을 둘렀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는 전면 상·하단의 석축과 중문지(中門址), 사리탑인 삼층석탑(三層石塔, 보물 제464호), 그리고 귀부와 이수만 남아 있는 진공대사탑비(眞空大師塔碑, 보물 제463호) 등이 잔존유구로서 옛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면쪽 석축은 중앙부 구간을 약간 앞으로 돌출시킨 모습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중문의 초석을 놓았던 위치임을 추측케 하며 이 문지(門址) 위의 평탄한 대지 위에 삼층석탑이 세워져 있다. 석탑의 북서쪽에는 진공대사 탑비가 있는데 비신이 결실되어 있다. 삼층석탑과 진공대사탑비의 외곽에 정방형으로 돌려진 기단석과 보호철책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근년의 보수시에 새로 설치한 것들이다.

삼층석탑 후면쪽에는 얼마의 거리를 두고 금당(金堂)이 자리잡았을 것이나 지금은 지표면상에서 그 흔적이 사라지고 와편만 산재할 뿐 건물지는 밭으로 변한 모습이다.

사지 중심곽의 상단부에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한옥민가(3동으로 구성)가 들어서 있으며 여기에서 장독대와 기단에서 자연석 초석으로 간주되는 돌 일부와 기단석이 발견되었다. 이 민가의 상부쪽은 건물들의 초석이나 기단의 흔적이 없어지고 밭으로 변한 모습이다.

사지는 광범위하나 경작지로 변한 곳이 많고 민가 등이 들어서 있다.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주요 석물유구는 삼층석탑과 진공대사탑비, 그리고 전면의 자연석 석축이다. 초석이나 기단석 등 건물지의 유구는 추정되는 건물지의 지표상에 없거나 밭 경작으로 인한 지형의 변환으로 지하에 묻혀 노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심곽에 잔존하고 있는 건물관련 석물유구는 사지 전면부에 거석으로 축조된 자연석 석축과 중심곽 상단부의 일부 석축, 그리고 제 위치를 이탈하여 주변 민가에 활용된 기단석재들과 중문지(中門址)로 추정되는 부근의 석축 상단에 놓여 있는 초석 3개만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이 외에 진공대

사탑비 뒷쪽에는 금당, 혹은 다른 주요 전각의 기단갑석으로 보이는 부재 1개가 제 위치가 아닌 곳에 남아 있다.

이중기단 위에 쌓아올린 삼층석탑은 전면을 동향으로 하여 전면석축에서 조금 떨어진 평지에 세워져 있으며 건조연대는 고려 중엽으로 추정된다. 기단부와 탑신부의 일부 부재들은 파손이 심하다.

기타 석물로는 금당의 전면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의 하대석과 음각된 글씨가 새겨진 비석 1기, 그리고 현장의 지표면에 다수의 와편 및 일부 도자기편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사지의 우측(서북쪽) 민가에서 상부쪽(서북쪽)으로 약 50m쯤 올라가면 큰 암반이 보이는 곳 아랫쪽으로 약간 편편하게 터를 닦은 진공대사 탑(지금은 경복궁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짐)의 옛 자리가 남아있다.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가 자라있어 언뜻 보기에는 그 흔적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으나 탑지 전면쪽에는 일부 자연석 석축열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2) 景福宮에 移轉된 石物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제365호)은 1920년대 후반 무렵에 일본인들에 의해 사지의 우측 상부쪽 약간의 경사가 있는 산록(山麓, 산기슭)의 옛 자리에서 파헤쳐져 일시적으로 서울 탑동공원(현 파고다공원) 안에 옮겨졌다가 1931년 다시 서울 경복궁 뜰로 이건(移建)하였다. 그 후 1986년에 다시 경복궁 내 국립중앙박물관 전면 우측의 잔디밭에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정기에 원주군청에 보관되어 있던 진공대사탑비(眞空大師塔碑)의 비신(碑身)이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인계되고 나서 얼마 후에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옮겨질 당시 파열되어 중간부위가 결실되고 상·하의 부재가 4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 비신은 근래까지 근정전 서행각에 전시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관리하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Ⅲ

遺構調査

1. 建物關聯 石物遺構
2. 眞空大師塔 및 石棺
3. 眞空大師塔碑
4. 三層石塔
5. 其他遺物

Ⅲ. 遺構調査

1. 建物關聯 石物遺構

1) 石築

사찰의 중심곽 전면으로 올라가는 곳에 육중한 자연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석축이 있다. 사지(寺址) 남단의 전면쪽과 남쪽에 걸쳐 대형 자연석을 약간 치석한 거석(巨石)들을 사용하여 높은 석축을 축조하고 그 중앙에는 계단을 놓아 중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삼았던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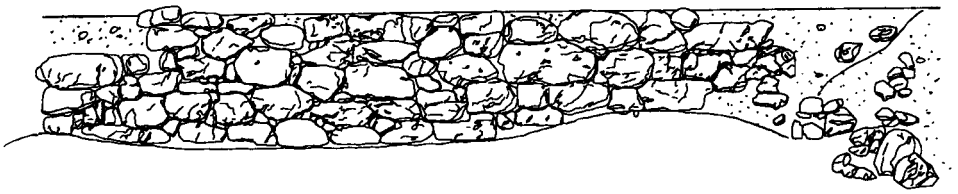
이 전면축대의 중앙부(사찰의 중심축 부위)는 길이 11.60m 정도가 평균 2.10m 가량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중문(中門)과 양측의 회랑(廻廊)이 접속되었을 것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돌출부의 남측 상단부는 돌들이 유실되거나 심하게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다.

전면 석축의 끝은 중심곽의 정면에서 볼 때 남쪽으로 약간 내려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꺾여 올라갔으나 꺾여 올라간 남단부의 석축은 전면부와는 달리 자연지형의 레벨차이를 따라 석축의 높이를 조절한 듯 하다. 서쪽으로 꺾여 올라간 모서리 부분의 좌우면 일부에 옛 모습이 남아있다. 남측 석축은 중간부 일부만 석축을 쌓은 흔적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붕괴되어 석축돌은 거의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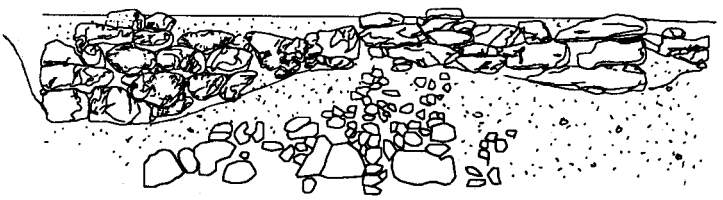
현재 사지 전면부에서 보이는 석축의 총 연장길이는 돌출부 길이를 포함하여 50.75m이며 중앙부의 석축과 남단부의 석축은 일부가 붕괴되었다. 돌출된 중앙부 석축 앞면에 접하여 놓여졌을 계단은 역시 붕괴되어 옛 모습을 잃고 있다. 그리고 축대 앞쪽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아래쪽은 지형레벨의 차이가 심하게 층단지어 내려간 곳에 완경사의 경작지가 있다.

석축의 높이는 당초에 3.0~3.6m 내외로 생각되나 지금은 하단부가 상부쪽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의해 약 0.6m 이상 묻혀있어 노출된 높이는 대체로 2.4~3.0m 내외이다. 석축을 쌓은 방식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하단부에 매우 큰 돌을 놓고 점차 크기가 작은 돌들을 쌓아올린 모습이나 돌들은 모두 규격이

석물유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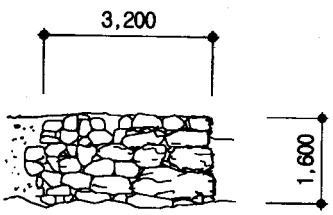


"가"구간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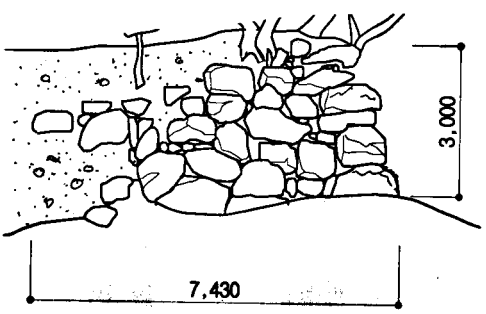


"나"구간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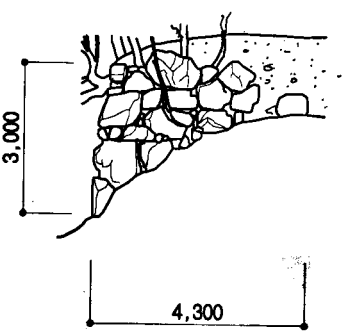
"다"구간석축



"라"구간석축



"마" 구간석축



"바" 구간석축

다르고 큰 편이다. 돌과 돌 사이의 틈새에는 아주 작은 돌을 끼워 빈틈없이 축조한 모습으로 매우 견실하게 느껴진다.

석축축조에 사용된 자연석은 뒷뿌리가 긴 것을 중간 중간에 끼웠으며, 2~3㎝씩 층단들여 경사지게 쌓은 퇴물림 기법이 당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상부쪽 돌들이 밀려나온 것들도 있다. 석벽(石壁)의 전체 경사구배는 세월이 흘러 약간 변형되고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평균 약 5~7%로 완경사를 보이고 있다.

평균 5~6단이 구축되어 있으며 바깥쪽은 편편한 면을 노출하여 면을 바르게 하고 석열을 대략 맞추고 있다. 크기가 불규칙한 부정형의 자연석으로 난층쌓기한 형식이다. 인근 부론면의 거돈사지(居頓寺址)의 전면부 석축과 쌓은 수법이 비슷하며 경북 영주 부석사(浮石寺)의 전면 석축과 같이 우람하고 균형잡힌 고려시대풍의 잘 쌓은 석축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사지의 후반부에 또 하나의 석축열(石築列)이 형성되어 있다. 이 부분 역시 우측의 북단(北端) 일부만 옛 돌이 남아 있는데 석축의 하단부는 흘러내린 토사에 묻혀 있다. 주변의 지형을 고려할 때 당초의 높이는 약 3.0m 이상으로 생각된다. 사지 전면부 석축과 축조기법이 동일하며 석축의 남은 길이는 3.2m 정도이고 지상에 노출된 높이는 1.6~2.0m 내외로 중심곽 전면 축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 중심곽 상단부 석축의 남쪽으로 뻗은 부분은 모두 붕괴된 듯 흔적이 없고 그 대신에 윗쪽의 민가를 건축할 당시에 임의로 작은 돌을 사용하여 보축(補築)한 축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부석축 위의 민가 돌담 아래에는 오래전에 쌓은 것으로 보이는 얕은 석축이 일부만 남아 있어 이 부근까지도 사역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밭으로 사용하면서 작은 돌로 축조한 낮은 높이의 석축들이 있으나 이 석축들은 나중에 편의적으로 축조한 것이어서 원래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礎石 · 基壇石

① 礎石

초석은 몇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지표상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건물지는 그 유구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발굴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건물의 초석

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전면쪽 축대 상부와 민가의 장독대 및 기단 등에 활용된 몇 가지 종류의 잘 가공된 화강석 옛 초석들이 남아있어 홍법사에 세워졌던 전각들의 웅려했던 옛 모습을 짐작케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전면쪽 석축 상단부 가장자리에는 초석 3개(화강석가공 2개, 자연석 1개)가 놓여 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중 2개는 밭 경작시에 장애가 된다 하여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진 것이라 한다.

초석 (1)

초석 (2)

초석 (3)

초석 (4)

상면을 편편하게 다듬고 비교적 두께가 얇은 부정형의 자연석 초석은 중앙에 직경 170㎜의 원공(圓孔)이 뚫려 있어 용도가 불분명하다.

사지 내에 현존하는 초석의 크기는 방형곽 한변이 2.2~2.4자, 전체높이는 1.1자 정도인데 또 한단의 낮은 둥근 곡면(운두높이 42㎜)을 둔 원형주좌의 크기는 1.7~1.8자 정도이다. 이 초석들의 정확한 원 위치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실정이나 형태나 양식으로 보아 이 중 화강석 초석 2개는 금당지(金堂址)나 강당지(講堂址) 등의 건물지에서 옮겨진 것이거나 또는 지금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중문지(中門址)의 초석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1929년 소천경길(小川敬吉)의 홍법사지 현장조사복명서에는 상기한

원형주좌의 초석 외에도 가공이 비교적 간단한 정방형(正方形)의 초석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금당지 근처에 산재하는 초석의 하나로서 한 변이 3자 2치 정도, 두께 2자 정도의 화강석을 잔다듬질 하여 한 변 2자 3치, 높이 1치의 방좌(方座)를 각출한 초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금번의 지표조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초석이 민가 뒷뜰에서 발견되었다.

② 基壇石

기단석은 거의 대부분 사지 내 상부쪽 민가와 그 밑쪽 폐가의 기단에 활용되어 축조되어 있다. 장독대 받침에 사용된 것과 민가 뒷뜰에 놓인 석재 중에는 고려시대 가구식(架構式) 기단부의 면석(面石, 두께 1자정도)으로 추정되는 장방형의 화강석 돌들도 몇 개 눈에 띄인다.

기단갑석(추정)

상기한 기단면석의 바로 위에 얹혀지는 기단의 갑석(甲石)도 발견되었다. 앞면에 턱이 지고 약간 돌출되도록 가공된 장대석(상면폭 260㎜, 높이 180㎜, 길이 2,125㎜) 1개가 진공대사 탑비의 뒷쪽에 놓여있는 것으로서 이 부재 역시 건물지에서의 발굴을 통한 동일형 부재와 기단 지대석(地臺石)의 출현이 없이는 제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놓여있는 장소가 추정 금당지와 가까운 점과 부재의 형태나 길이로 보아 금당의 기단갑석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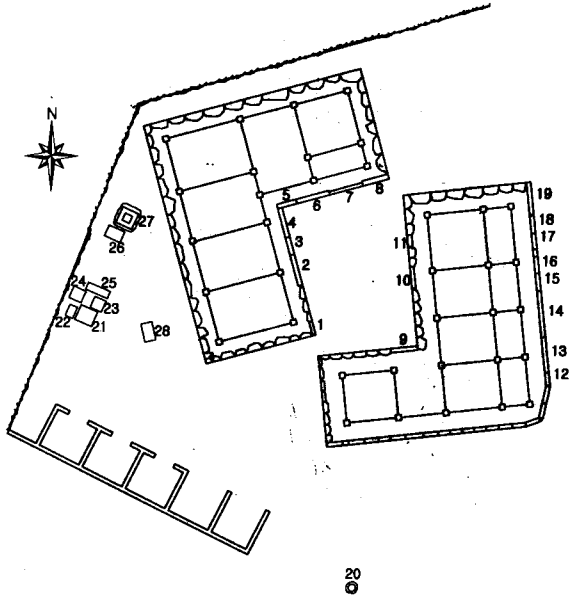
기단면석(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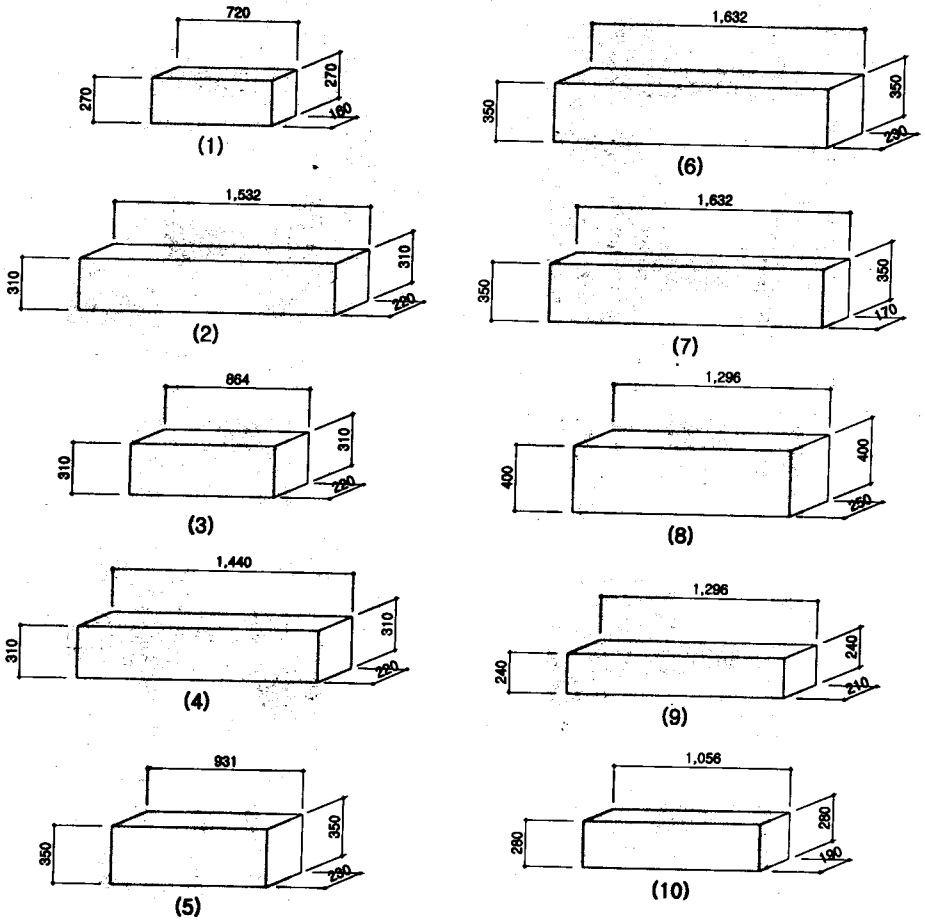
이러한 기단갑석형의 기단부재들은 파편이긴 하나 민가의 기단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민가에는 상기한 일부 가구식 기단의 잔존부재 외에도 부재의 길이가 짧은 화강암 파편과 형태가 불분명하고 가공상태가 거칠은 석재가 기단에 활용된 것도 많았다.

민가에 활용된
기단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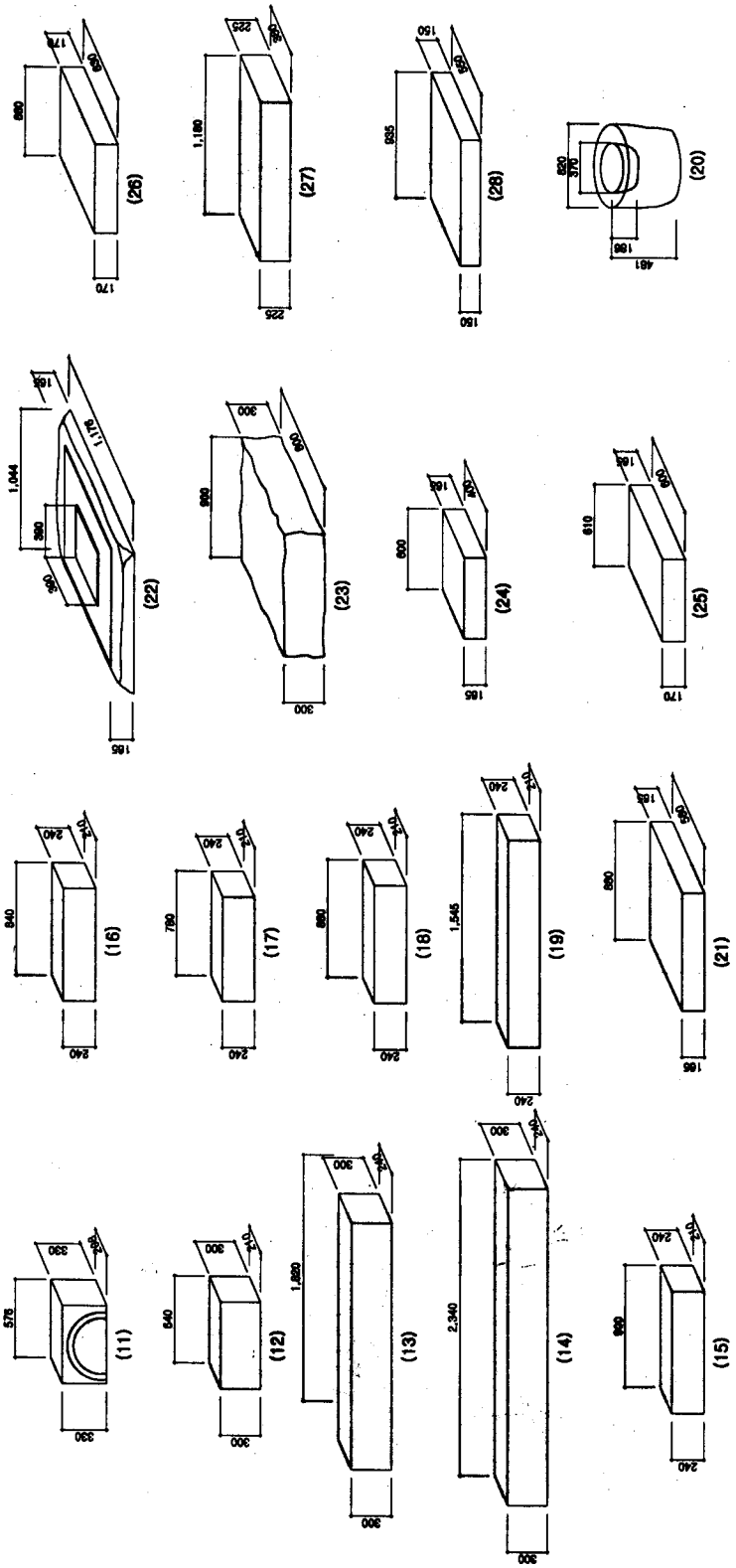
민가 장독대의 석재

민가에 활용된
기단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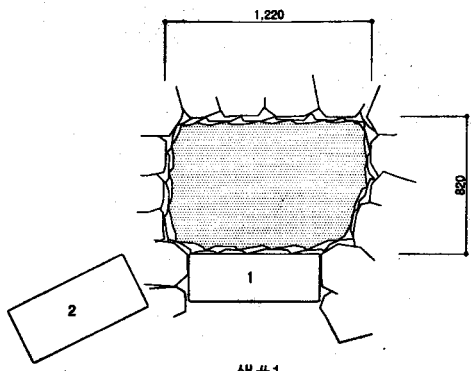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720
270
270
160
(1)
1,532
310
310
220
(2)
864
310
310
220
(3)
1,440
310
310
220
(4)
931
350
350
280
(5)
1,632
350
350
290
(6)
1,632
350
350
170
(7)
1,296
400
400
250
(8)
1,296
240
240
210
(9)
1,056
280
280
19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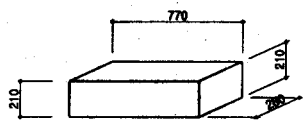
A지역 석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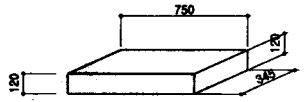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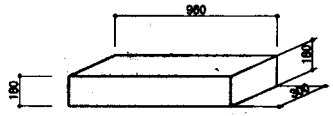
A지역 석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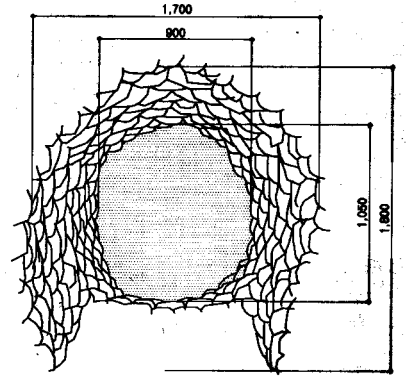


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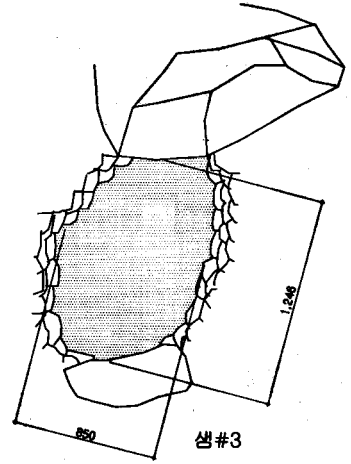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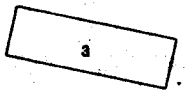


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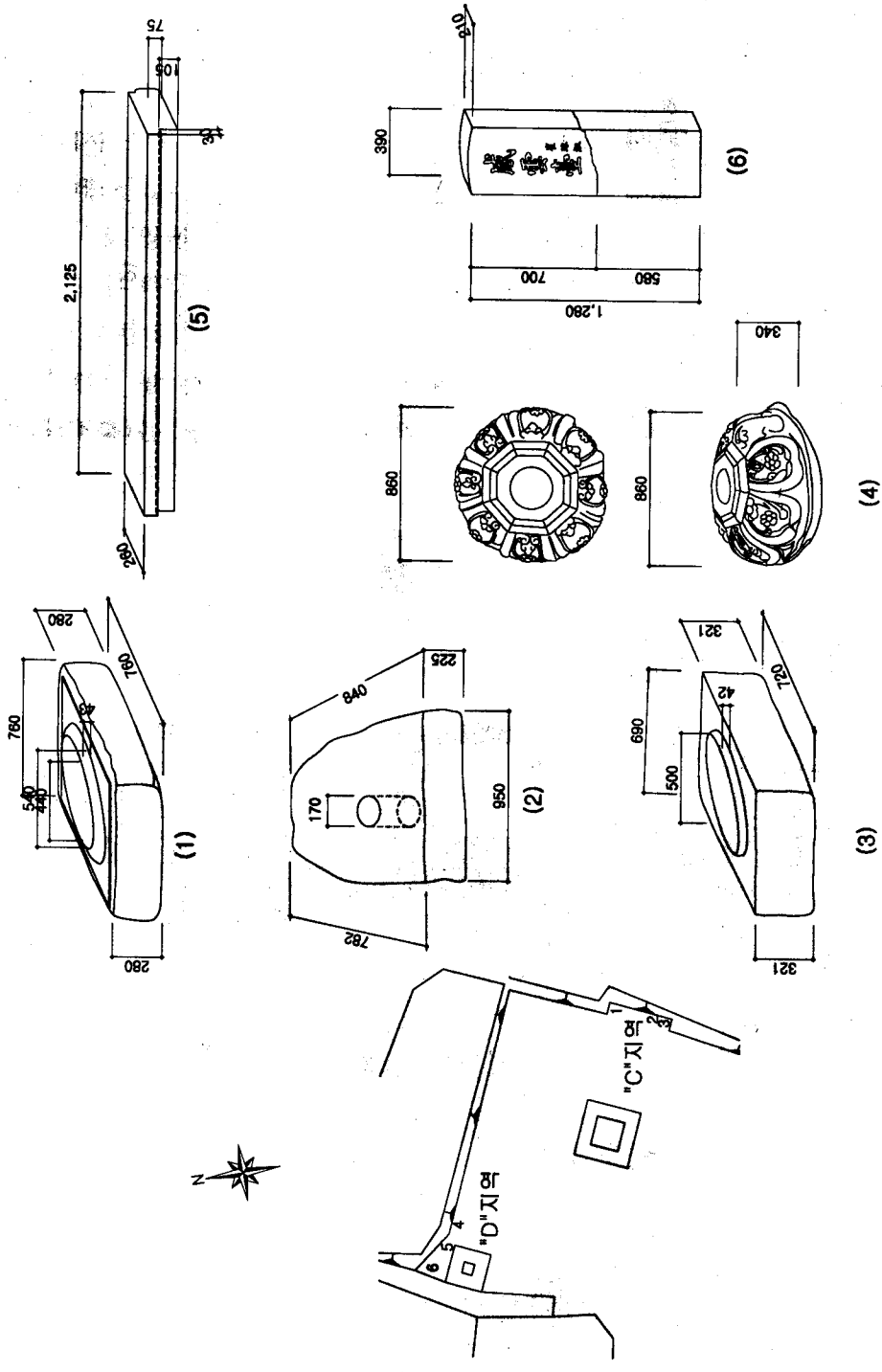


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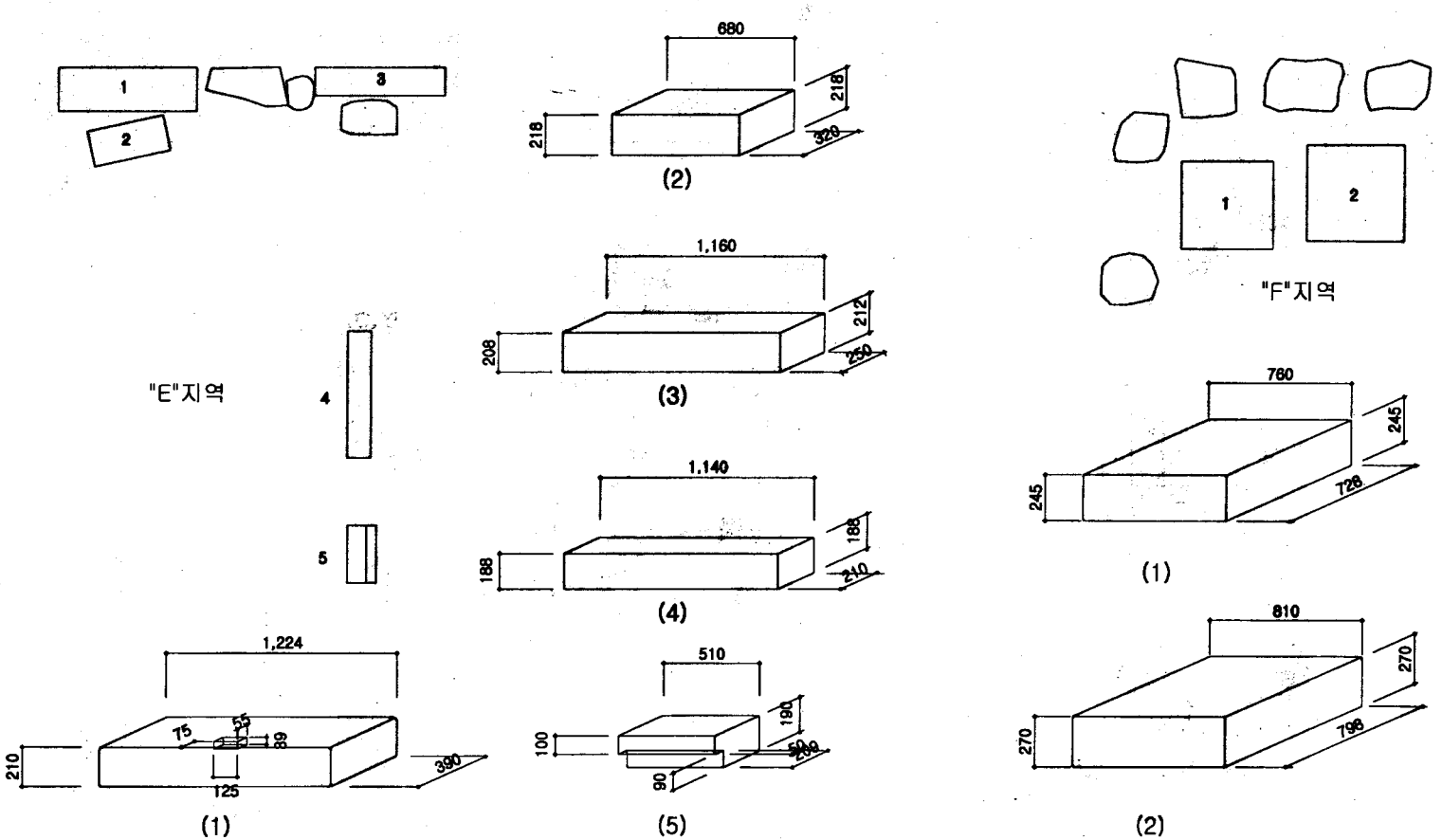
B지역



샘 및 주변석물 상세도



C · D지역 석물 상세도


1
2
3
"E"지역
4
5
680
218
218
320
(2)
1,160
208
212
250
(3)
1,140
188
188
210
(4)
1,224
210
75
55
89
125
390
(1)
510
100
190
50
200
90
(5)
"F"지역
1
2
760
245
245
728
(1)
810
270
270
798
(2)

E · F지역 석물 상세도

2. 眞空大師塔 및 石棺 (寶物 第365號)

1) 構造 및 樣式

진공대사 부도(浮屠) 및 석관은 현재 경복궁 내 중앙박물관 앞에 옮겨 세워져 있는데 원래의 위치는 홍법사지 뒷산 기슭이다. 1931년에 원위치로부터 옮겼으며 바로 옆에 놓인 석관도 함께 옮겨온 것이다.

이 부도는 화강암으로 건조하였는데 선대(先代) 이래의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의 기본형태를 충실히 본받고 있다. 여러 석재로 결구한 넓직한 정사각형 지대석 위에 팔각의 2단 몰딩을 마련하여 기단부의 하대석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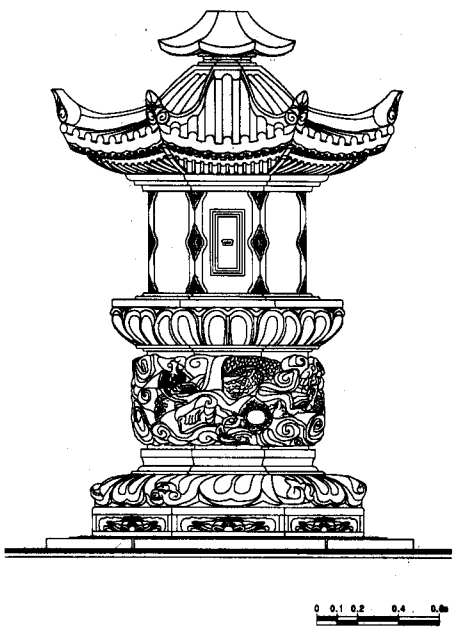
하대(下臺)는 팔각의 연화대석으로 이루어졌으며 16엽의 복판복련(複瓣複蓮)이 조각되었는바 각 모서리에 1판(一瓣)씩 두었고 각 변에도 1판씩 조각하였으며 모서리마다 연판 내면쪽에 나즈막한 귀꽃을 장식하였다. 복련 밑에는 높직한 면석으로 이루어져 그 상단은 갑석형(甲石形)이 모각되었고 각 면에는 뿔이 안쪽으로 날카롭게 뻗은 안상 1구씩을 음각(陰刻)하였는데 이 안상내에는 꽃문양이 장식되었다. 복련석 상면에는 중대석을 받기 위한 괴임대가 마련

진공대사탑 및 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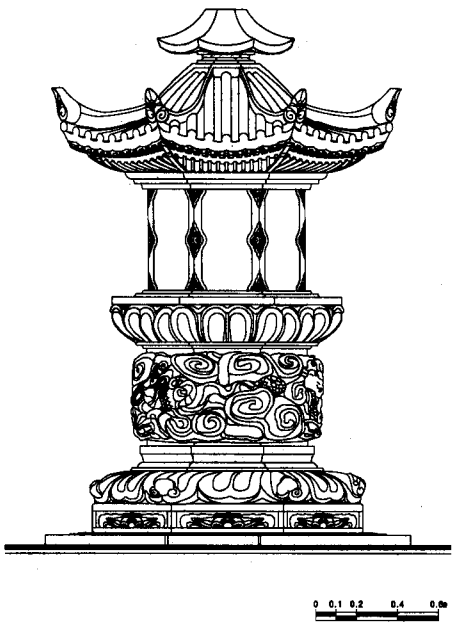
되어 있는데 2단의 낮은 괴임 위에 높직한 갑석형의 괴임을 조출하였다.

중대석은 팔각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으나 거의 각(角)을 죽여서 마치 고복형(鼓腹形)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전면(全面)에 걸쳐 웅혼(雄渾)한 수법으로 운용(雲龍)을 조각하였다.

태조(太彫)로 웅장한 권운문(卷雲紋)을 가득히 조식한 가운데에 용두(龍頭)와 동체(胴體)가 꿈틀거리듯 웅건하게 조각하였으며 특히 눈·코·입·비늘 등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진공대사탑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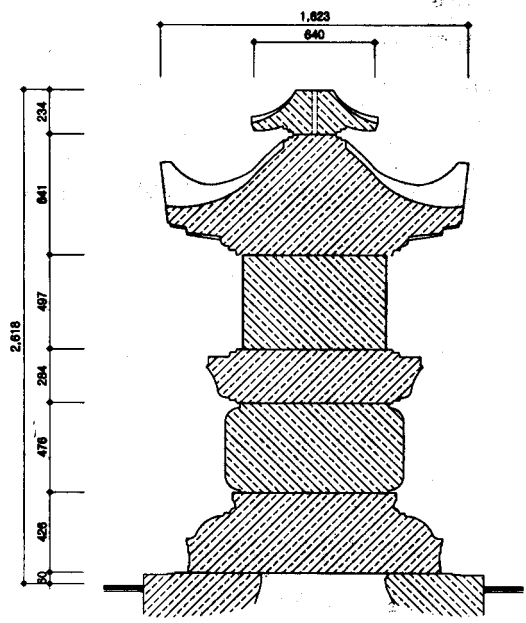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남측면

이렇듯 기단부 중대석의 표면 장식에서 운용을 만조(滿彫)한 예는 선대작(先代作)으로 건조연대를 신라 하대인 9세기 후반(88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 선림원 홍각선사탑(禪林院 弘覺禪師塔, 보물 제447호)의 기단부 중대석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대석의 운용문 만조형식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표면장식에 운용을 조각하였음은 그야말로 운상계(雲上界)에 승천하는 운용의 장엄한 자태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상대(上臺)는 앙련석으로 한 돌로 이루어졌는바 하면에는 팔각형의 받침이

조출되어 중석의 상단부에 놓였다. 앙련은 복엽(複葉)으로 16판(十六瓣)이 돌려졌는데 하대석의 복련대(複蓮臺)와 같이 각 모서리와 각 변에 각각 1판(一瓣)씩 조각하였다. 측면의 상단부는 갑석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면에는 2단의 각형괴임을 마련하여 탑신석을 받고 있다.

탑신석(塔身石)도 한 돌로 조성하였는데 팔각의 평면이며 각 모서리의 주형(柱形)은 상하와 중앙부에서 안쪽으로 화형(花形)이 좌우에서 두출(斗出)되는 특이한 형식이다. 탑신의 각 면에는 별다른 조각이 없으며 전·후면에만 중첩된 방액(方額) 안에 문호형(門戶形)이 모각되었다.



진공대사탑 단면도

역시 한 돌로 조성된 팔각평면의 옥개석(屋蓋石)은 약간 높은 편인데 하면에는 3단의 옥개받침을 각출하고 이 받침부를 중심으로 이중(二重)의 연목을 세출(細出)하여 목조건축을 모방한 의장(意匠)을 엿볼 수 있다. 낙수면은 8조(條)의 굵은 우동(隅棟)이 흐르다가 전각(轉角)에 이르러 높직한 고사리문의 귀꽃이 솟았는데 각 8우(八隅)의 전각 부분에 반전(返轉)이 심하여 오히려 높이 솟은 귀꽃과 잘 어울리고 있다.

각 귀마루의 사이에는 기와를 입힌 모양의 기와골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8면의 전각부(轉角部)에 이르러서는 암막새와 숫막새까지 모각되어서 목조건물의 일면을 또 한번 볼 수 있다. 옥개석 정상의 상륜부에는 한 돌로 조각된 팔각 보개석이 놓여 있는데 낙수면에 기와골은 표현되지 않았으나 8조의 굵은 우동(隅棟)과 여덟 귀퉁이 전각의 반전(返轉)은 뚜렷하다.

탑의 최고높이는 정면을 기준할 때 총 2,618㎜로 그리 높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상하의 균형이 잘 잡혀있고 각 부재의 결구수법에 있어서도 그 기백과 품격을 잃지 않고 있다. 그리고 조루(彫鏤) 또한 우아하며 특히 운용의 조각을 걸작으로 손꼽아야 할 것이다. 선대인 신라 하대의 퇴화된 작품에 비하

여 신흥국가인 고려의 패기가 넘치는 우수작이라 하겠다.

현재 부도(탑)의 바로 옆에 놓인 석관도 단아한 수법을 보이며 뚜껑까지 구비하고 있는 희귀한 유례라 할 수 있다. 신부(身部)의 저변(低邊)에 간격을 두고 넓은 횡대(橫帶)를 돌렸으며 밑변과의 사이에는 전후에 2좌씩, 좌우에 1좌씩의 안상이 있으니 그 수법은 부도의 기단부, 하대석 측면 안상의 수법과 같으나 안상내에는 조식이 없다. 뚜껑은 상면을 수평으로 자른 우진각(隅陳角) 형태이며 측면은 약간 내경(內傾)되고 있어 온화한 품위를 보이고 있다.

이 진공대사탑이나 석관의 조성연대에 대해서는 탑비가 남아 있으므로 이 비문에 의거함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비신의 파손으로 이에 의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고려사 세가 태조 23년조에 「秋七月王師忠湛死 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라는 기록이 있어 곧 이 부도의 건조연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 태조 23년은 940년에 해당하는데 이 연대를 진공대사탑 건립연대의 상한(上限)으로 보아 그 하한(下限)은 그리 뒤지지 않음을 부도 자체의 양식수법과 당시의 형세 등에서 추측할 수 있으므로 태조 23년경을 곧 진공대사탑의 건조연대로 추정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이상 진공대사탑을 살펴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단부(基壇部)에서 옥개석까지 전체의 평면이 팔각형인데 지대석(地臺石)만은 정사각형이다.

둘째, 기단부는 상하 모두 연화대석이며 하대석 측면에 안상이 조식되었다. 그러나 중대석은 전면에 걸쳐 운용문이 가득히 조각되어 고려 부도에서는 처음 보는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선대작에서 본받은 것 같다.

셋째, 탑신에는 문호형(門戶形)을 모각하고 각 면에는 우주(隅柱) 대신 장식적이고도 이형적(異形的)인 안상문을 조식하였다.

넷째, 옥개석(屋蓋石)은 하면이나 낙수면이 모두 목조건물의 옥개부를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서 연목이 조출(彫出)되고 기와골이 나타나고 있으며 암막새, 숫막새 등의 막새기와까지 모각(模刻)하였다.

다섯째, 상륜부는 부재가 보개(寶蓋) 뿐이나 추녀의 곡선이나 전각의 반전이나 낙수면의 경사 등이 옥개석의 그대로를 옮긴 것 같이 보인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해 보면 중대석에서의 운용문(雲龍紋)이 선대작(先代作)을 모범 삼은 것처럼 옥개석 등 각 부재는 선대(先代)의 부도(浮屠)를 계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各部 實測調査

〈표 1〉 진공대사탑 실측치 개요 (단위 ; ㎜)

명 칭	구 분	최대넓이(평균치)		높이(정면기준)		비 고
		팔각한변	전 폭			
기단부	지대석	(正方形)	1,797	60(노출高)	소계 1,246	탑 전체高 2,618
	하대석	560	1,352	426		
	중대석	(圓形)	944	476		
	상대석	458	1,145	284		
탑신부	탑신석	315	763	497	1,138	
	옥개석	672	1,623	641		
상륜부	보개석	265	670	234	234	

① 基壇部

널찍한 정방형 지대석(地臺石)은 폭이 평균 1,797㎜로서 평면구성은 모두 7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위에 아주 얕은 층급의 팔각 2단의 몰딩을 두어 기단 하대석(下臺石)을 받치게 하는 장식적인 성의를 보였다.

최대 폭 1,352㎜, 전체높이 426㎜인 하대석은 단일석으로서 상부의 복련석에 16엽의 복판(複瓣) 연화가 좌에서 우의 방향으로 휘어도는 모습으로 8면으로 돌려져 조각되었는데 각 우각(隅角)마다 낮으막한 귀꽃이 장식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모서리 상부가 모두 손상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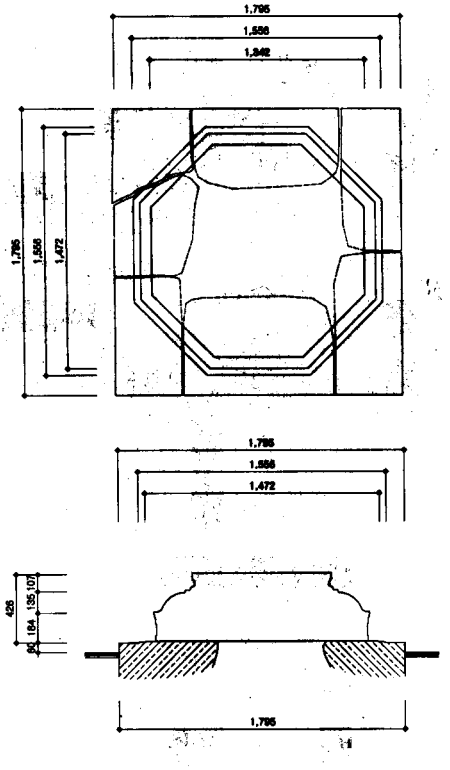
지대석 · 하대석

하대석 복련(伏蓮, 팔각한변 560㎜, 높이 161㎜) 밑에는 높직한 면석(높이 144㎜)을 두어 각 면마다 뿔이 안으로 날카롭게 뻗은 안상 1구씩이 있고 그 안에 화형문이 음각으로 조각되었으며 복련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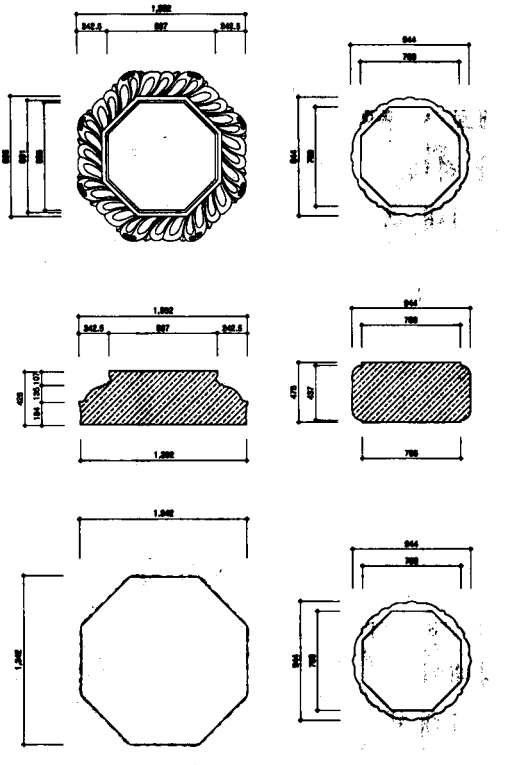
중대석

부쪽은 안쪽으로 굽은 굴곡면과 그 아래에 둥근 쇠시리 곡면을 둔 높이 107㎜의 층급괴임이 있다.

하대석 바로 위의 중대석(中臺石)은 최대직경이 944㎜, 높이 476㎜의 통돌이 사용되었다. 팔각의 모서리 부분의 모를 죽여 거의 원형 평면으로 북 모양을 만든 고복형(鼓腹形) 운용간석(雲龍竿石)으로서 부재표면의 전반에 걸쳐 웅장한 구름무늬와 함께 뒤엉켜 있는 3마리의 용이 정교한 솜씨로 조각되었다. 이 운용간석은 고려 초 부도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고달선원지(高達禪院址)의 원종대사혜진탑(元宗大師慧眞塔, 977)에서도 볼 수 있다.



지대석



하대석 · 중대석

상대석은 팔각형으로서 최대폭 1,145㎜(팔각한변의 크기 438㎜)에 전체높이는 284㎜이다. 하대석과 같은 수법의 복판(複瓣) 연화 16엽의 앙련을 두었으며 간엽(間葉)이 배치되었다. 하단에는 2단의 각형 받침을 두었다. 상단에는 최대폭 1,121㎜(팔각한변 458㎜), 높이 36㎜의 얇은 팔각 테두리면을 두었으며 그 위에 각형 2단의 층급괴임이 있다.

상대석

진공대사탑 기단부

〈표 2〉 진공대사탑 기단부 실측치 (단위:㎜)

명 칭	구 분			동 면	서 면	남 면	북 면	평균치	비 고
지대석	7매구성		폭	1,799	1,799	1,795	1,795	1,797	정방형
			고	60	62	59	60	60	
하대석	면 석		폭	1,330	1329	1331	1332	1330	안상음각
			고	144	143	145	144	144	
	복 련		폭	1,352	1353	1354	1352	1353	16엽
			고	160	161	162	159	161	
	중대석받침	1단	폭	958	957	956	959	957	
			고	15	14	15	16	15	
		2단	폭	890	891	889	890	890	
			고	27	26	28	27	27	
		3단	폭	830	831	830	829	830	쇠시리몰딩
			고	41	40	40	42	41	
		4단	폭	860	859	861	858	859	최상단돌출면
			고	39	40	38	39	39	
중대석	받침(하)		폭	788	787	789	789	788	
			고	15	16	14	15	15	
	면 석		폭	944	942	940	941	942	운룡문(鼓形)
			고	476	476	475	477	476	
	받침(상)		폭	787	785	785	787	786	
			고	24	23	25	24	24	
상대석	받침(하)	1단	폭	803	804	805	803	803	(상)
			고	15	14	16	15	15	
		2단	폭	876	877	877	878	877	(하)
			고	15	15	16	14	15	
	앙 련		폭	1,145	1,144	1,143	1,145	1,143	16엽
			고	178	180	178	176	178	
	받침(상)	1단	폭	1,121	1,119	1,120	1,121	1,120	(하)
			고	36	33	34	35	35	
		2단	폭	878	877	877	876	879	(중)
			고	25	24	23	25	24	
		3단	폭	821	819	820	818	819	(상)
			고	15	15	16	15	15	

② 塔身部

〈표 3〉 진공대사탑 탑신부 실측치 (단위 : ㎜)

명 칭	구 분			동 면	서 면	남 면	북 면	평균치	비 고
탑신석	(팔각형)		폭	764	766	763	766	765	팔각한변 314
			고	497	498	499	497	498	
옥개석 (팔각형)	층급받침(하)	1단	폭	883	882	884	886	884	최하단
			고	26	25	24	26	25	
		2단	폭	959	957	957	959	958	
			고	22	23	24	23	23	
		3단	폭	1,039	1,038	1,039	1,037	1,038	쇠시리 몰딩
			고	33	33	32	34	33	
	처마길이		연목	179	180	179	181	180	추녀 및 사래 有
			부연	85	86	86	87	86	
	지붕+처마		폭	1,623	1,624	1,627	1,625	1,625	귀꽃有
			고	515	513	514	514	514	
	상륜부받침	하부	폭	330	329	332	330	330	낙수면 상단
		1단	폭	286	287	285	287	286	
			고	15	15	16	15	15	
		2단	폭	234	235	235	236	235	최상단
			고	15	16	16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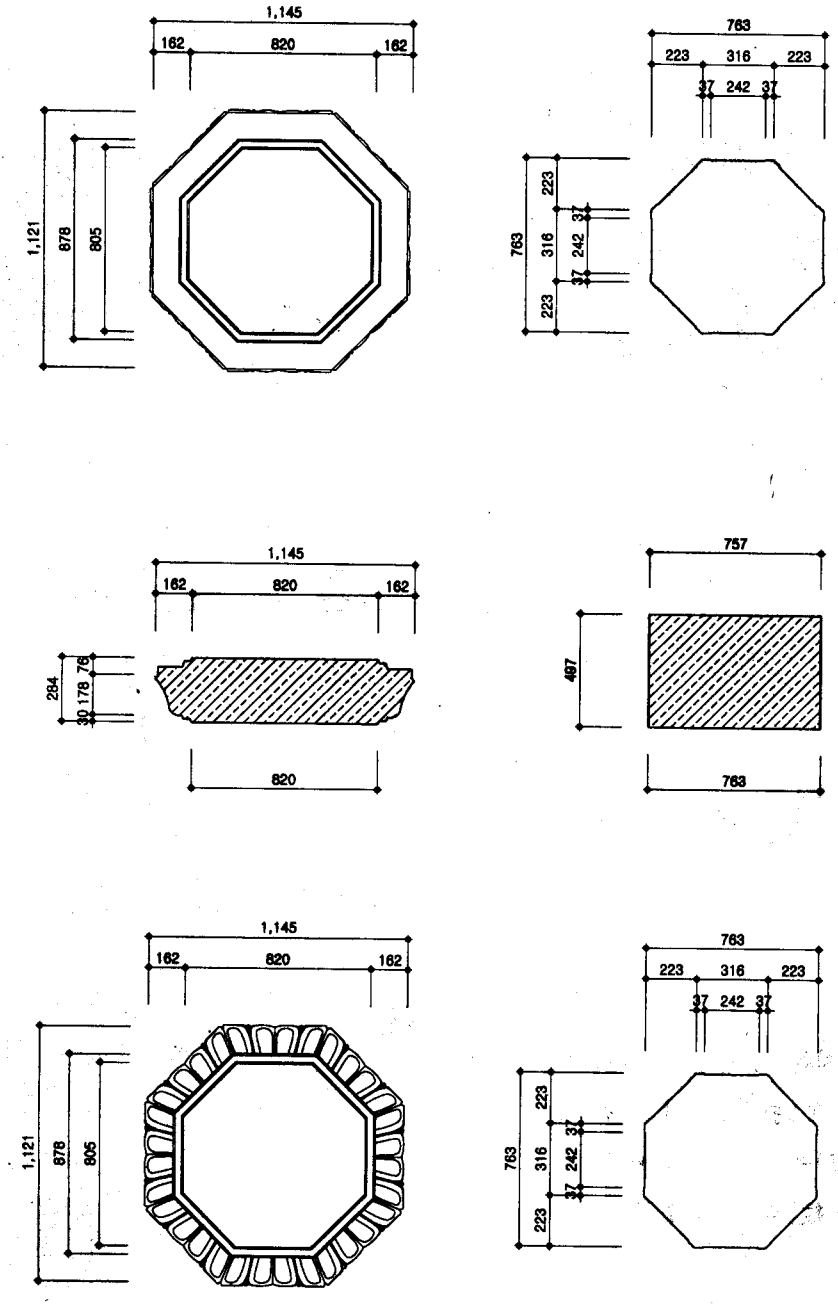
가. 塔身石

탑신석 또한 팔각형 평면으로 단일재이며 한 변의 폭은 315㎜ 내외, 전체 폭은 763㎜로 높이는 497㎜이다. 각 우각부(隅角部)의 기둥모양은 아래 위 중앙에서 안으로 화형이 좌우에서 내밀어지는 특이한 형식이며 모서리 절각부(折角部)에 좁은 주연선(柱緣線)을 두고 그 내면에 보화문(寶華紋)과 당초문(唐草紋)을 채워 넣었다.

탑신석

탑신 기둥 중간부와 상·하단에는 큰 보화문을 모서리로부터 양면으로 넓게 펼쳐 넣어 기둥 연선

(緣線)을 넘어 돌출되도록 화형(花形)을 조식(彫飾)한 것이다. 탑신석 동면과 서면 중앙에는 문호(門戶)를 상징하는 자물쇠형이 모각되어 있다.



진공대사탑 상대석 · 탑신석

나. 屋蓋石

옥개석 역시 단일재이며 전체 폭은 1,623㎜이다. 팔각 한변의 크기는 귀꽃 끝을 중심으로 672㎜이다. 전체높이는 641㎜이다. 하단에는 2단의 각형 받침과 1단의 쇠시리 몰딩(도리를 표현함)이 팔각으로 돌려졌으며 지붕마루 위 상단에는 2단의 각형 받침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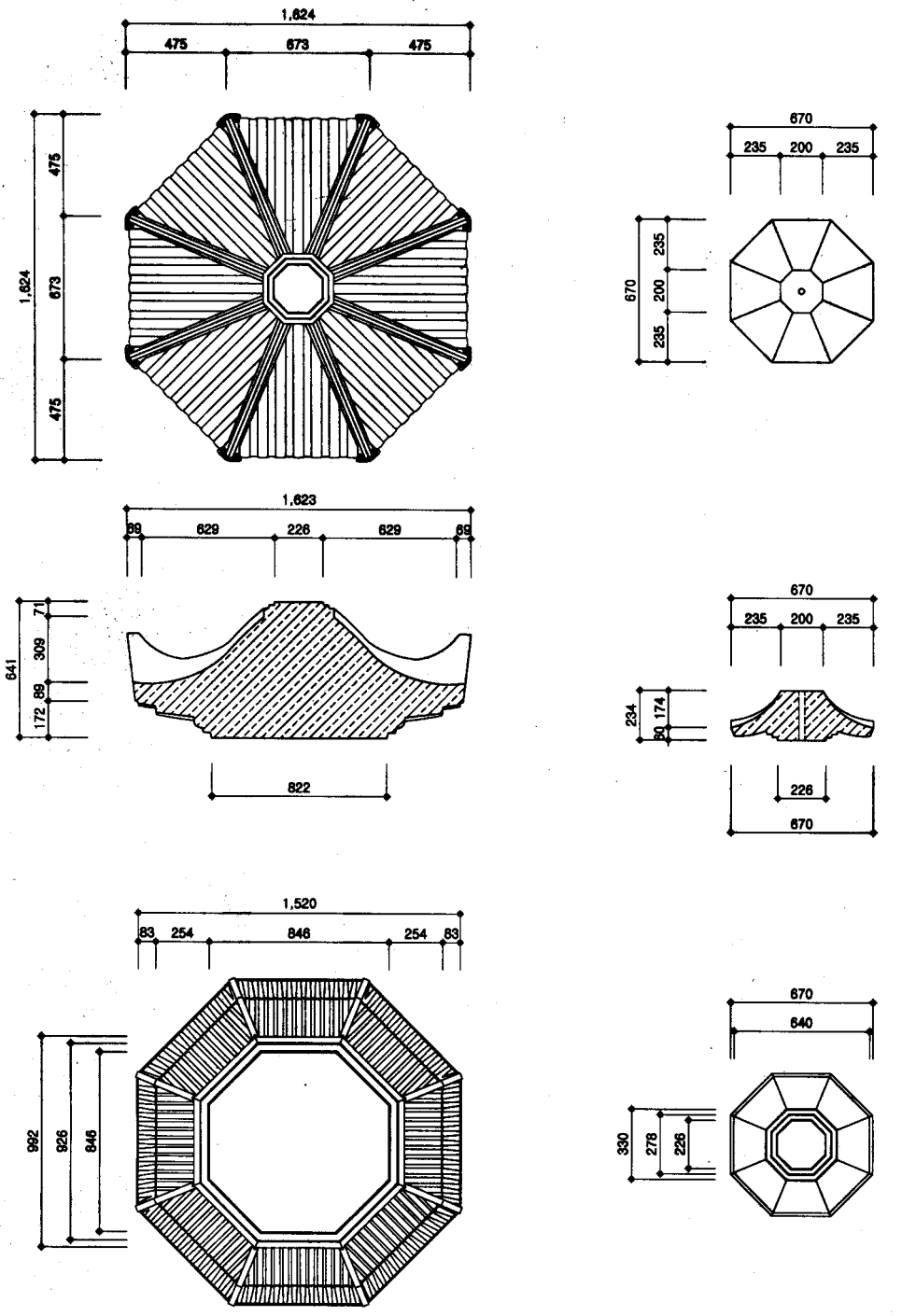
여덟 줄로 내려온 옥개석 귀마루는 굵은 우동(隅棟)이 흐르다가 전각(轉角)의 반전이 심한 모서리에 이르러서는 높게 솟은 귀꽃이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귀꽃은 서쪽의 3개가 파손되어 있는 모습이다. 귀꽃과 귀꽃 사이에는 경사가 완만하게 내려온 낙수면에 기와를 입힌 모양의 기왓골이 모각되었다. 또한 각 면의 처마 끝에는 암막새·숫막새까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옥개석

처마 아래의 여덟 모서리 부분은 우각부의 치켜 올라간 곳에 정확하게 추녀·사래의 형태를 모각하였다. 처마끝은 직절하여 넓은 테두리를 두르며 팔각평면에 따른 자연스러운 처마곡선을 이루었으나 처마 안허리곡은 거의 없다.

옥개석 처마밑

특히 공포대(栱包帶)를 상징한 2단의 각형 받침 위에는 호형(弧形)으로 곡면으로 둥글린 외목도리(外目道里)를 묘사하고 그 위에 단면형이 원형(圓形)인 서까래와 각형(角形) 부연을 조각하였다. 당시 목조건축의 사실적 일면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자연(扇子椽) 부분은 목조건물의 말굽선자형 방식과 흡사하다. 연목 및 부연 모두 선자연의 개수는 12~14개로 각 면마다 약간씩 다르나 평균 13개이고 추녀·사래 옆에 배치되는 붙임혀가 배열되지 않은 곳도 있다.



진공대사탑 옥개석 · 보개석

③ 上輪部

〈표 4〉 진공대사탑 보개석 실측치 (단위 ; ㎜)

명 칭	구 분		동 면	서 면	남 면	북 면	평균치	비 고
지 붕	폭	상부	200	201	199	200	200	앙곡높이 33 부재高 234
		하부	670	669	671	672	671	
	낙수면 高		174	173	174	175	174	
층 급 받 침 (하)	1단	폭	338	337	338	339	338	
		고	15	16	15	15	15	
	2단	폭	286	284	285	287	286	
		고	15	15	14	16	15	
	3단	폭	234	235	232	233	234	
		고	15	15	16	17	16	

상륜부는 옥개석 정상에 낙수면(落水面)이 있는 팔각형의 작은 보개석만 남아 있다. 보개석의 전체 폭은 641㎜ 내외 전체 높이는 234㎜로서 하부쪽에 3단의 각형 받침을 두었다. 지붕의 8면 모서리 부분은 모두 약간의 파손이 있어 정확한 처마 앙곡(仰曲)을 측정하기 어려우나 약 33㎜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안허리곡은 거의 없다.

상륜부재(보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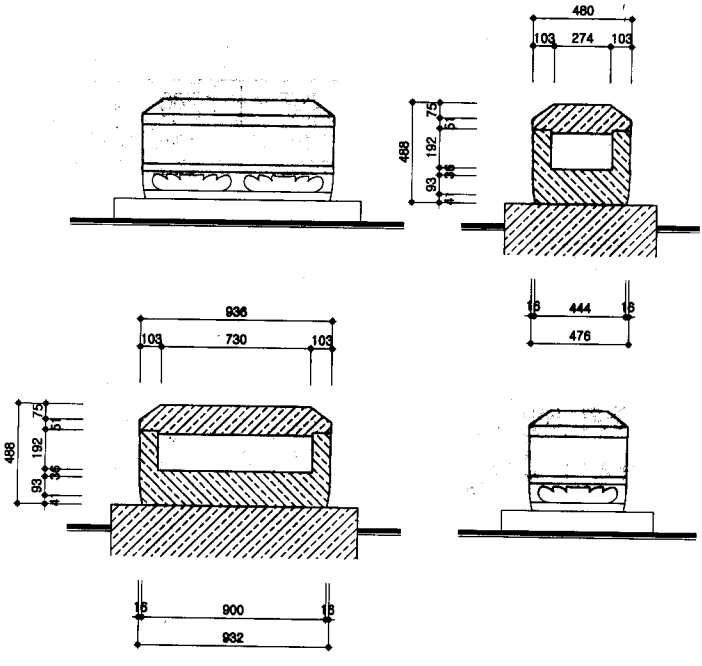
옥개석과 보개석이 접하는 면의 각형 받침이 서로 맞닿아 있어 옥개석 위에는 보개석이 막바로 얹혀지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보개석의 중앙에는 직경 27㎜의 찰주공(擦柱孔)이 상하로 관통하여 뚫려 있으나 보주(寶珠) 등의 상륜부 마감부재는 없어져 상륜부의 제 모습을 알 수 없다.

④ 石棺(石函)

석관은 경문(經文)이나 묘탑(墓塔)의 주인공과 관련이 있는 유물을 봉안하는 돌로 만든 함(函)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묘탑 옆에 놓여 전시되고 있지만 석관은 본래 묘탑 밑쪽 지하에 묻혀있던 것으로서 상면을 수평으로 자른 우진각 형태의 개석(蓋石, 덮개돌)을 구비하고 있다.

석관의 아래쪽 몸체는 가로 476㎜, 세로 932㎜, 높이 362㎜로서 벽의 두께는 89㎜ 내외이다. 방형 상자모양의 아래쪽에 사이를 두고 넓은 횡대(橫帶)의 띠를 돌려서 상·하 2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꺼운 밑바닥의 외면에는 하단부에 앞뒤로 2구씩과 좌우에 1구씩 모두 6구의 안상(眼象)들이 있는데 아래쪽 폭은 상부쪽 폭보다 약간 좁고 아주 완만한 곡면(曲面)을 두었다. 의장효과를 꾀한 듯 모서리 부분을 약간만 곡면으로 둥글렸다.



석관 상세도

뚜껑돌인 개석은 상면을 4면으로 약간 경사지게 접어 돌려 치장하였으며 밑쪽 석함(石函)보다 약 4㎜ 가량 크고 두께는 내단부 중앙이 141㎜이다. 아래쪽 함에 얹혀지는 부분은 15㎜ 가량 턱을 두어 덮개석이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되어있다. 석관의 몸체는 서면(西面)의 벽과 모서리 일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으며 전체높이는 488㎜이다.

〈표 5〉 석관 실측치 (단위 ; ㎜)

명 칭	구분	폭(길이)		높 이	두 께		비 고
		가로	세로		외곽	바닥	
석함(몸체)	상부	476	932	362	89	167	전체고 488
	하부	448	904				
개석(덮개)	상면	274	730	126	외단부(면) ; 51 내부중앙 ; 141		
	하면	480	936				

3. 眞空大師塔碑 龜趺 및 螭首 (寶物 第463號)

1) 構造 및 樣式

탑비는 현재 3층석탑이 건립되어 있는 사지 중심곽의 서북쪽에 보존되어 있는데 주변의 상황이나 귀부(龜趺)가 자리잡은 상태로 보아 현재의 자리가 원위치로 생각된다. 귀부와 이수(螭首)는 원 소재지인 이곳 절터에 남아 있으나 비신(碑身)은 현재 서울 경복궁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탑비 귀부 및 이수 정면

진공대사탑(보물 제365호)은 본래 뒷산 기슭에 건립되어 있었으며 그 탑비(塔碑)는 현재 멀리 떨어진 사지 중심곽 북서우쪽에 세워져 있는데 이렇듯 부도와 거리를 두어 아래쪽에 탑비를 세우는 형식은 신라 이래로 통례(通例)로 되어 있다.

귀부는 넓직한 직사각형의 지대석(地臺石) 부분과 끊어짐이 없이 한 돌로 조성되었으며 네 발로 지대석을 힘차게 딛고 있다. 용두화(龍頭化)된 거북머리에 입에는 여의주(如意珠)를 물고 있고 짧은 목은 직립하였다.

등에는 육각형의 귀갑문(龜甲紋)을 가득히 조각하였고 귀갑문 내면에는 꽃문양을 장식하였는데 그 중 만(卍)자를 조각한 귀갑문이 있어 주목된다. 귀갑의

탑비 귀부 및 이수 측면

둘레는 폭이 넓은 소문대(素紋帶)를 돌려 귀갑의 한계와 그 크기를 알도록 하였다. 귀갑 양쪽 밑으로는 주름이 보이며 귀두(龜頭)의 목덜미 밑으로도 주름이 보여 전면에 걸쳐 조각이 가득함을 느끼게 한다.

거북머리는 코에 비하여 양쪽 눈이 더욱 부리부리하며 머리 위에는 뿔(?)을 꽂았음직한 큼직한 장방형 구멍이 남아있다. 거북 등의 중앙에 직사각형의 높직한 비좌(碑座)를 마련하였는데 각 면에는 안상(眼象)을 장식하고 있다. 상면에 홈을 파서 비신(碑身)을 꽂도록 하였으며 그 주변에는 낮은 각형 1단과 4분원의 높직한 1단 괴임을 마련하여 비신을 받도록 하였다.

현재 비좌(碑座) 위에 놓여 있는 이수(螭首)는 정면 중앙에 전액(篆額)을 마련하고 그 안에 종(縱) 2행으로 나누어「眞空」,「大師」라고 전서(篆書)로 음각한 4자가 있다. 이 전액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운용(雲龍)이 대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좌우 측면에도 전후 대칭되게 운용을 배치하였다. 여기의 용두(龍頭)는 눈과 코 등이 부리부리하고 동체(胴體)에 새겨진 비늘도 사실적으로 생동감이 나며 간지(間地)에 구름문양을 가득히 조각하여 빈틈이 하나도 없어 이수 전체가 조각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이 귀부의 거북머리와 귀갑문 조각, 이수의 운용과 간지(間地)의 구름조각 등은 가히 당시를 대표하는 조각들로서 귀중한 연구의 기준물이 된다고 하겠다.

비신(碑身)은 현재 서울 경복궁에 옮겨져 있으나 원위치에서 언제 도괴되어 파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도괴된 뒤 한때 소재를 알 수 없었으나 후일에 비신을 발견하여 원주군청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가 1913년에 당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인계되었다고 한다. 그 후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다른 석물들과 함께 진열, 전시되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옮길 때의 비신 상태는 4편 절석(切石)이었던 것으로서 가운데 부분을 잃고 있었다고 하며 지금 남아있는 비편(碑片)들은 비신의 상부와 하부에 해당한다.

비문(碑文)에 의하면 진공대사의 법휘(法諱)는 충담(忠湛), 속성은 김씨(金氏)로 신라 경문왕(景文王, 861~875) 9년(869)에 탄생하였다. 장순선사(長純禪師)에게 사사(師事)하고 21세 때인 진성여왕(眞聖女王, 887~897) 3년(889), 무주(武州) 영신사(靈神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그 후 당나라에 가서 정원대사(淨圓大師)에게서 수도하고 효공왕(孝恭王, 897~911) 때에 귀국하여 왕사(王師)가 되었으며 고려 건국 후에도 태조의 왕사가 되었다가 태조(912~943) 23년(940)에 입적(入寂)하였다고 되어 있다.

비제(碑題)는 「高麗國原州 ------ 」이하는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이고 비문도 일부인「臣崔光胤奉 敎集 太宗文皇 -----」부분만 판독되었다. 이 비문은 대사가 세상을 떠난 뒤 태조가 몸소 글을 지은 것으로 전하며 고려 초의 문신(文臣)인 최광윤이 당태종의 글씨를 집자한 것으로 유명하다. 글씨는 2~4㎝ 크기인데 행서로 신라 말엽에 이미 당태종의 글씨가 전래되었음을 기록으로 입증해주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석비의 뒷면에는 대사가 태조에게 올린「表」가 해서(楷書)로 새겨져 있다. 거의 모든 글씨를 당태종의 글씨에서 집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구성미는 찾아볼 수가 없으나 집자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작업을 수행한 사람의 서미적(書美的)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서풍은 역시 당태종이 좋아한 왕희지(王羲之)의 서풍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석비의 건조연대는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태조 23년조 기록에 의하여 고려 태조 23년(940)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진공대사탑비의 귀부와 이수 및 비신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각 부의 특징적인 면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부(龜趺) 지대석과 귀부가 같은 석재로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신라 이래의 통식(通式)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귀갑문(龜甲紋)에 있어서 내면의 장식을 화문(花紋) 이외에 "卍" 자를 양각하여 혼용한 것은 희귀한 예로 주목된다.

셋째, 용두화(龍頭化)한 거북의 부리부리한 눈과 여의주, 머리 위의 구멍 등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넷째, 이수에 있어서 석비의 주인공이 진공대사임을 분명하게 한 음각명(陰刻銘)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섯째, 이수(螭首)의 앞·뒤, 측면 등 전체에 용과 구름문양을 가득히 조각하여 석조 조각으로도 주목된다.

여섯째, 비신에 있어서 결실부분이 많아 유감된 일이나 주인공을 알 수 있고 특히 당태종 글씨의 집자비(集字碑)인 점에서 귀중하다.

일곱째, 진공대사의 행적이나 역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관계자료가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몇가지 문헌은 있으나 금석문으로서의 생생한 자료는 이 석비 뿐이다. 비록 결락부분이 많으나 대사의 행적은 이 석비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이다.

2) 各部 實測調査

〈표 6〉 진공대사탑비 실측치 개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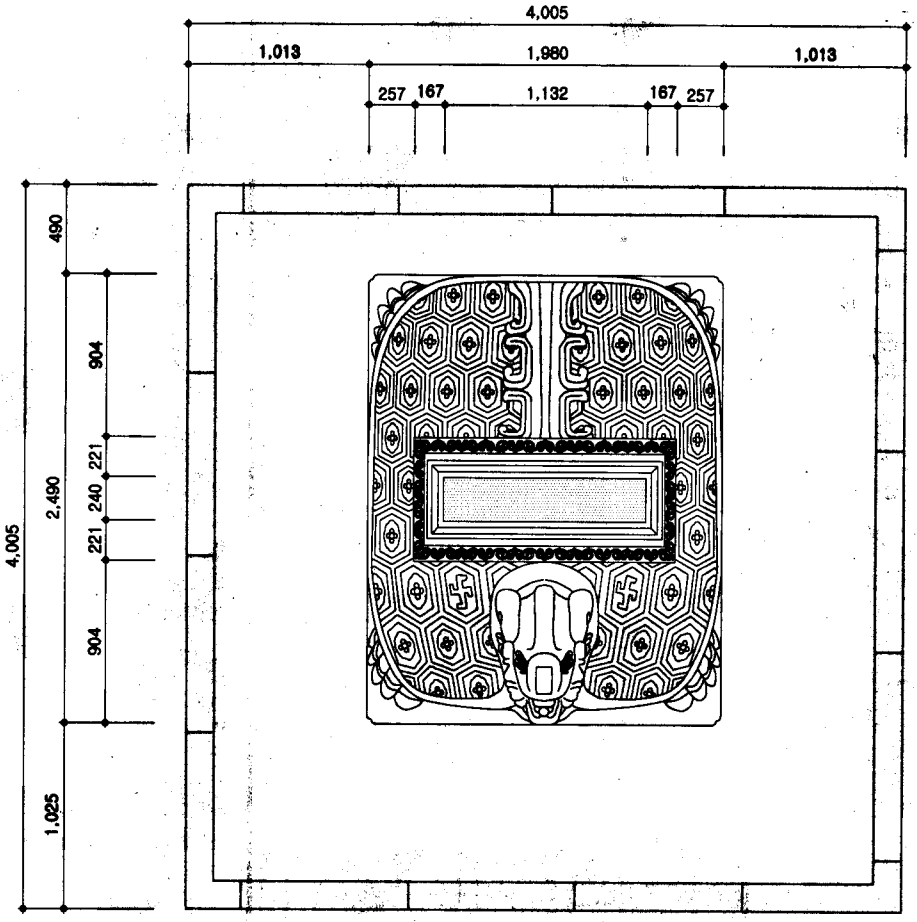
명 칭	적 요		폭 또는 두께		높 이		비 고
			정면	측면			
귀 부	귀부대좌		1,980	2,490	노출30	813	비신홈 크기 240×1,130 홈깊이 75
	귀부몸체		1,980	2,490	783		
비 신	상부	1片	780	厚240	1,005	잔존길이 계 2,115	파손되어 중간부결실됨. 비신-중앙박물관에 보관
	하부	3片	810	厚240	1,110		
이 수	운용문		1,798	855	1,065		비신홈 크기 238×1,127 홈깊이 75

※탑비 외곽 사면에 있는 정방형으로 돌려진 기단석은 탑비 보호차원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서 가로 4.0m×세로 4.0m에 노출된 상면 폭은 15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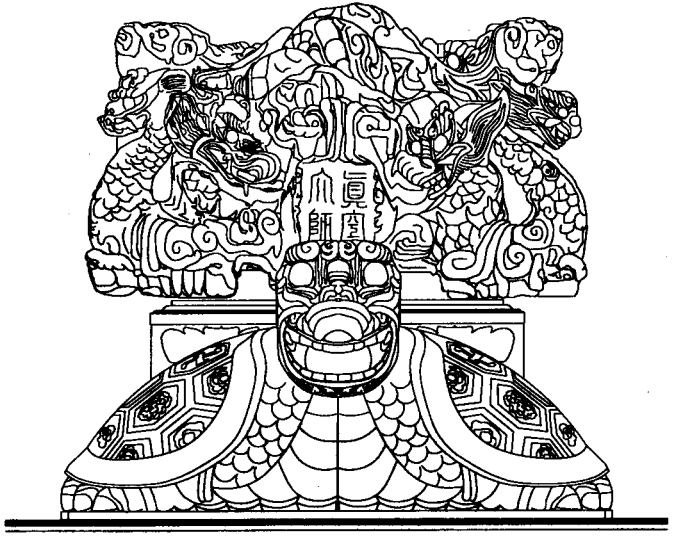
※사지의 탑비에는 비신이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 실측이 가능한 귀부와 이수의 높이만을 합한 높이는 지대석 노출높이를 포함하여 1,878㎜로 측정되었다. 여기에 비신의 중간부위가 결실된 것을 감안하여 비의 높이를 계산하면 비신을 포함한 옛 모습의 전체높이는 약 14.5~15.0자(4.35~4.50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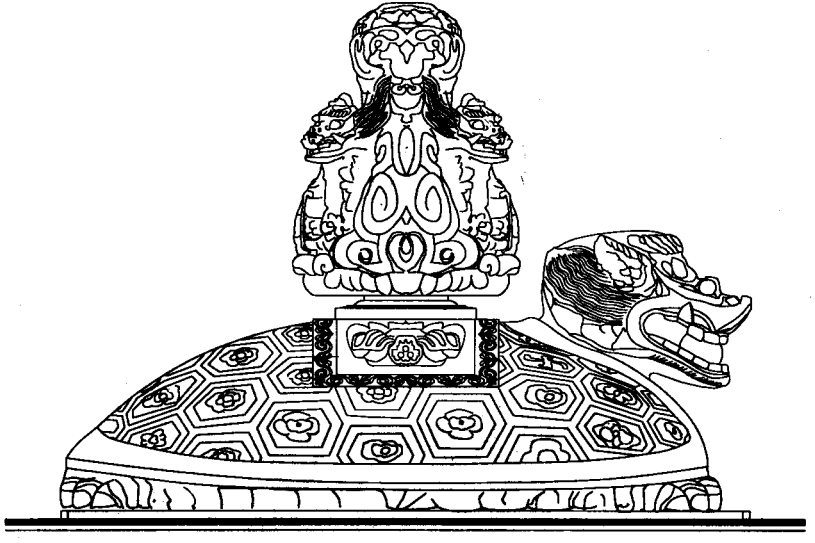
① 龜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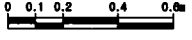
남향으로 앉혀진 귀부는 직립한 거북머리(龜頭)의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귀부의 뒷면 중앙에는 감아 올린 꼬리가 조각되어 있다. 약간 웅크린 자세로 네 발로 대석(臺石)을 힘있게 딛고 있으며 앞 뒤 발마다 발가락은 5개씩이다. 거북머리의 상면은 편편하게 치석되어 있으며 이례적으로 중앙에 폭 90㎜, 길이 150㎜에 깊이 60㎜의 홈을 판 것이 눈에 띄인다. 이 부위가 무슨 연유로 파여져 있는지는 타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확실히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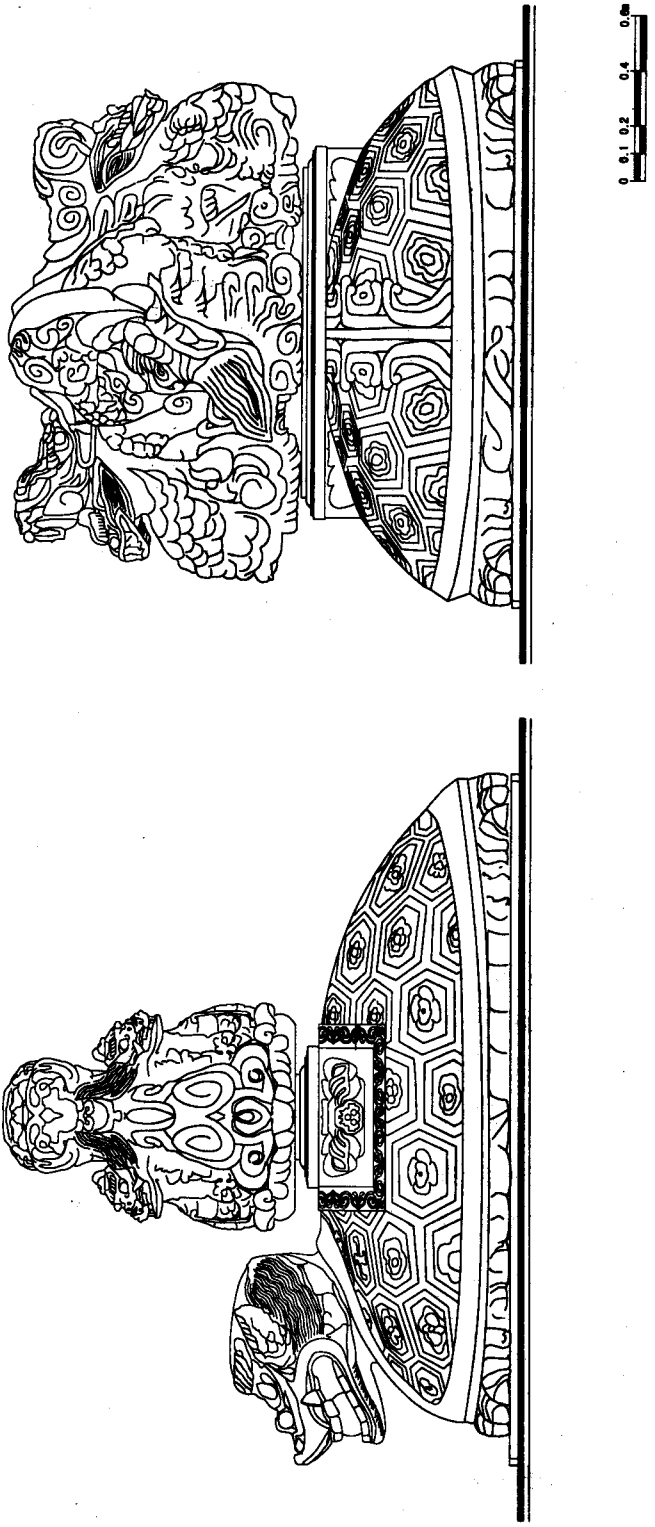
탑비 귀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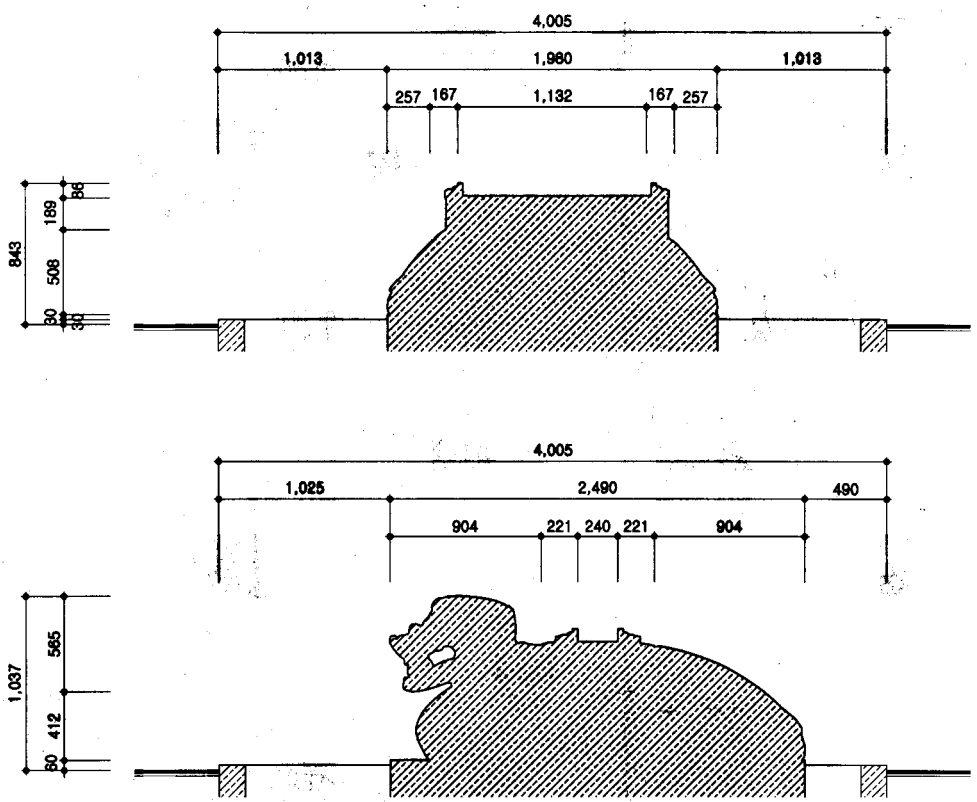




진공대사탑비 정면도 · 좌측면도



진공대사탑비 우측면도 · 배면도



귀부 단면도

두꺼운 거북등에는 구갑문(龜甲紋)을 이루는 계선(界線)을 양각(陽刻)으로 두드러지게 구획하고 중곽(重廓)으로 겹쳐 펼쳐진 육각형의 내면에 다시 굵은 띠를 중곽(重廓)으로 돌리고 보상화(寶相花) 문양을 새겼으며 정면쪽 등에는 만(卍)자를 보상화 문양 사이에 좌·우 각각 1개씩 새겨 넣은 것은 당시 남한강변에 이웃한 고달사지, 거돈사지 등에 현존하는 탑비들의 귀부와 형식이 비슷하여 조영시기와 그 지역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귀부(대좌포함)의 평면 길이는 정면쪽이 1,980㎜, 측면쪽이 2,490㎜로서 노출높이는 10~30㎜내외이다. 대좌 위의 귀부 높이만을 측정하면 783㎜이다. 귀부 거북머리의 입에 있는 어금니는 일부 훼손되어 결손부위가 있다.

귀부 정면과 측면의 비례감각이 탁월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미적 균형감각과 조형성이 우수하다.

또한 지대석과 한몸으로 붙어있어 매우 규모가 큰 화강석 원석(原石)을 사용하여 치석한 단일석이다. 그 크기는 폭 6자 반, 길이 8자, 높이 4자 이상의

화강암 통돌을 구하여 가공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원석은 무게만도 약 13톤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채석과 운반과정에서 상당한 공력을 들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귀부(龜趺) 상면에는 비신을 끼웠던 비신좌(碑身座)가 있는데 등의 복판에 장방형으로 자리잡았다. 폭 4㎝의 당초문(唐草紋) 테두리를 두르고 거북 등의 높고 낮은 곡면을 따라 형성된 각형 좌대를 세웠다. 좌대의 면에는 정면과 배면, 양측면에 안상(眼象)을 두었는데 정면과 배면에 각 2구씩, 양 측면에 각 1구씩이며 정면과 배면의 안상의 내면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으나 양 측면 안상에는 특별하게 당초문이 조식되었다. 안상의 외곽선 문양은 진공대사탑의 하대석 및 석관의 그것과 동일한 형상임을 느낄 수 있다.

귀두 측면

귀두 상면

직사각형 비신좌대의 상면에는 얕은 층급 사이에 둥근 쇠시리를 4면에 걸쳐 1단 돌렸음은 진공대사탑의 하대석에서 보는 수법과 같다. 비신을 끼웠던 홈의 크기는 가로(정면쪽) 1,130㎜, 세로(측면쪽) 240㎜에 홈깊이는 75㎜이다.

② 碑身

현재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비신은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크기는 여러 개로 쪼개져 있음을 「서울시金石文大觀」에 실린 기록과 사진으로 알 수 있다.

탑비 비신

남아있는 부재 중 상부 부재는 단재(單材)로 폭 780㎜, 높이 1,005㎜이고 하부재는 3개로 다시 쪼개져 있는 것을 합쳐 모아놓은 상태이다. 하부 부재의 폭은 810㎜, 최대높이는 1,110㎜이다. 중간부위가 일부 결실되어 있기 때문에 비신의 전체 높이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비문은 고려 태조가 짓고 문신(文臣) 최광윤(崔光胤)이 당태종의 글씨를 집자(集字)한 것이다. 비신 중간부위의 결실 때문에 일부는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글씨는 행서(行書)로 새겨져 있고 뒷면의 표문(表文)은 해서(楷書)로 되어 있다.

③ 螭首

이수는 단일석(單一石)을 사용하여 구름문양 속에 서로 엉켜 생동하는 용 아홉 마리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조각하였는데 솜씨가 매우 출중하다. 용의 입에서 구름처럼 뿜어 나오는 서기(瑞氣)가 가득 서려 있다. 네 귀 모서리에 배치된 용들은 가슴을 앞으로 내어 밀은 형상이다. 주둥이 앞부분들은 일부 파손되어 있다.

이수의 크기는 정면 폭 1,798㎜, 측면 폭 855㎜에 최대높이는 1,065㎜이다. 이수 바닥면을 올려다 보면 비신을 끼웠던 장방형 홈이 파여져 있는데 테두리에는 아주 얕은 양각으로 새겨진 폭 90㎜의 앙련(仰蓮)형식의 연화문과 2단의 각형 받침이 비신을 끼웠던 홈의 바깥면을 따라 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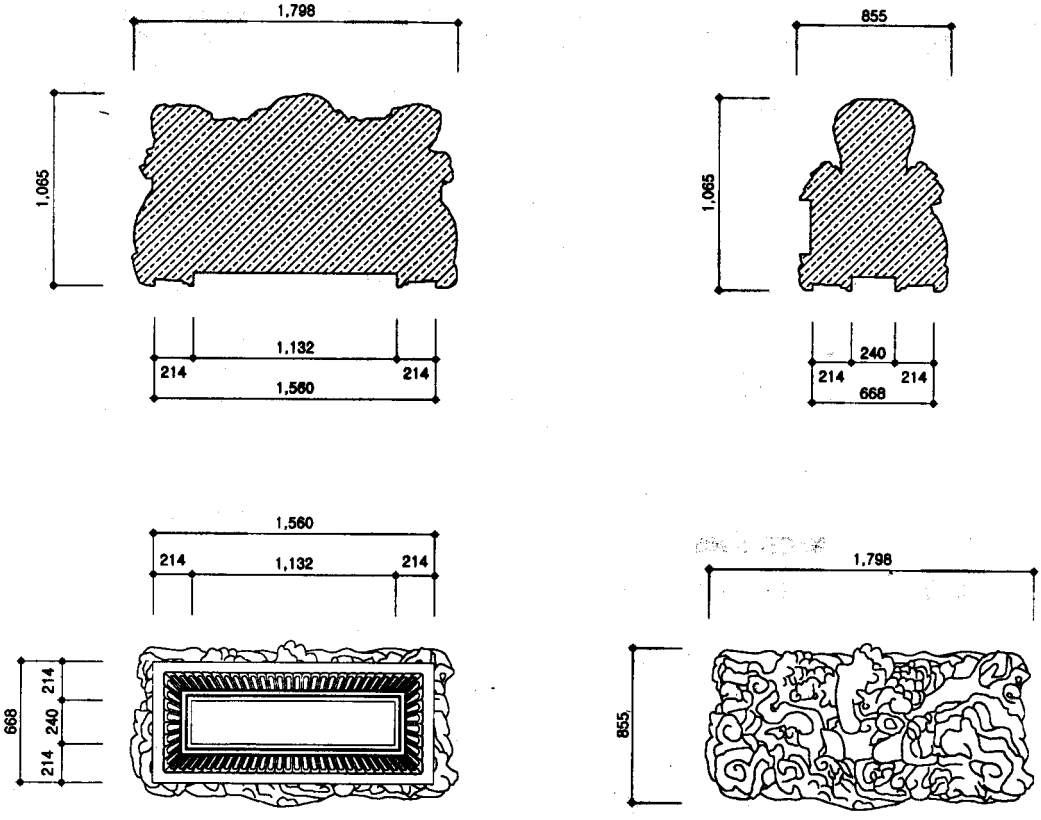
비신 위에 얹기 위해 파낸 홈의 크기는 가로(정면쪽) 1,130㎜, 세로(측면쪽) 240㎜에 깊이는 75㎜이다.

이수 정면

이수의 전액(篆額)

이수 측면

이수 앞면 중앙에는 폭 250㎜, 높이 300㎜의 크기를 깊이 60㎜로 파내어 방액(方額)을 구성하고 한 눈에 탑비의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세로방향으로 두 글자씩 전서(篆書)로 「眞空大師」라는 글씨를 음각(陰刻)으로 새겼다.



이수 상세도

이수는 현재 귀부의 비신좌 위에 얹혀진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 비신이 경복궁으로 옮겨져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즉 동서 중심축선을 기준할 때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2.8° 가량 전체적으로 틀어져 있는 모습으로서 남동쪽으로 중심축의 이동이 있다. 따라서 전·후면은 서단(왼쪽) 75㎜, 동단(오른쪽) 44㎜ 가량 동서 중심축이 남측으로 쏠려 있고, 동·서측면은 남단쪽 11㎜, 북단쪽 19㎜ 가량 남북 중심축이 서측으로 쏠려 있다.

귀부의 상면(비신좌)의 좌우 레벨차이는 약 5㎜ 정도로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어 언뜻 보기에 이수도 함께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나 구조적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4. 三層石塔 (寶物 第464號)

1) 構造 및 樣式

현재 건립되어 있는 자리가 탑의 원위치인데 주변이 모두 밭으로 변하여 지대석 일부만 노출되어 있다. 이 석탑은 2층기단 위에 3층 탑신부를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을 장식하는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이다.

지대석(地臺石) 위에는 하대석(下臺石)과 그 위의 면석(面石)을 한 돌로 만들어 4매의 돌로 구성한 하층기단이 있다. 이 하층기단의 각 면에는 우주(隅柱)나 탱주(撑柱)의 모각이 없이 각 면에 3구씩의 안상(眼象)을 음각(陰刻)하였다. 안상내에는 지선(地線)에서 꽃모양의 무늬가 솟아있어 고려시대의 특징을 느끼게 한다. 2매의 널찍한 판석(板石)으로 결구된 하층기단 갑석은 폭이 좁은 편이고 상면에는 심한 경사가 있어 특이하다.

하층갑석의 상부에는 상층기단의 중석을 받기 위하여 1단의 낮은 괴임을 각출하였는데 선대(先代)에서 보였던 2단 양식에서 1단으로 줄어들어 간략화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

삼층석탑 근경

상층기단부의 면석(面石)은 여러 매의 판석으로 불규칙하게 구성하였는데 규모는 특히 장대하여졌고 각 면에는 폭이 좁은 우주와 탱주를 모각하였다. 2매의 판석으로 결구하여 덮은 갑석은 평박(平薄)한 편인데 하면에는 부연(副緣)이 없고 상면은 경사가 현저하여 네 귀퉁이의 합각(合角)이 뚜렷하게 보인다. 중앙에는 각형 3단의 괴임을 마련하여 탑신부를 받고 있다.

탑신부(塔身部)는 기단부에 비하여 급격히 작아져서 좋은 비례라고는 할 수 없다. 너비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높이는 약 3분의 2로 줄어들었으며 초층탑신에 비하여 2층 이상의 탑신석 높이도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탑신부의 각 층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기 한 돌로 조성하여 얹었는데 각 층의 탑신석에는 좌·우에 폭이 좁은 우주(隅柱)가 모각되었을 뿐 다른 조각은 없다.

옥개석(屋蓋石)은 추녀 끝의 솟음부분에 손상이 많은데 이것은 이전에 도굴배들에 의하여 도괴되었기 때문이다. 옥개석 하면의 옥개받침은 각 층이 4단씩인데 비교적 얕은 편이다. 이렇듯 얕은 옥개받침에 비하여 낙수면(落水面)은 두꺼워서 경사가 심해지고 있다.

옥개석의 추녀 밑은 전각(轉角)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이고 있어 모두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각 옥개석의 정상에는 탑신석을 받기 위한 1단의 각형(角形) 괴임이 마련되어 있다.

삼층석탑 정면

상륜부(上輪部)는 노반(露盤) 하나가 남아 있는데 상단의 갑석형 부분에 손상을 많이 입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홍법사지에 남아있는 3층석탑을 살펴보았는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대석 위의 하대석과 하층기단 면석을 한 돌로 조성하여 간략화의 경향을 잘 보이고 있다.

둘째, 하층기단 면석 각 면에 3구씩의 안상(眼象)과 안상내의 화문(花紋) 조각 등으로 장식적인 의장(意匠)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상·하층 기단의 갑석 상면에 현저한 경사를 보이고 있어 네 귀퉁이 합각(合角)이 두드러져 보이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넷째, 하층기단 갑석(甲石) 상면의 괴임단은 3단으로 증가되어 양식적으로 무질서함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탑신부가 기단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느끼게 하며 너비나 높이에 있어 비례가 불균형함을 직감하게 한다.

이와 같이 이 석탑에서의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지적하였는바 전체적으로 보아 석탑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석재의 구성이나 표면의 조각솜씨에 있어서도 기백을 잃고 약화(弱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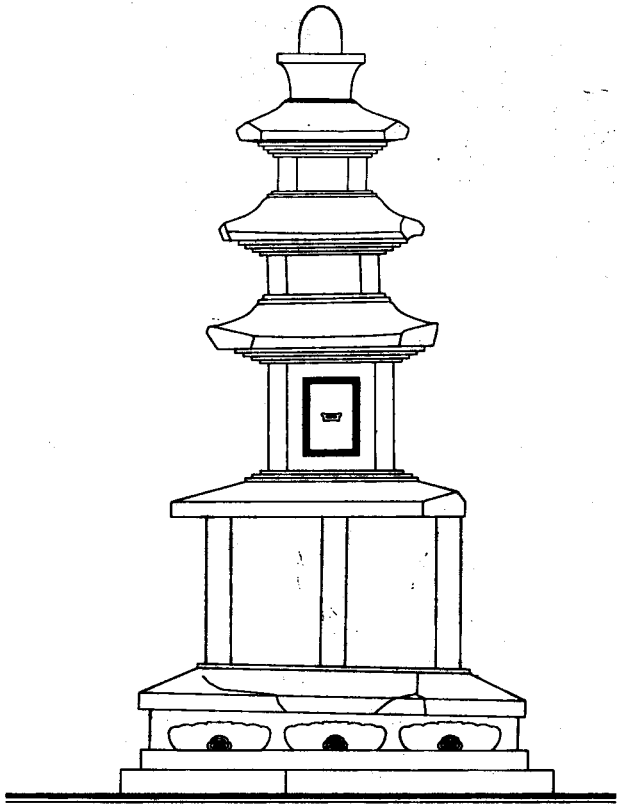
또한 기단부(基壇部)와 탑신부의 비례 또한 균형을 잃고 있음을 현저하게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건립시기는 고려시대 초기에서는 벗어날 것이며 중엽에 이르러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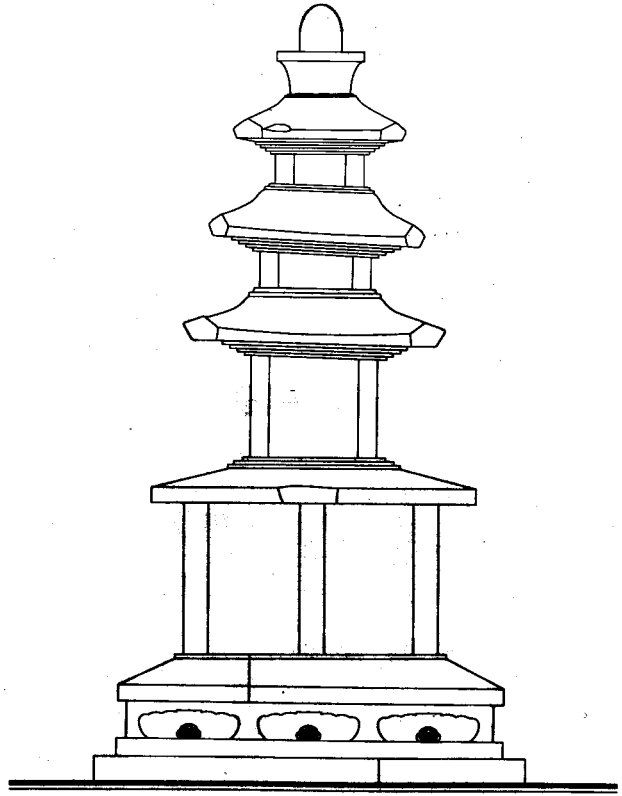
각 부위의 높이는 기단부(상·하층 기단)가 1,540㎜, 탑신부(탑신석+옥개석)가 1,808㎜이고 잔존 상륜부가 441㎜로서 석탑의 최고높이는 3.789m(약 12.5자)이다.

〈표 7〉 삼층석탑 실측치 개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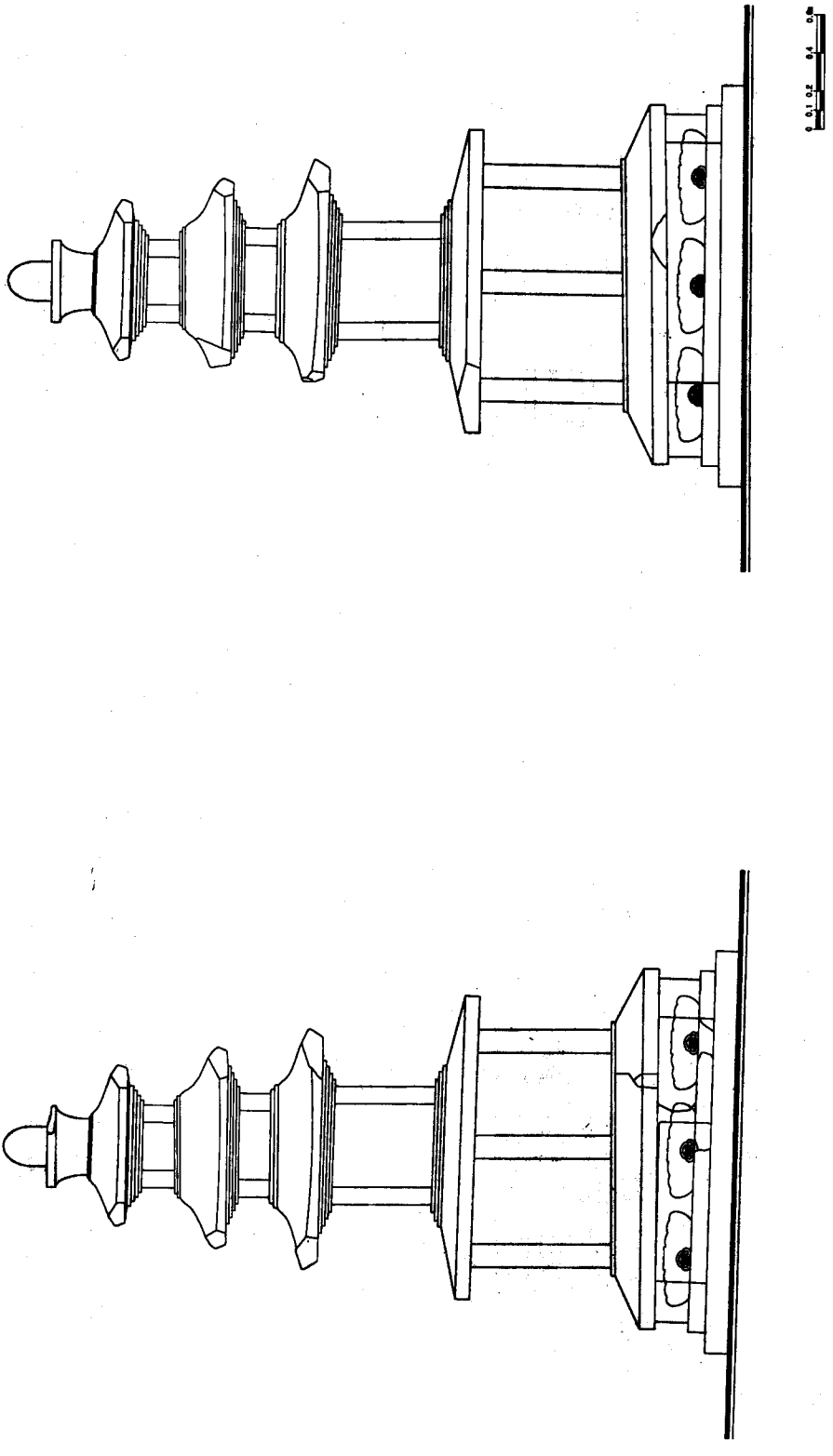
명 칭		구 분	넓이(정면기준)	높이(정면기준)		비 고
기단부	하층	지 대 석	2,170	71(노출高)	소계 1,540	탑 전체고 (정면기준) 3,789
		하대저석	1,860	83		
		하대중석	1,744	205		
		하대갑석	1,850	192		
	상층	상대중석	1,255	783		
		상대갑석	1,574	206		
탑신부	1층	탑 신 석	624	534	소계 1,808	
		옥 개 석	1,076	331		
	2층	탑 신 석	463	191		
		옥 개 석	942	319		
	3층	탑 신 석	430	168		
		옥 개 석	844	265		
상 륜 부		노 반	417	211	소계 441	
		복 발	216	230		

※석탑의 지대석 바깥으로 정방형으로 돌려진 기단석은 원래의 것이 아니다. 석탑 보호차원에서 근년의 주변정비공사 때에 보호철책과 함께 임의로 설치한 것이다. 4.0m×4.0m의 규모로 기단석 폭은 155㎜이다.





3층석탑 동면·서면 입면도



3층석탑 남면·북면 입면도

2) 各部 實測調査

① 基壇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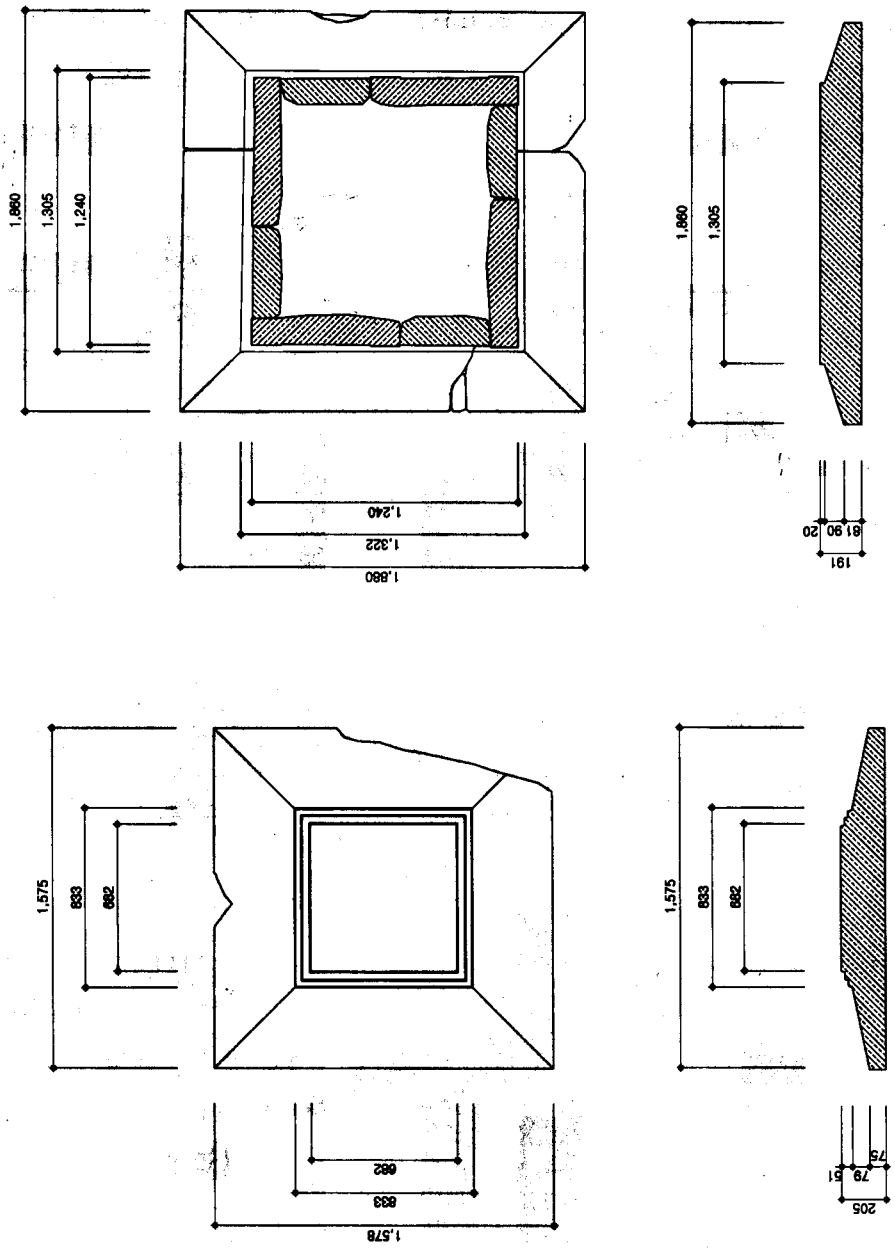
가. 下層基壇

〈표 8〉 삼층석탑 하층기단 실측치 (단위 ; ㎜)

명 칭	구 분		동 면	서 면	남 면	북 면	평균치	비 고
지 대 석	폭		2,170	2,190	2,160	2,165	2,171	
	고	좌	71	69	72	71	70	노출높이
		우	71	70	70	72	70	〃
하대저석	폭	상	1,860	1,855	1,875	1,880	1,867	하대석 저석과 중석은 하나의 통돌임. 총5매로 구성됨
		하	1,856	1,857	1,878	1,879	1,867	
	고	좌	81	80	80	83	81	
		우	83	83	82	81	82	
하대중석	폭	상	1,742	1,752	1,776	1,770	1,760	
		하	1,744	1,750	1,776	1,772	1,760	
	고	좌	203	201	201	205	202	
		우	205	203	202	203	203	
하대갑석 받침	(1단)	폭	1,299	1,296	1,296	1,293	1,296	동면과 북면은 일부가 파손됨
		고	21	20	21	20	20	
하대갑석 낙수면	낙수면高		89	90	91	90	90	
	軒 長		1,850	1,860	1,880	1,855	1,861	
	軒端 高		82	80	82	81	81	

하층기단부

정방형(正方形) 평면의 지대석(地臺石) 위에는 하대의 저석(低石)과 중석(中石)을 한 돌로 만들어 4매로 구성한 하층기단이 있는데 각 면에는 우주(隅柱)나 탱주(撑柱)의 모각없이 내면에 3구씩의 안상(眼象)이 있고



삼층석탑 상하층 갑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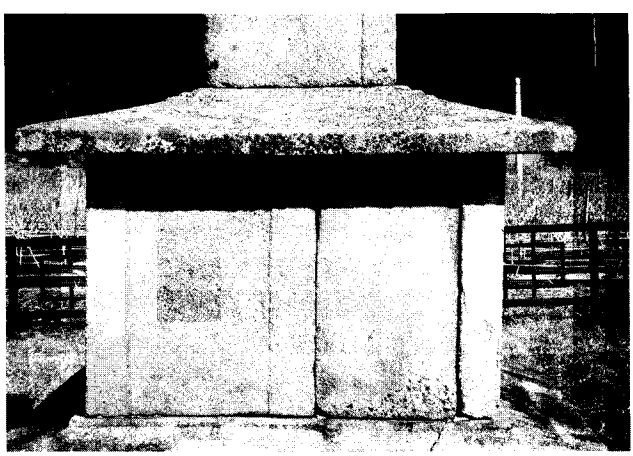
안상 내에는 지선(地線)에서 화형이 솟아있다. 남·북면의 안상부분은 내면 문양의 양각(陽刻)이 풍화로 마모되어 그 문양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크고 작은 2개의 부재로 구성된 하대갑석은 폭이 좁은 편이고 밑바닥은 평활하며 상면은 비교적 경사가 심하다. 하대갑석 상단에는 상층기단의 중석을 받기 위한 1단의 얕은 각형 괴임만 두었다.

나. 上層基壇

〈표 9〉 삼층석탑 상층기단 실측치 (단위 ; ㎜)

명 칭		구 분		동 면	서 면	남 면	북 면	평균치	비 고
상대중석		폭	상	1,252	1,248	1,246	1,243	1,247	북면은 2매 신재교체
			하	1,255	1,240	1,240	1,235	1,242	
		고	좌	783	781	781	782	782	
			우	782	781	783	781	782	
상대갑석	1층탑신받침	1단	폭	823	821	816	818	819	(하)
			고	16	18	17	17	17	
		2단	폭	760	761	756	758	759	(중)
			고	16	18	17	17	17	
		3단	폭	685	683	679	681	682	(상)
			고	16	18	16	17	17	
	낙수면	낙수면高		84	75	79	77	79	북면과 서면은 일부파손
		軒 長		1,574	1575	1,578	1,573	1,575	
		軒端 高		74	77	75	76	75	



상층기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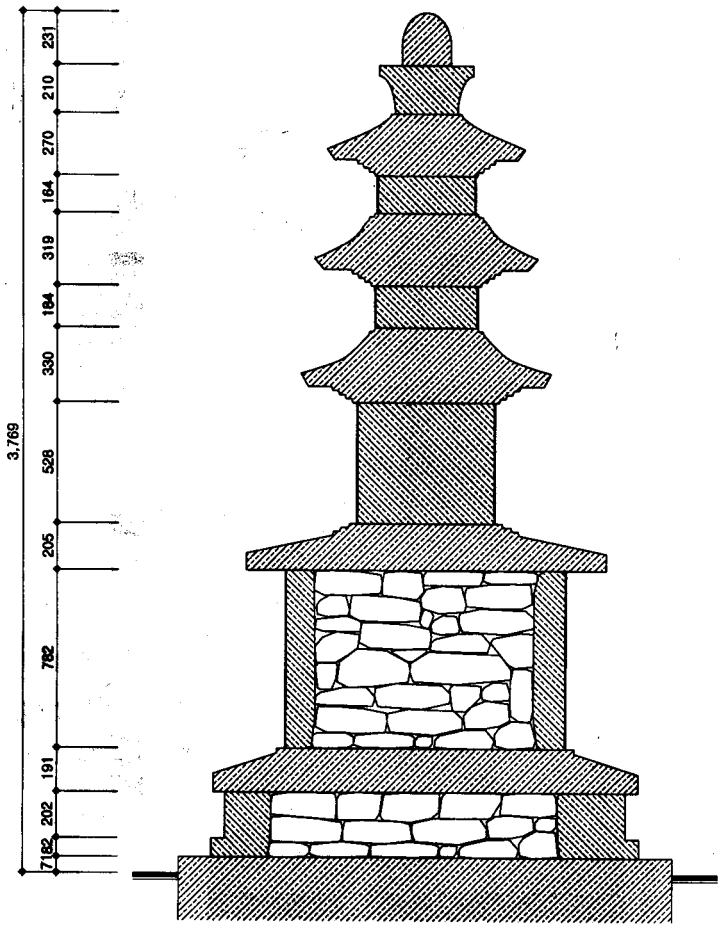
상층기단 중석(中石)은 각 입면 마다 2매씩(1매는 우주와 탱주가 있는 면석, 1매는 면석으로만 구성) 모두 8매의 판석(板石)으로 구성하였는데 규모는 1층 탑신석에 비해 장대하고 규모에 비해 비교적 폭이 좁은 우주(隅柱)와 탱주(撑柱)가 있다.

2매로 덮은 상대갑석(上臺甲石)은 평박(平薄)한 편으로 낙수면이 비교적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하층의 하대갑석(下臺甲石)에서와 같이 심한 경사는 아니다. 낙수면 상단부에는 1층 탑신을 받는 3단의 각형 괴임이 있다.

상대중석(面石)의 탱주와 우주의 폭은 평균 135~138㎜ 내외로 4면 모두 별 차이가 없다. 탱주와 우주는 면석보다 평균 5㎜가량 돌출되어 있다.

근간의 보수공사시에 손상이 심한 북면의 상대중석 2매(면석·탱주·우주로 구성)가 화강석 신재(新材)로 교체되었다.

② 塔身部



삼층석탑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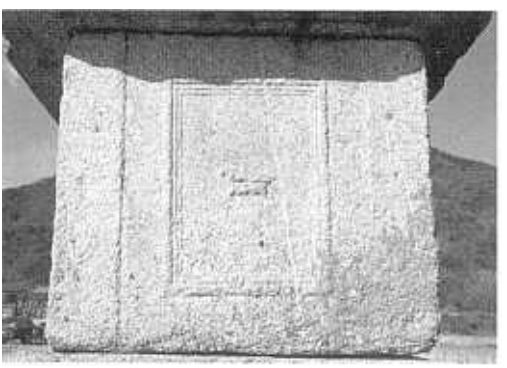
가. 塔身石

기단부에 비하여 탑신부가 급격히 작아짐으로서 그 폭은 반감(半減)된 모습이며 1층 탑신에 비해 2층·3층의 탑신은 높이가 현격하게 약 1/3로 갑자기 줄어드는 비례를 보이고 있다. 또한 1층 탑신 폭보다 줄어든 2층 탑신 폭에 비해 3층의 탑신 폭은 2층 탑신의 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각 층 탑신석에는 폭이 좁은 우주가 모각되었으며 1층 탑신석 정면쪽(東面)에는 방액(方額)을 중곽(重廓)하였으며 면석 중앙에 자물쇠 모양이 조각되어 있다.

1·2·3층 탑신석 모두 단일재의 통돌이며 탑신석의 상부 폭보다 하부 폭이 넓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안정감을 갖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1층 탑신의 북서우주는 근래의 보수시 훼손된 부위를 잘라내고 정방형 단면의 기둥만 끼워 넣은 모습이다.

탑신석의 폭은 하부를 기준할 때 1층이 610~630㎜, 2층이 456~463㎜, 3층이 430~438㎜로서 1층의 탑신 폭에 비해 2·3층 탑신폭의 체감율(遞減率)은 둔화된 모습이다.

1층 탑신부



층 탑신석(동면)

2층 탑신부

3층 탑신부·상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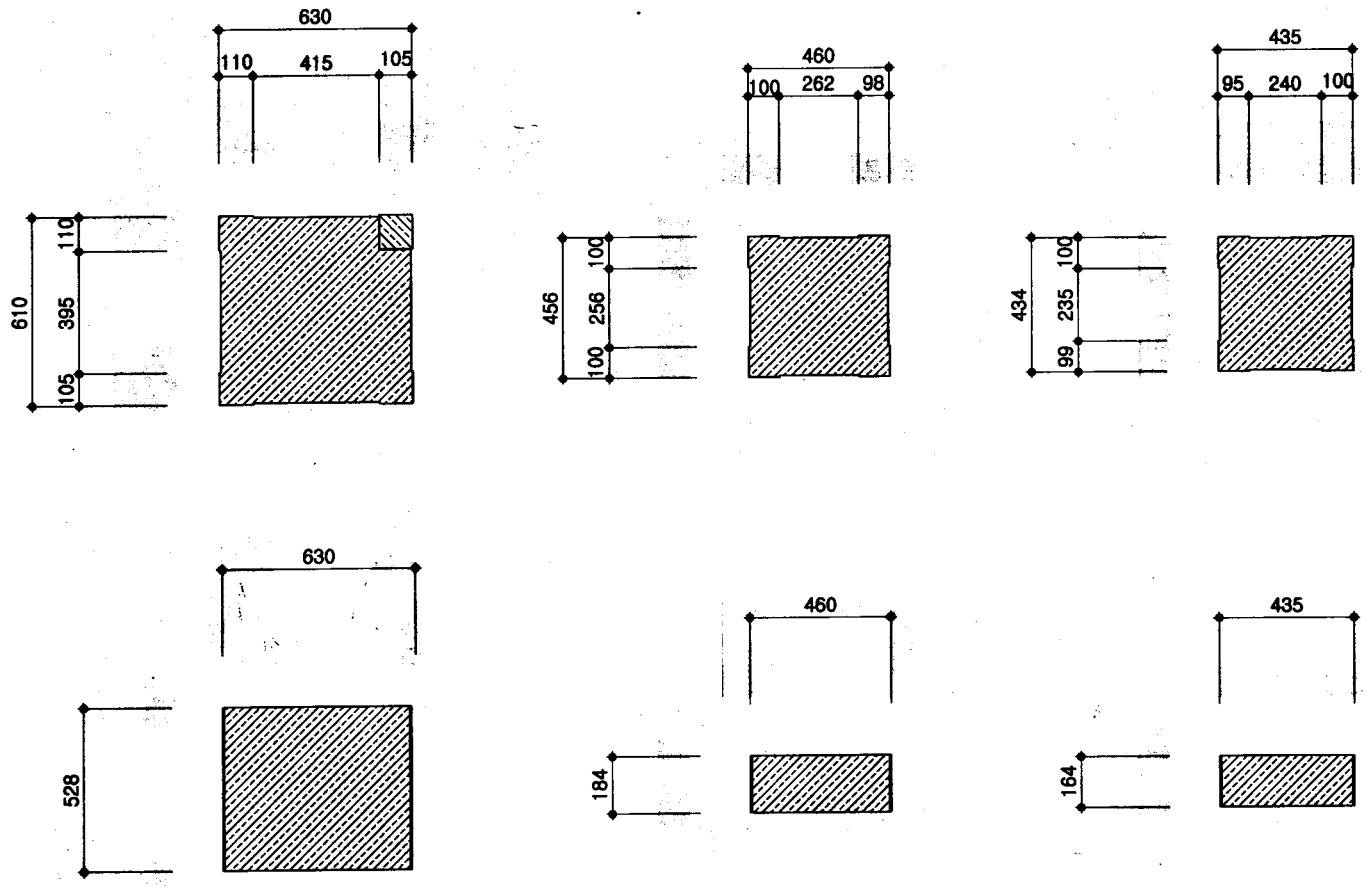
〈표 10〉 삼층석탑 탑신석 실측치 (단위 : ㎜)

명 칭	구 분		동 면	서 면	남 면	북 면	평균치	비 고
1층 탑신	폭	상	615	617	610	610	613	북서우주 신재교체
		하	624	630	610	611	619	
	고	좌	528	527	523	534	528	
		우	534	523	528	527	528	
2층 탑신	폭	상	454	452	448	452	451	
		하	463	460	456	460	460	
	고	좌	191	185	177	185	184	
		우	185	177	193	185	185	
3층 탑신	폭	상	423	427	428	431	427	북서우 하부쪽 일부파손
		하	430	435	434	438	434	
	고	좌	168	161	164	165	164	
		우	165	164	168	161	164	

각 우주(隅柱)의 폭은 1층이 105~110㎜, 2층이 95~100㎜, 3층은 98~100㎜로 2·3층은 서로 비슷하며 1층의 우주 폭이 2·3층 우주 폭보다 약간 넓다. 1·2·3층 탑신석 모두 우주(隅柱)가 안쪽의 면보다 평균 5㎜ 가량 돌출되어 있다.

탑신석의 높이는 1층이 523~534㎜, 2층이 177~191㎜, 3층이 161~168㎜로서 1층 탑신석의 높이에 비해 2·3층의 탑신석 높이가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2층과 3층 탑신석의 높이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1·2·3층 탑신부


630
110
415
105
610
110
395
105
460
100
262
98
456
100
256
100
435
95
240
100
434
100
235
99
630
528
460
184
435
164

3층석탑 탑신석 상세도

나. 屋蓋石

〈표 11〉 삼층석탑 1층 옥개석 실측치 (단위 : ㎜)

명칭	구 분		동 면	서 면	남 면	북 면	평균치	비 고
탑신받침	제1단	폭	479	482	495	489	486	(상단)
		고	15	14	16	15	15	
	제2단	폭	525	528	540	536	532	(하단)
		고	15	15	15	14	15	
낙수면	落水面高		172	171	170	172	171	중앙부
	軒 端 高		56	57	58	56	57	〃
	軒 長	상	1,076 (1,103)	1,084 (1,104)	1,075 (1,098)	1,070 (1,098)	파손상태 (완형추산)	안허리곡 22
		하	1,028	1,029	1,036	1,035	1,032	
옥개석받침	제4단	폭	845	842	835	842	841	
		고	19	19	18	20	19	
	제3단	폭	791	790	780	782	786	
		고	18	18	18	18	18	
	제2단	폭	732	724	721	724	725	
		고	18	18	17	18	18	
	제1단	폭	662	652	650	652	654	
		고	18	17	17	17	17	

1·2·3층 옥개석은 지붕 낙수면 귀마루 전각부(轉角部)는 모두 손상을 입고 있어 결손된 채로 남아 있으며 각 층의 층급받침은 4단씩이다. 얕은 높이의 받침에 비하면 낙수면은 두꺼워서 경사는 심하고 우동(隅棟)의 끝부분은 전각(轉角)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어 모두 고려시대 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겠다. 1·2층 옥개석 상부에는 탑신을 받기 위한 2단의 각형 받침이 각각 구성되어 있으나 3층 옥개석 정상에는 노반을 받치는 1단의 층급받침만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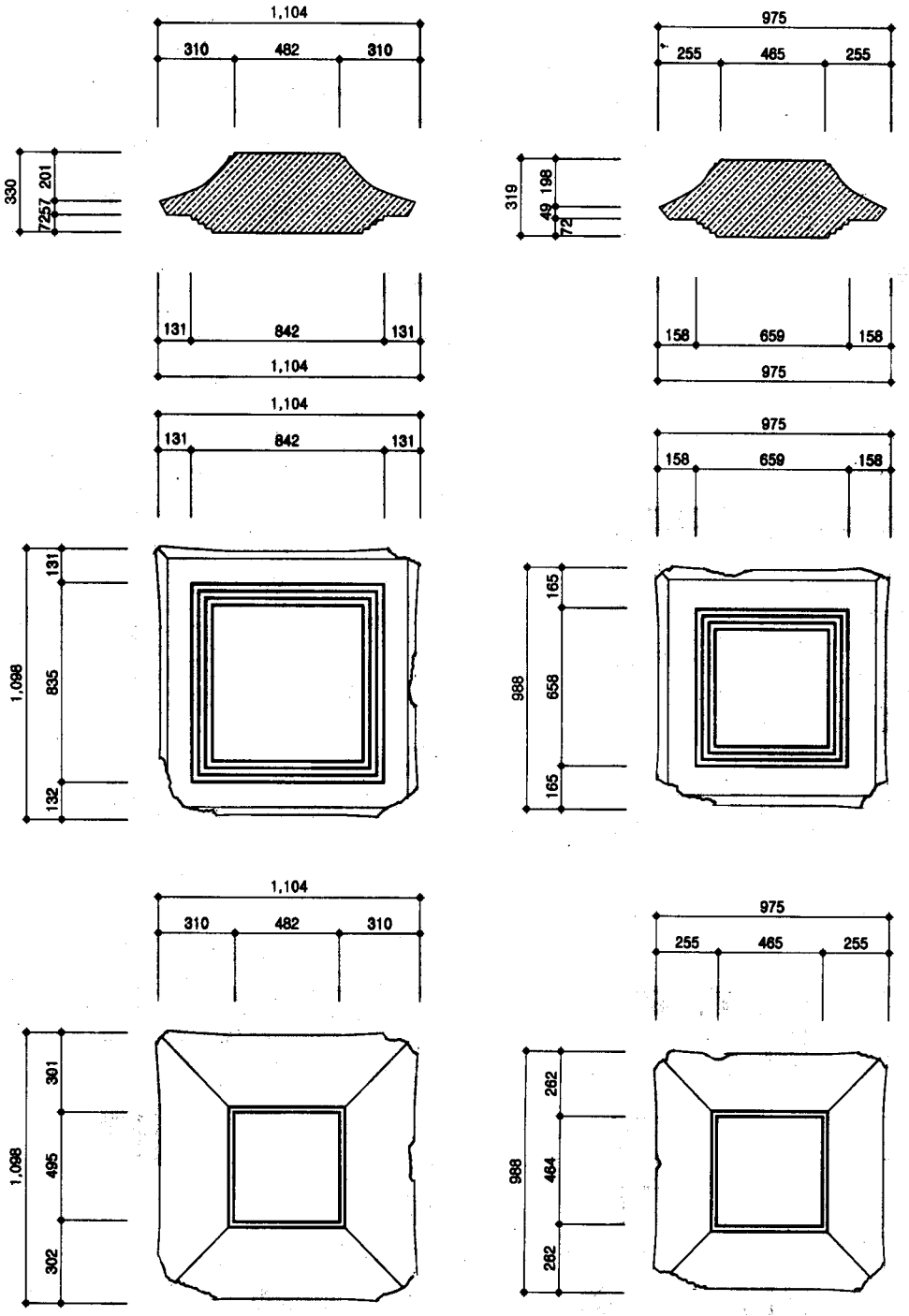
옥개석 앙시

상단 받침 및 하단 층급받침 1단의 폭은 층별로 위치별로 일정치 않으나 평균 24~30㎜ 내외이며 높이는 평균 18~20㎜ 내외로 측정되었다. 각 층 옥개석의 우각부는 온전한 곳이 없이 심하게 파손되어 정확한 안허리곡과 앙곡은 남아있는 전각부의 곡을 따라 올라가고 휘어진 상태를 측정하여 연결하였을 때 안허리곡이 평균 1층이 22㎜ 내외, 2층은 21㎜ 내외, 3층은 18㎜ 내외로 나타났으며 앙곡은 1층이 평균 48㎜ 내외, 2층은 45㎜ 내외, 3층은 42㎜ 내외로 추정되었다. 각 층 모두 옥개석의 낙수면(落水面)과 우동(隅棟)의 귀마루 곡선은 일정한 곡률을 지니지 않고 휘어 내려간 곡이 약한 "S" 자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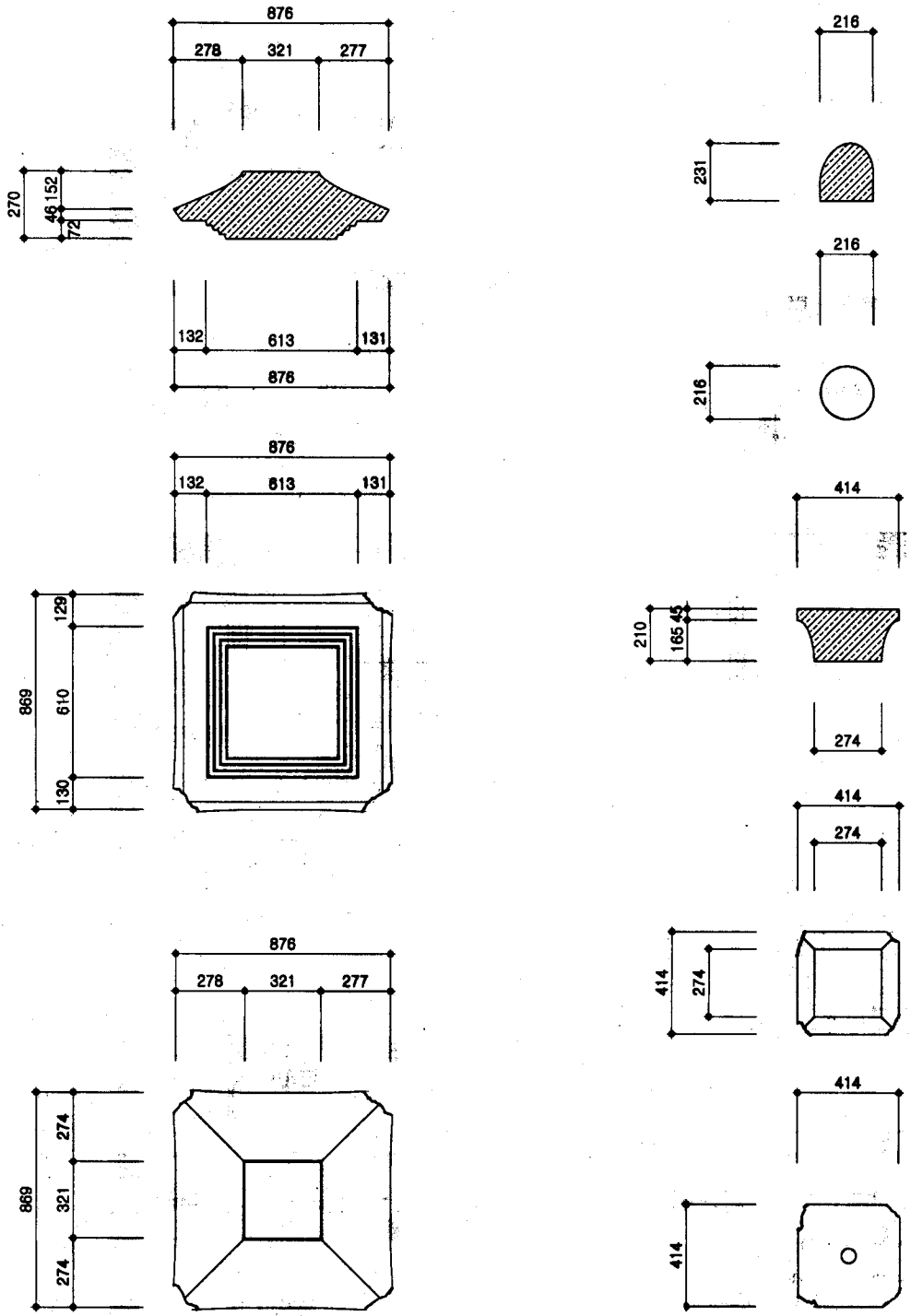
3층 옥개석

〈표 12〉 삼층석탑 2층 옥개석 실측치 (단위 ; ㎜)

명칭	구 분		동 면	서 면	남 면	북 면	평균치	비 고
탑신받침	제1단	폭	459	461	465	464	462	(상단)
		고	15	16	15	15	15	
	제2단	폭	505	507	508	507	507	(하단)
		고	15	15	16	15	15	
낙수면	落水面高		167	168	168	169	168	
	軒 端 高		50	49	48	49	49	
	軒 長	상	942 (975)	943 (975)	949 (988)	948 (988)	파손상태 (완형추산)	안허리곡 20
		하	894	893	903	902	898	
옥개석받침	제4단	폭	660	659	658	658	659	
		고	18	19	19	20	19	
	제3단	폭	601	602	604	603	602	
		고	18	18	18	19	18	
	제2단	폭	550	549	548	548	549	
		고	19	18	17	18	18	
	제1단	폭	494	493	494	493	493	
		고	17	18	18	18	18	



3층석탑 1층·2층 옥개석 상세도


876
278
321
277
270
152
46
72
132
613
131
876
876
132
613
131
869
129
610
130
876
278
321
277
869
274
321
274
216
231
216
216
414
210
165
45
274
414
274
414
274
414
414

3층 옥개석 및 상륜부재

〈표 13〉 삼층석탑 3층 옥개석 실측치 (단위 : ㎜)

명칭	구 분		동 면	서 면	남 면	북 면	평균치	비 고
노반받침	제1단	폭	320	321	321	321	321	우각부 파손
		고	14	15	15	15	15	
낙수면	落水面高		136	138	138	137	137	
	軒 端 高		45	47	46	46	46	
	軒 長	상	844 (879)	840 (876)	838 (869)	838 (867)	파손상태 (완형추산)	안허리곡 18
		하	806	805	804	805	805	
옥개석받침	제4단	폭	613	613	610	611	612	
		고	16	17	16	16	16	
	제3단	폭	563	562	559	560	561	
		고	18	18	18	19	18	
	제2단	폭	511	510	509	509	510	
		고	18	18	18	18	18	
	제1단	폭	460	459	458	458	459	
		고	18	19	18	18	18	

③ 上輪部

〈표 14〉 삼층석탑 상륜부 실측치 (단위 : ㎜)

명 칭	구 분		동면	서면	남면	북면	평균치	비 고
노 반	폭	상부	417	418	406	416	414	전체고 441
		하부	274	275	274	274	274	
	높이		211	210	210	209	210	
복발형 석물	폭		216	217	215	216	216	
	높이		230	231	232	231	231	

탑의 최상부에 올려지는 상륜부에는 현재 노반석(露盤石)이 있고 그 위에는 근래의 보수시에 얹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복발(覆鉢)형태에 가까운 석물 1점만이 잔존하고 있다. 3층 옥개석 상부에 마련된 괴임대에 꽉차는 넓이로 노반의 저면(底面)을 잡았는데 노반의 높이는 평균 210㎜이다.

노반 상단부는 폭 418㎜의 각진 테두리를 4면으로 돌린 갑석형(甲石形)인데

그 하부쪽은 4면 모두 폭이 좁아지면서 하면쪽으로 완만한 곡선을 둔 특이한 형태이다. 상단부는 서면쪽만 양호하고 나머지 면은 손상이 있다.

노반 상면의 폭은 파손이 없는 서면쪽을 기준할 때 418㎜, 하면의 폭은 275㎜로서 방형 평면으로 상면은 평탄하게 가공되어 있다. 상면 중앙에 찰주(擦柱)를 꽂았던 구멍이 뚫려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석탑은 노반·복발(覆鉢)·앙화(仰花)·보륜(寶輪)·보개(寶蓋)·수연(水煙)·용차(龍車)·보주(寶珠) 등을 차례로 올려 상륜부를 구성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볼 때 노반석 위의 한 개밖에 없는 복발형 석물은 찰주공(擦柱孔)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석조물의 최상단에 장식되었던 것이 이 석탑에 활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삼층석탑 상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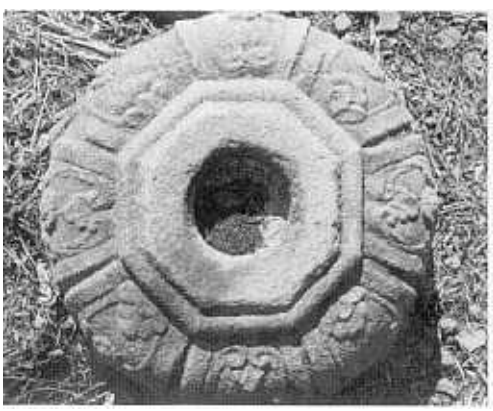
5. 其他遺物

1) 石物遺構

① 石燈下臺石

진공대사탑비의 후면쪽 우측 지표상에 있는 이 석물은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석탑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 탑비의 뒷편 서남쪽 건물지(추정금당지) 앞에 세워졌던 석등(石燈)의 잔존부재라고 전한다.

석물의 형태나 양식으로 보아 틀림없는 석등의 하대석(下臺石) 부재로 판단되며 가람배치에 있어 삼층석탑(三層石塔)과 석등과의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추찰할 수 있게 하는 주요부재로 생각된다. 팔각형의 상면에 1단의 각형(角形) 받침과 1단의 쇠시리몰딩을 두었다.



석등하대석(평면)

석등 하대석(입면)

이 석물의 전체 폭은 861㎜이고 노출된 높이는 340㎜이다. 상면 중앙에 간주(竿柱)를 끼웠던 둥근 홈(직경 165㎜, 깊이 69㎜)이 뚫려 있으며 바깥쪽에는 팔각변에 1개씩 모두 8엽의 복련(伏蓮)을 돋을 새김으로 정교하게 가공하여 둘렀으며 간엽(間葉)이 있다.

부재의 하부면은 반듯하게 가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손상이 있다. 석등 하대석이 놓인 현재의 위치는 적정치 않다. 유물의 중요성으로 보아 사지가 정비되기까지는 별도로 적정장소에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② 碑石

비석형의 이 석물은 탑비의 후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중간부가 균열되어 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비석 전면에는 세로방향으로 「感雲臺」라는 글씨가 행서체(行書體)로 음각(陰刻)되어 있다.

비석은 상면을 약간만 둥글게 굴리고 폭이 좁은 일반적인 형태로서 두께 210㎜에 폭 390㎜, 높이 1,280㎜로 중간부위가 파열되어 2매로 분리되어 있다.

마을에 오래 거주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의 말에 의하면 신라말에 최치원 선생과 진공대사가 가야산에서 만난 장소를 이곳 홍법사지에 전하기 위하여 1950년대쯤 탑비 바로 윗쪽 민가에서 거주하던 최용숙(崔瑢淑)이라는 주민이 마을을 떠나면서 이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2) 瓦塼片 및 其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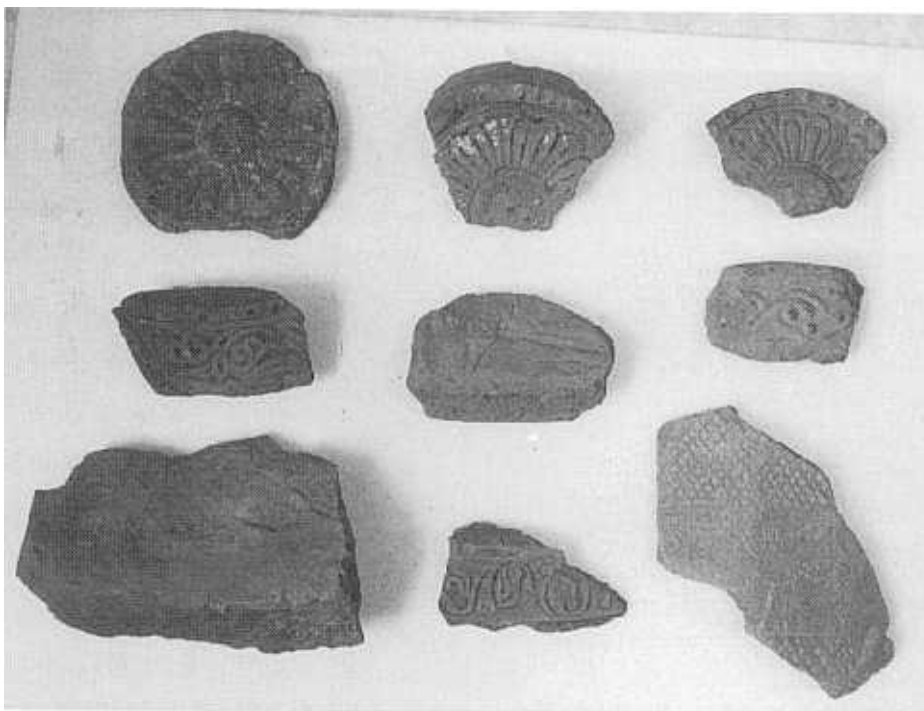
사지 내의 경작지(耕作地)를 비롯한 여기저기에는 많은 와편(瓦片)이 널려져 있었으나 일부 경작지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토질개량을 위한 복토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와편과 도기편의 수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사역(寺域)으로 추정되는 구역을 여러 차례 탐사한 결과 다행히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암막새와 숫막새 파편을 일부 수습할 수 있었다.

암기와는 완형(完形)에 가까운 것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길이와 폭을 알 수 없다. 이 중 비교적 크기가 큰 것은 앞면 폭이 약 300㎜ 가량으로 추산되었는데 와편 아래쪽에 빗살격자문이 있고 두께는 21㎜이다. 크기가 아주 작은 암기와 와편들의 두께는 18~21㎜가 가장 많았으며 등무늬는 어골문(魚骨紋)·빗살문·격자문·방형중곽문 등 다양하다.

또한 현장에서 암기와 아래면 빗살격자문 사이에 방액(方額)을 구성하여 세로방향으로 줄을 긋고 그 안에 「己卯-- 興法院」이라고 글씨를 여러 번 중복되게 양각(陽刻)으로 새긴 명문(銘文) 암기와 파편 1점도 수습하였다.

숫기와는 완형에 가까운 것이 1점 수습되었는데 앞폭은 174㎜로 넓고 뒷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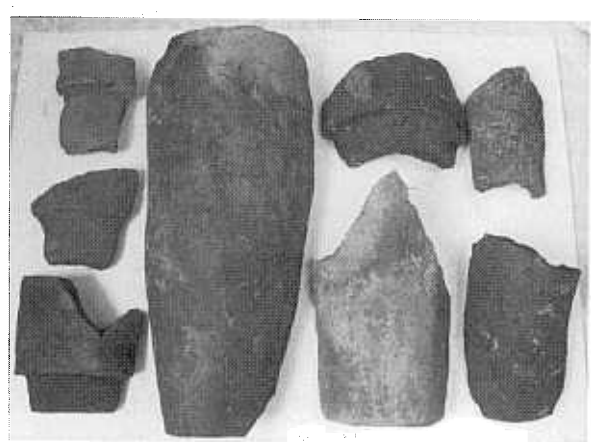
은 99㎜가 되어 현격하게 좁아진 것으로서 길이는 372㎜이다. 이 기와는 등무늬가 없고 뒷뿌리에 언강부분이 아예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암막새 · 숫막새 와편

나머지 숫기와 와편들은 1점을 제외하곤 대부분 등무늬가 없었으며 언강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간혹 언강이 없이 앞폭이 좁은 숫기와 파편도 발견되었는데 고형(古形)으로 보여진다. 숫기와 와편 중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것으로 길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폭이 105㎜ 내외로 작은 것이 3점 발견되었다.

수습된 숫기와 와편은 파손된 마구리면 반원의 크기를 추산해 볼 때 근래의 중와(中瓦, 폭 5치 길이 1자) 정도의 크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례적으로 언강의 내민 길이가 50~60㎜로 비교적 긴 것도 눈에 띄인다. 거의 모든 암기와, 숫기와 와편의 두께는 21~30



숫기와편

㎜ 내외로 측정되었다.

암막새는 모두 5점의 와편이 수습되었다. 완형에 가까운 것은 없었으나 1점을 제외하곤 모두 내곽의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앞면 내림새에 좁은

와당 및 명문와 탁본

테두리면을 외연(外緣)을 따라 돌리고 작은 돋을 새김의 연주문(連珠紋)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한 것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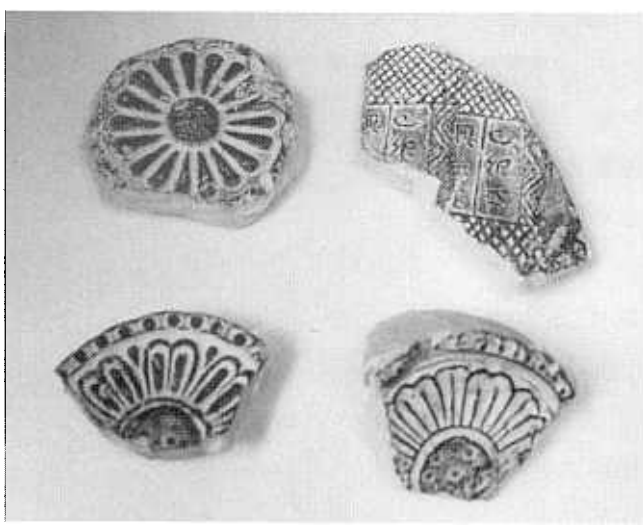
암기와의 폭은 남아있는 앞쪽 내림면의 곡률과 문양으로 추산하여 볼 때 276㎜ 정도 되는 것이 1점이고, 나머지는 기와폭의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추산

암막새 문양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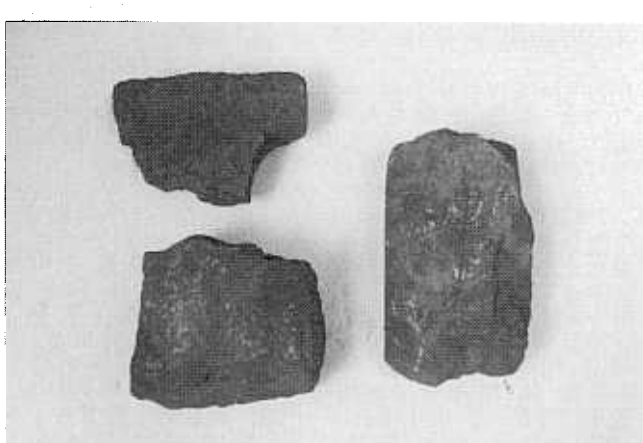
된 폭이 아주 소폭(5치 이내)의 것도 2점 있었다. 암막새의 문양은 모두 당초문을 각기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늘고 길게 뻗어나간 넝쿨을 표현하는 등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기법을 보이고 있다.

파손되어 뒷몸이 아주 일부만 남아있는 2점의 암막새는 앞면 내림새의 높이가 60㎜ 내외이고, 두께는 21㎜ 정도인데 뒷몸 상면에 있어야 할 기와 바닥면이 아래쪽에 붙어 있다. 따라서 이들 기와는 암막새가 아닌 다른 종류의 용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숫막새는 모두 3점의 파편을 수습하였다. 2점의 숫막새 와편은 반지름으로 추산한 직경이 150㎜ 내외로서 뒷몸들이 없어져 길이는 알 수 없다. 중앙의 화심(花心)에 돋으라진 동심원(同心圓)을 두고 연자(蓮子)를 박았으며 동심원 주변에는 복엽8판(複葉八瓣)의 연화문(蓮花紋)이 새겨진 사이로 간엽(間葉)을 배치하였다. 막새 테두리 돌대(突帶)에는 오래된 고형(古形)의 막새에서 보이는 연주문을 일정간격으로 배열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제작기법이 뛰어나다.



숫막새 및 명문와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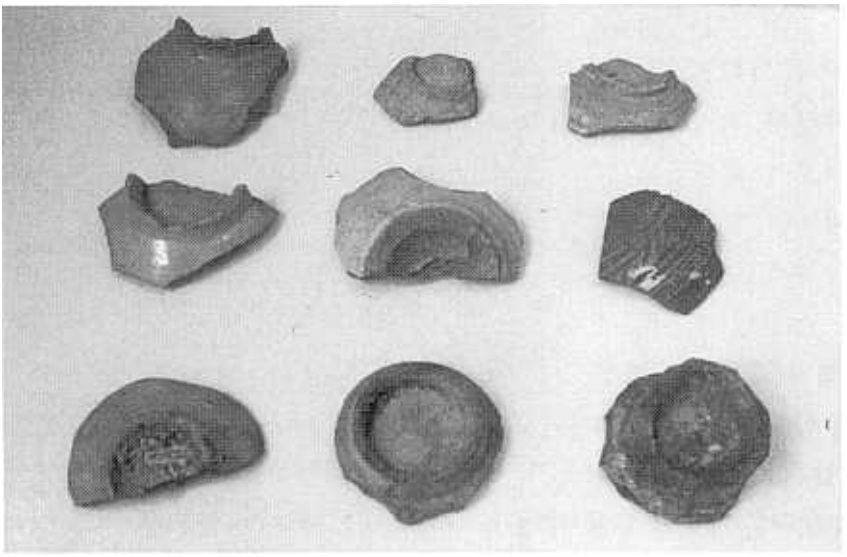
전돌편

나머지 숫막새 1점은 직경 135㎜에 18엽의 연화문을 새긴 와당으로 뒷몸이 파손되었으나 돋을 새김 문양만은 완형에 가깝게 남아 있다. 테두리가 돌출되지 않고 연주문(連珠紋)이 없는 형식이다. 전기한

2점의 연화문보다는 간략화된 것으로 보아 전기한 다른 숫막새보다는 더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크기와 형상이 일반 바닥전과는 다른 전돌편이 3점 발견되었는데 파편의 크기는 가로, 세로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작다. 두께가 57㎜에 마구리면이 경사면을 이루는 것이 1점, 두께 69㎜에 상면 모서리를 모접기하고 양 마구리면이 경사진 것이 1점, 두께 45㎜에 모서리를 1/4 반원형(반지름 48㎜)의 곡면으로 굴린 형상의 파편이 1점 있다.

도자기편은 일부 굽받침이 있는 작은 파편만 여러 개 수습되었을 뿐 완형에



도자기편

가까운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일부 자기편에는 내면쪽에 당초문이나 연화문이 상감(象嵌)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인다.

1929년 조선고적조사팀의 소천경길(小川敬吉)이 흥법사지를 현장조사한 자료에는 당초문 암막새 와편 2점과 연화문 숫막새 1점이 탁본이 실려 있다. 또한 세로방향으로 두 줄의 선을 긋고「興法寺 惠卞--」이라고 여러 번 중복되게 새긴 명문 암기와도 탁본하여 실었는데 전기한 바와 같이 금번에 사지에서 수습한 명문 암기와에는 「己卯 興法院 惠卞--」이라 되어있기 때문에 두 명문 암기와의 제작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興法寺"와 "興法院" 이라는 표현만은 상이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傳 興法寺 廉巨和尙塔에 대하여

鄭永鎬(文化財委員)

이 부도(浮屠)를 옮길 때 금동제탑지(金銅製塔誌)가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會昌四年歲次甲子季秋之月兩旬九日遷化廉巨和尙塔去釋迦牟尼佛入涅槃一千八百四年矣當此國慶膺大王之時』라는 명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부도의 건조년대를 신라 문성왕 6년(844)으로 적고 있다.

염거화상탑

현재 경복궁 중앙박물관 북쪽 잔디밭에 전시되어 있으며 「國寶 第104號 傳 興法寺廉居和尙塔」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묘탑은 처음에는 앞에 「傳」자가 없이 그대로 「興法寺廉居和尙塔」이라 칭하고 있었다. 이것은 권상노(權相老)의 「韓國寺刹全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상에 「原州興法寺廉居和尙塔誌」를 소개하되 「이 탑은 처음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안창리 홍법사지에 있었으며 그 후 경성(京城) 탑동공원(塔洞公園)에 옮겨 세워졌다.

탑을 옮겨 세울 때 탑지(塔誌)를 발견하였다.」라는 내용에 의하여 홍법사의 염거화상탑으로 굳혀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모든 기록에 「興法寺廉居和尙塔」으로 보이게 된 기본자료였던 것이다.

그러나 홍법사지를 답사하고 주변일대를 면밀히 조사하였던 바 염거화상탑의 건립위치를 찾지 못하였고, 이 탑이 신라 문성왕(文聖王) 6년(844)에 건립된 점으로 보아 홍법사지의 실연대(實年代)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전라남도 장흥군의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의 비문에 의하면 염거선사는 설산(雪山) 억성사(億聖寺)에 주석(住錫)하며 진전사(陳田寺)의 도의선사(道儀禪師)로부터 전법(傳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선종의 조사(祖師)를 도의(道儀), 이조(二祖)를 염거(廉居), 삼조(三祖)를 보조선사(普照禪師)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년에 「傳 興法寺廉居和尙

塔」이라 칭하게 되었는데 이것은「傳」자만을 앞에 붙였을 뿐 원위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명칭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명칭은 오히려 「億聖寺廉居和尙塔」 혹은 그대로 「廉居和尙塔」이라 칭하여 홍법사와는 관계가 없음을 뚜렷이 해야 할 것이며 일제시대에 아무런 고증(考證)없이 상인들의 말만 듣고 명칭을 정한 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당시 탑동공원(파고다공원)에는 진공대사탑과 염거화상탑이 함께 옮겨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이 생겼던 것으로 보여진다.

Ⅳ

綜合考察

1. 伽藍配置 推察
2. 發掘調査範圍와 調査方法
3. 發掘調査로 期待되는 成果
4. 遺蹟整備淨化案

Ⅳ. 綜合考察

1. 伽藍配置 推察[2)]

현재 흥법사지(興法寺址)에 남아있는 얼마되지 않는 유구, 즉 중앙부에 돌출부가 있는 전면축대와 이에 연결되어 서쪽으로 꺾이는 남·북측 축대 및 축대위 사지 중심축 상부에 세워진 삼층석탑(三層石塔)과 지금은 거의 평지화가 된 금당지(金堂址)와 그 뒤의 추정강당지(推定講堂址) 등으로 보아 흥법사의 기본 가람배치 형식은 백제시대 후기에 성행한 일탑식(一塔式) 가람배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고대 가람배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각기 그 형식을 달리하고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도읍(都邑)을 평양으로 옮긴 시기를 전후하여 소위 일탑삼금당식(一塔三金堂式)이 주류를 이루었다.

고구려의 일탑삼금당식 가람배치는 남향(南向)한 가람의 중심에 평면이 팔각인 탑을 배치하고 이 탑을 중심하여 북쪽과 동·서쪽에 탑을 향한 금당을 배치하며 북쪽의 중금당(中金堂) 뒤에 강당(講堂)을, 탑의 남쪽에는 중문(中門)을 배치한다. 또한 중문에서 시작된 회랑(廻廊)이 북절(北折)하여 강당 부근에 닿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암리사지(淸岩里寺址), 토성리사지(土城里寺址), 정릉사지(定陵寺址)에서 밝혀졌다.

백제의 가람배치 역시 그 초기의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도읍을 부여(扶餘)로 옮긴 후에는 일탑식 가람배치가 가람의 남·북 중심축선상에 중문, 탑, 금당, 강당을 차례로 배치하고 중문 양 측면쪽에서 나온 회랑(廻廊)이 북절(北折)하여 강당의 좌우에 닿는 형식이나 초기의 것은 강당 좌우에 남·북으로 긴 독립된 건물이 있어 소위 북회랑(北廻廊)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여의 정림사지(定林寺址)와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 등에서는 북회랑이 없었고 금강사지(金剛寺址)에서 북회랑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백제의 동남리사지(東南里寺址)에서는 탑이 없었으며,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는 강당을 결(缺)한 일탑식가람을 세 가람 동·서로 병치(並置)하여 강당을

2) 拙考「韓國古代伽藍의 實態와 考察」蕉雨 黃壽永博士 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 PP.169~212, 通文館 1988.

중원(中院) 뒤에 건립한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신라의 경우에 고신라대(古新羅代)에서는 신라식으로 변형된 일탑삼금당식(一塔三金堂式)이었다. 이것은 중앙에 평면방형(平面方形)의 탑을 두고 그 뒤쪽에 중금당과 동·서금당을 남향으로 배치하는 형식이나 황룡사(黃龍寺)에서는 세 금당이 나란히 배치되었고, 분황사(芬皇寺)에서는 동·서 금당이 중금당보다 얼마간 남쪽으로 치우쳐 배치되어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서는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거의 모든 사찰이 쌍탑식가람배치(雙塔式伽藍配置)였다. 쌍탑식가람배치는 가람의 중심축선상에 중문, 금당, 강당을 배치하고 금당 전면 좌우에 동·서 탑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중문에서 나온 회랑이 북절(北折)하여 강당에 접하는 것이나 감은사(感恩寺)와 천군리사지(千軍里寺址)에서는 강당 좌우에 동·서로 긴 독립된 건물이 배치되었으며 경주 불국사(佛國寺)에서 처음으로 북회랑(北廻廊)이 출현한다. 이들 형식에서는 금당 좌우에 익랑(翼廊)이 설치된다.

통일신라시대 사지 가운데 일탑식 가람배치로 된 것은 현재까지 발굴에 의해 확인된 것은 9세기 말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는 원주 거돈사지(居頓寺址) 뿐이었다. 거돈사 역시 정면에 거대한 자연석을 쌓은 장중한 축대 위에 세워진 것이며 발굴결과 창건 후 고려초기에 대중창(大重創)을 하여 현존하는 금당지나 강당지의 기단 등은 중창시의 것이었으며 삼층석탑은 창건시의 것이나 중창된 가람의 크기에 맞추어 탑을 정면에 계단을 설치한 1.2m 높이의 석단 위에 올려놓아 탑의 기단부를 높고 크게 외장(外裝)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고대 가람배치형식을 감안한다면 1929년 소천(小川)의 복명서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홍법사가람 역시 일탑식가람(一塔式伽藍)이었을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홍법사지의 현황 가운데는 이와 같은 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사지 전면축대 중앙의 돌출부 위의 축대 상면 외곽선에 근접한 상태로 중문(中門)이 건립되었다면 과연 중문의 기단 측면 중앙에 회랑(廻廊)이 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 경우 회랑의 외벽이 축대상면 끝에 접근하여 남·북행하다가 서절(西折)하게 되고 강당기단 측면쪽으로 다시 남·북으로 꺾이어 기단 측면에 닿게 되는데 현재 사지에 남아있는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의 귀부(龜趺)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 건립시의 원 위치라면 그것이 북회랑(北廻廊)의 서단(西端) 가까이 걸리

게 되는 위치에 해당되므로 불합리해진다. 홍법사 창건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초 진공대사비의 건립시에 이미 회랑이 훼철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회랑에 걸리거나 회랑 안에 이 비(碑)를 세웠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문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지 중심곽의 전면발굴(全面發掘)에 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람의 배치형식은 대개의 경우 사찰의 중심곽을 형성한 건물의 배치형식에 한하여 거론되나 사찰에는 이들 건물 이외에 부속적인 시설로서 승방(僧房)을 비롯하여 식당 및 각종 창고 등이 있었다. 이들 시설들 중 특히 승방은 고대 평지가람에서는 역시 가람중심축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강당 뒤와 서측 회랑 바깥에 배치(百濟 - 金剛寺·彌勒寺, 新羅 - 黃龍寺)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일신라 때에는 사찰이 산록(山麓)의 경사지에 건립되는 경우가 많아 지형의 제약에 의해 승방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거나 그 밖의 여러 부속건물들을 질서있게 일정한 위치에 배치하기 어려워 사역 내의 적당한 위치에 건립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홍법사지의 경우에도 사지현황의 지표관찰로서는 이들 부속시설의 위치나 규모, 성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들 부속시설들 역시 발굴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구명(究明)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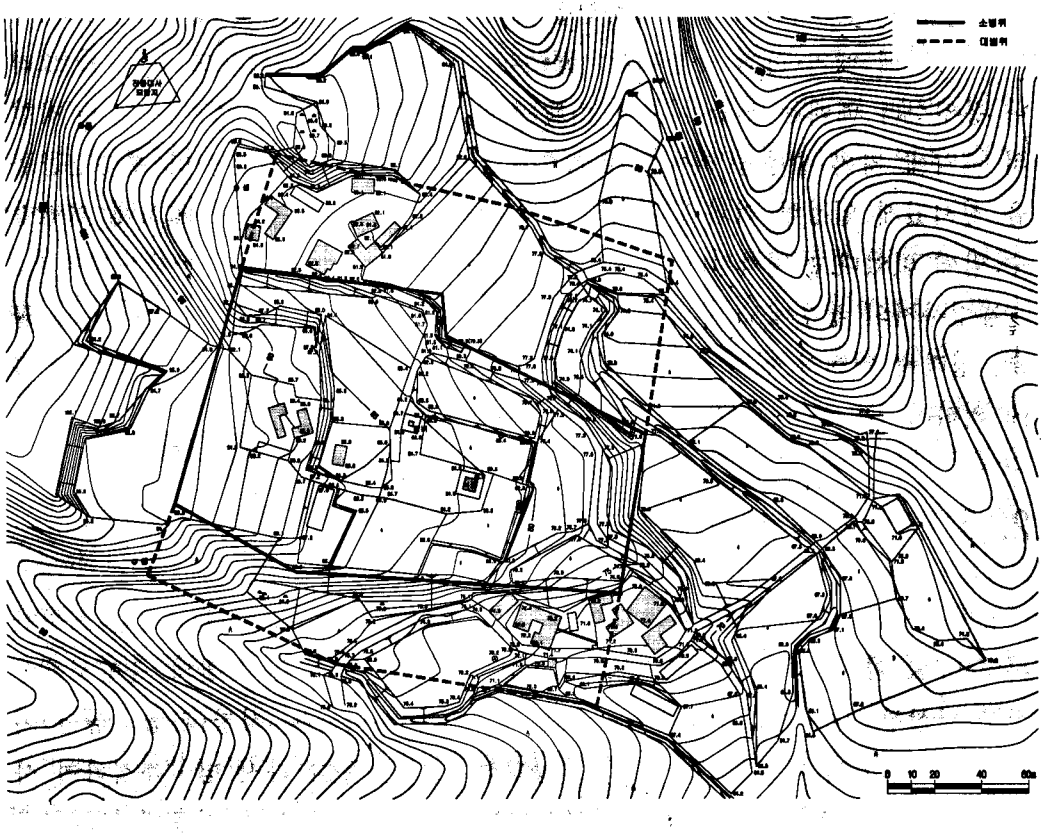
2. 發掘調査 範圍와 調査方法

홍법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려면 우선 가람(伽藍)의 중심곽을 포함한 사역(寺域)의 전 지역, 즉 일반적으로 중문 앞에 위치하는 사찰의 출입정문인 동문(남향한 사찰에서는 남문)에서 남·북으로 나아가는 석장(石墻, 돌담)이 서쪽으로 꺾이어 강당(講堂) 뒷쪽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다시 남·북절하여 사찰 뒤를 구획하는 범위 안이 사찰의 영역이 된다. 이 부분과 진공대사탑지(眞空大師塔址)에 대해서는 사지에 대한 일반적인 발굴방법, 즉 전면발굴(全面發掘)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황으로만 보아서는 사역의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지 지형과 가람 중심곽의 관계, 위치로 보아 사지 전면의 거석축대 앞(동쪽) 약 50m 부근의 남북으로 지나는 소로(小路) 근처가 동문과 그 좌우에서 북·남행하는 돌담장이 있었던 곳이 아닌가 느껴진다. 그러므로 발굴은

그 앞 경사면의 밑부분까지 시행되어야 하겠다.

중심곽 북쪽은 거석축대에서 북쪽으로 약 40m 떨어진 곳에 동문 앞의 소로가 북쪽에서 만곡(彎曲)하면서 서행하여 올라가는 소로의 바깥까지, 그리고 그 소로가 추정강당지 북쪽에서 다시 북절(北折)하면서 또 서쪽으로 꺾여서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선까지, 남쪽은 거석축대 남쪽에서 약 30m 떨어져서 비교적 급한 경사로 내려가는 경사면을 따라 서쪽으로 연장되는 선이며, 서쪽은 추정강당지(推定講堂址) 뒤 축대에서 서쪽으로 약 60m 떨어진 선까지가 사지의 범위를 좁게 본 사역(寺域)이다.



발굴범위 설정도

넓게 본 사역은 사찰의 정면 입구에서 남·북으로 잡은 선을 더욱 연장하고 사역의 후면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쪽 끝선까지인데, 역시 지형상으로는 조금 더 서쪽으로 사역이 확장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서쪽 끝선도 남쪽과 북쪽으로 연장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쪽은 전기한 좁은 사역범위보다 60~70m 더 북쪽으로 전개된 경

사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작지(耕作地)와 그 서쪽의 소집락(小集落)까지를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남쪽은 좁은 사역선 남쪽의 폭 약 50m의 작은 골짜기 평지와 그 남쪽 능선(稜線)의 북쪽 기슭까지인데 이 부분도 동쪽 소집락의 일부가 사역에 포함되는 범위로 추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먼저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실시하고 그 시굴(試掘)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발굴시행의 여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發掘調査로 期待되는 成果

흥법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기대되는 유구(遺構)와 유물(遺物)에 대한 확인 또는 출토예정의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그러나 사지발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실은 유지(遺址)에 대한 지표관찰(地表觀察)을 통한 추정이 실제 발굴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것은 사찰이 창건된 후 폐허가 될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중창(重創)이나 중수(重修), 개건(改建), 변혁(變革) 등 사찰 경영상에서의 변화와 사찰이 폐허(廢墟)가 된 뒤의 경작(耕作)이나 타 구조물의 건립 등 인위적 파괴, 또는 지형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유구의 파괴, 변형 등이 있기 때문이다.

1) 寺刹 中心廓

사찰 중심곽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거석축대(巨石築臺) 위에 중문, 탑, 금당 및 강당 등이 동·서 중심축선상에 차례로 배치되고 중문 좌우에서는 강당 좌우에 닿는 회랑이 건립된 일탑식가람(一塔式伽藍)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의 사지 중심곽에는 삼층석탑(三層石塔)과 서북쪽에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의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있다.

① 築臺(石築)

축대는 현재 이 사지의 전면쪽에서 바라볼 때 가장 눈에 잘 띄이며 장중한 위용을 나타내고 있다. 정면 돌출부 일부가 붕괴되어 그 앞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단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축대를 발굴함으로서 정면 중앙 계단시설의 유무, 그리고 계단이 있을 경우 그 형식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 북면과 동면의 축대 하부쪽 매몰부 및 굴곡부 등 지표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이들 축대의 거의 완전한 복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② 中門址

중문지는 현재 지표관찰로는 그 기단의 위치나 규모, 형식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정면축대 돌출부의 동남 모서리에 초석 1개가 노출되어 있어 이것이 중문의 초석인지 또 원위치에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부근의 발굴에서는 중문의 기단흔적은 검출(檢出)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나 중문기단의 외장형식(外裝形式) 등 세부양상까지 밝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③ 三層石塔 周邊

석탑은 세부형식으로 보아 진공대사비 귀부와 이수의 조각수법 등에 비해 좀 더 시기가 내려오는 12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건시의 탑이 파괴 또는 소실된 후에 현존하는 탑을 건립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창건시에는 미처 탑까지 완성치 못하고 12세기에 들어서서 탑을 건립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문은 그 주변을 발굴함으로서 구명(究明)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석탑 주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탑과 북·남 회랑과의 중간부분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존 석탑이 창건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당초에는 쌍탑식가람이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④ 金堂址

금당지는 근래에 지표를 삭토(削土)하여 그 위치가 뚜렷하지 않으나 추정되는 부분의 지표가 약간 두드러진 상태이다. 따라서 이곳을 발굴한다면 금당기단의 지대석(地臺石)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고 최소한 지대석이 놓였던 자리는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대석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현존 진공대사탑비의 북쪽에 노출되어 있는 화강암 갑석(甲石)과 비교하여 동일기단의 갑석임이 밝혀졌을 때 기단면석(基壇

面石)만 찾을 수 있으면 금당(金堂) 기단의 외장형식(外裝形式)을 복원(復元)할 수 있게 된다.

⑤ 講堂址

강당은 일반적으로는 사찰 중심곽의 가장 뒷쪽을 구획하는 건물이며 흥법사의 경우는 중심곽의 서연(西緣)이 된다. 강당지는 금당지 바로 뒷쪽(서쪽) 폐가옥의 앞마당 부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지표상태로는 강당기단이 어떠한 형태로 지하에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부근의 지표가 금당지보다 상당히 높아 의외로 유구가 양호한 상태로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

⑥ 廻廊址

회랑지는 중문지(中門址)나 강당지(講堂址) 발굴에 의해 그 존재 여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유구 잔존상태에 따라서는 기단의 형식까지도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만일 흥법사에 회랑이 있었다면 사찰의 중심곽 외연(外緣)을 형성하는 가늘고 긴 지붕을 갖춘 복도로 사용된 건물이므로 거석축대 상면 외연(外緣) 부근에서 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랑의 굴절부(屈折部) 등은 비교적 검출하기 쉬운 부분이나 회랑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다. 혹은 창건시에는 건립되었으나 사찰이 경영되고 있는 어느 시기에 대파되거나 소실(燒失)된 경우 다시 회랑이 중건되지 않고 별도의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어 의외로 유구의 노출상태가 복잡할 수도 있겠다.

2) 中心廓 外部寺域

사역 가운데 중심곽 외부에 건립되는 여러 건물이나 시설 중 그 건물의 위치가 예측되는 것은 사찰의 입구인 동문(東門) 뿐이며 어느 정도 발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승방(僧房)이다. 그 밖의 부속건물이나 시설은 발굴에 의해 노출된 건물지의 양상에 따라 그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중심곽(中心廓) 외부의 여러 건물들은 중심곽을 형성하는 건물군(建物群)들에 의해 사찰이 경영되고 있는 시기에도 비교적 개축이나 변형, 이전 등의 변화가 많아 유구의 잔존상태가 복잡하거나 중복(重複)된 경우가 많다.

① 東門址

흥법사의 정면 입구인 동문(東門)의 유지(遺址)는 중심곽 정면 거석축대 앞, 밭으로 경작지화 된 광장(廣場)의 동단(東端) 중앙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앞 경사면에는 동문으로 오르는 계단지(階段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표관찰로는 그들 유구의 유존상태를 짐작할 수 없다. 만일 그 부분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문(門)의 기단이나 계단의 흔적이 확인된 경우가 많다. 또 이런 경우 문의 좌우에서 전개되는 돌담의 뿌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유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돌담의 기초나 그 흔적이 동문지(東門址) 좌·우 뿐이 아니고 그 밖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면 정확한 사역(寺域)의 범위를 밝힐 수 있고, 또 정면 이외에 사역의 후면이나 측면의 출입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 문지(門址)도 어느 정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② 僧房址

흥법사 가람이 삼면승방(三面僧房)의 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승방은 강당 뒤와 북·남회랑 바깥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승방지를 검출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나라 고대 사찰의 승방 평면형식에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중심곽 외부지역의 발굴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각종 건물 유구 중에서 승방으로 추정되는 유구(遺構)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 건립된 승방 혹은 요사(寮舍)라고 불리우는 건물지의 경우는 그 형식이 다양하며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③ 其他遺構

사찰에는 위에서 말한 몇몇 건물 이외에 식당(食堂), 주방(廚房), 각종 창고(倉庫) 등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이 있고, 사찰의 부차적인 법당이나 종루(鐘樓), 경루(經樓)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모두 사역 내에 건립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들 건물의 유구들이 발굴을 통해 검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발굴에서는 중심곽 내부보다 파손, 변형, 중복된 유구들이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구 잔존상태 역시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 出土遺物

사지 발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에는 건물의 기단부 외장석재나 그 파편이 기단에서 이탈되어 발견될 수 있고, 건물의 지붕을 이었던 막새를 포함한 기와들, 그리고 기단 상면이나 벽면 등을 장식한 문양전(文樣塼)을 포함한 전(塼) 종류들이 출토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찰이 경영되는 동안에 사용된 각종 기구들 가운데 불상(佛像) 등의 불기류(佛器類)나 공양(供養)에 승려들이 사용한 청동·도제식기류 등이 있다. 이들은 완형(完形)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대부분 파손된 파편들인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불상 또는 그 일부 파편들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흔히 금당 전면 중앙에 세워져서 본존불(本尊佛)을 장엄하게 하는 석등(石燈)부재 또는 그 파편들이 출토되는 경우가 있다. 이 석등이 세워져 있던 자리에는 석등 하대석 또는 그 밑의 적심석(積心石)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희귀유물인 진단구(鎭壇具)는 모든 건물의 기단에 매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치도 일정하지 않아 발견은 매우 어렵다고 보지만 드물게는 중요법당의 기단토(基壇土) 속에서 기단 축조시에 매설한 진단구가 발견될 수도 있다.

사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기의 유물들은 그 종류에 따라 건물의 건립시기, 중수(重修), 번와시기(飜瓦時期)나 멸실시기(滅失時期)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기단 외장석재 등은 기단의 복원에 도움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유물 이외에도 사찰이 건립되기 이전에 그 곳에 매장된 유구, 유물들이 출토될 수 있으나 홍법사지는 작은 능선을 삭평(削平)하여 부지(敷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찰이 폐허가 된 뒤에도 사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관련된 유물들이 현대에 걸쳐서 출토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遺蹟整備淨化案

유서깊은 사지(寺址)에는 전기한 바와 같이 사찰 건립의 중심기반인 장중한 거석축대(巨石築臺)와 삼층석탑, 진공대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 그리고 진공대

사탑의 유지(遺址)가 남아 있다.

사찰을 형성한 여러 건물이나 시설들의 위치와 규모를 밝히고 그것을 지상에서 관찰할 수 있게 정비·정화하여 사적공원화(史蹟公園化)한다면 홍법사지는 우리나라 불교사(佛敎史)와 건축사(建築史)의 일면을 보여주는 교육도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외 인사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도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적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확실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지에 대한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발굴에 의해 정확한 사역의 범위나 매장되었던 각종 건물지(建物址), 또는 여타 시설들의 잔존상태가 확인된 후라야 만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 사적 정비·정화를 위해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만 들어보기로 한다.

1) 淨化範圍

보통 선사(先師)의 묘탑은 사역 바깥쪽 깊숙한 곳에 건립되나 정화정비시에는 묘탑지(墓塔址)와 사역(寺域)이 한 공간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외부에서의 출입시설과 관리, 편의시설 등을 위해 정비·정화의 범위는 그보다 얼마간 넓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寺域區劃垣墻址

사역(寺域)을 구획하는 담장지가 확인되면 이들을 근거로 전체 담장을 복원하되, 동문 이외의 문지(門址)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곳을 관람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문지가 없어 관람로를 위해 담장을 절단해야 할 때는 그 곳이 원래 담장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담장의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게 적절히 조정하도록 한다.

3) 建物遺構

건물유구 즉, 건물기단은 유존상태에 따라 완전복원할 수도 있고, 그 규모와 위치만을 알게 되어 토단(土壇)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완전복원할 수 있

는 경우에도 노출된 상태로만 정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4) 模造 墓塔·塔碑碑身

진공대사탑과 탑비의 비신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이를 유지(遺址)에 옮기기는 보존관리상의 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묘탑의 완전한 모조품(模造品)을 제작하여 옛 자리에 세우고, 탑비의 비신도 모조품을 제작하여 사지에 남아있는 귀부 위에 세워 다시 이수를 조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뜻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사적공원(史蹟公園)의 경관상 효과가 크고 비록 모조품이긴 하나 원래의 모습을 옛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또 풍화(風化)가 진행된 원래의 탑이나 비신을 먼 장래에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資料展示館 및 其他

사지(寺址)의 정화범위 내에 발굴에 의해 출토된 유물을 비롯하여 홍법사지 및 진공대사와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전시·설명하는 자료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한 것이나 정비범위 내에는 관리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지표처리에 있어서는 가급적 잔디의 식재(植栽)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附　錄

1. 眞空大師塔碑 碑文
2. 1929年 現況調査資料

1. 興法寺眞空大師塔碑 碑文

〈서울시金石文大觀에서 轉載〉

【原 文】

故眞空大師塔碑(題額)

高麗國原州靈鳳山興法寺 王師眞空之塔□□□□□□□□□□□□□□□□ □□□□□□…… 臣崔光胤 奉教集太宗文皇

□□□□□□□□□□□□□盖聞微言立教 始開鷲嶺之譚 妙旨傳心 終入雞山之定 雖曰別行法眼 竊惟同稟玄精 慶喜於是當仁 和修以其嗣位 至於馬鳴繼美 垂妙法於三乘 龍樹揚芳 見其□□□□ □相離相 非身是身 降乃□□□□□□□□□□□□□□□□□□□□□□□□□□□□□ 初聞圓覺 東入梁朝 始見大弘 北遊魏室 於是 師資所契 付囑同風 祖法相承 心燈不絶 所以一花欻現 六葉重榮 近自江西 流於海裔 亦有鳳林 家于章敬 曾孫惟我大師 再揚吾道者焉 大師 法諱忠湛 俗姓金氏 其先鷄林冠族 兎郡宗枝 □□島以分榮 託桑津而別派 遠祖多□□□□□□□□□□□□□□□□□□□□□□□□□ □陶潛而不事王侯 希賈誼而寧求祿位 所以考盤樂道 早攻莊列之書 招隱攀吟 常避市朝之譽 母於□□□□□□□□□□□□□□□□□□□□□ □□□□賢之子 豈無修聖善之心 感此靈奇 求生法胤 以咸通十年正月一日 誕生大師 生有殊相 弱無戲言 □□□□□□□□□□□□□□□□□□□□□□□□□□ 性靈超衆 神悟絶倫 槐市橫經 杏園命筆 二親嘗邀相者相之 云若至甘羅之歲 鳳擧難量 終臻賈誼之□ □□□□ □□□□□□□□□□□□□□□□□□□至失於怙恃 唯恨栖遑 爰有長純禪師 是導師修度世之緣 當亡文結空門之友 大師隨其長老得居□□□□□□□□□□□□□□□□□□□□□ □□俗塵 方登僧位 尋令昇堂覩奧 入室鉤深 迅足駸駸 後發先至 覺枝脉脉 前開晩成 所以偃仰禪林 優游□□ □□□□□□□□□□□□□□□□□□□□ □□□□ 認印度重光 終至相傳 窺楞伽再闡 迺於龍紀元年 受具戒於武州靈神寺 旣而 習其相部 精究毗尼 捧□□□ □ □□□□□□□□□□□□□□□□□□□□宗論道 謂學人曰 淺溜穿石 同心斷金 鑽燧之勤 寫

瓶之易　皆由積微不已　跬步遄征　俄成學海之功　永就□□□□　□□□□□□
□□□□□□□□□□□□　□□釋子　忝曰禪僧　此間觀曝骨之墟見殭屍之處
他山靜境　豈無避地之方　此地危邦　終絶居山之計　□□□□華□□□□□□□
□□□□□□□□□□□□□□□□者　同載而征　達于彼岸　此時徑登雲蓋禪宇
虔禮淨圓大師　大師是栖雲壑之居　佩石霜之印　知□大師遠離□□□□□□□□
□□□□□□□□□□□□　□□圖南　迥奮垂雲之翼　豫章向上　高揮拂日之枝
大師謂曰　汝還認其到此階梯　預呈其遷喬　所以不離寶所□□□□□□□□□□
□□□□□□□□□□　□□□□河東　叅禪門於紫嶽　故能初窺聖典　久栖禹穴
之旁　始覽靈蹤　方到燕臺之畔　迺於天祐十五年六月　得達于□□□□□□□□
□□□□□□□□□□□□□□□□學　俱於問訊　慶抃交深　數月論禪　周年問法
惟彌天發口　乃離日脣　量語路之端　酌言之□　此日　揣於兩地心□□□□□□
□□□□□□□□□□□　□□□□之光　愁見甲兵之色　所以便辭金海　遙指玉
京　行道遲遲　於焉入境　不唯摩勒重敷　兼亦優曇一現　奉迎內殿　尋以□□□
□□□□□□□□□□□□□□□□□仕遙　屢吐象王之說重重避席　恭披弟子之
儀　一一書紳　待以王師之禮　翌日請移□□□□□□淨精廬　永元□□□□□□
□□□□□□□□□□□□　大師遠從丹徼　再到京畿　所以別飾玉堂　令昇繩榻
問大師曰　寡人少尚威武　未精學□　不曉先王之典　寧□□□□□□□□□□□
□□□□□□□□□□存亡之志　所喜　不勞漢夢　仍覩秦星　世宗之遇摩騰　梁
武之逢寶誌　無以加也　生生世世　永修香火之因　子子孫孫　終表奉持之至　所
以重起其興法禪院　以住持□　□□吉祥之地　尙論往美　更知延福之庭　志有終
焉　心無悔矣　然則遂於此地　高敞禪扃　來者如雲　學人如霧　依舊瑠璃□□□
□□□□□□□□□□□於國　□□□□　□聞興法之談　不受大師之誨者　處處精
舍　其徒擯之　終日了無與言　一宵堅不留宿　豈期大師素無疾疹　當有□□　異於
座品之□□□□□□□□□□□□□□五年七月十八詰旦　告門人曰　萬法皆空　吾
將巨矣　一心爲本　汝等勉旃　顔貌如常　寂然坐□　俗年七十有二　僧□□　地
動山崩　雲愁日慘　□□□□□□□□□　□□悲盈四部　天人增絶學之哀　寧惟
慟徹諸方　士庶泣亡師之痛　寡人忽聆遷化　尤慟于懷　追切洪德　不能已已特宗
林禪伯　季葉古皇　朝□□□□□□□□□　□萬壽之遐長　乖群情之敬仰　今則
梁雖折矣　室可修焉　然則先炘於水積魚歸　後恨於林傾鳥散　所冀早儀明禮正
當□□贈謚眞空大師　塔號□□□□□□□□□□□之塔　惟大師雪山成道　煙洞
證心　傳十八代之祖宗　統三千年之禪教　則知浹洽浮世　擧其廣則誰　曰黃興周

□ □香散馥 便牽胡蝶之心 水□□□□□□□□□□忘機 仍引狎鷗之興 幾多盻蠻 無限昭彰 可謂闡揚身毒之風 敷演竺乾之法者矣 門徒弟子五百□□□□□□□身之贖 切恐蒼山變谷 勃□□□□□□□□□□成田 陳情而特請龜文 瀝懇而頻干鳳德 所冀顯無爲之化 留在水雲 期不朽之緣 刻於金石 □恤之慟 措詞齎曰 慰門人罔□□□□□□□□□□□□□□□□□□之心 歸美栢臺 旌國士追攀之志 乃爲銘曰

□□□□ □□□□ □□□□ □□□□ □流雍袂 賢佐褰裳 □□□□ □□□□ □□□□ □□□□ □蘇認己 藏寶知印 慈航沒浪 慧炬沈光 銀燈石塔……

靈鳳山故王師眞空大師碑陰

盖聞湯王滅夏 終敷開網之仁 武帝…… 西陲之教…… 親窺寶誌 爰談東夏之風 由是 大集朝臣 車馬以奉迎 僧會出遊東苑 輦輿而同…… 俄國家 二韓角立 未知彼此之僞眞 一國雄飛 忽辨戰爭之優劣 遐霑聖德 黃…… 大師奏表曰 殿下精同四乳 眼耀雙瞳 以此 梨察在元皇之座 圖澄逢趙主之憐 然猶…… 僧憚於來往 志在登臨 山家之鬱鬱森森 道人卽往 海國之幽幽秩秩 君子攸寧 伏乞憐其…… 大師今辭樂土 欲入深山 高飛一軸之文 聊送九重之闕 寡人與大師 情深膠柒 義…… 東化 所誓其興法禪院 縱爲古寺 尙在仁方 和尙生前 永作栖遑之處 大師在家弟子…… 州官

通玄上座 郎中 旻會乃末 金舜乃末
廣休長老 侍郎 興林大末 秀英大末
惠泰長老 上柰 信希柰

【飜譯文】

故眞空大師塔碑

고려국 원주 영봉산 흥법사 왕사 진공대사지탑비(高麗國原州靈鳳山興法寺王師眞空大師之塔碑)[3] (……마멸……) 신(臣) 최광윤(崔光胤)은 교지(敎旨)를 받들어 태종문황제 [太宗文皇帝, 당태종(唐太宗)] 의 글씨를 집자(集字)함.

듣건대, 깊은 말로 교리(敎理)를 세워 비로소 추령(鷲嶺)[4]의 설법을 열었고 현묘한 뜻으로 마음을 전하여 마침내 계산(雞山)[5]의 선정(禪定, 수행하여 마음이 한 곳에 머무름)에 들어갔다고 한다. 비록 따로 법안(法眼, 모든 법을 분명하게 비춰 보는 눈)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면 현정(玄精, 현묘한 불심)을 함께 받아, 경희(慶喜)[6]는 수제자가 되었고 화수(和修)[7]는 그 계통을 이었으며, 마침내 마명(馬鳴)[8]이 뒤를 이어 묘법(妙法)을 삼승 [三乘,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에 대한 세 가지 교법] 에다 전하고 용수(龍樹)[9]는 그 훌륭한 교리를 선양하여 그 (……마멸……) 드러냈다. 상 [相, 외계(外界)의 모양] 은 상을 떠남이 (……마멸……) 신(身, 자신)은 신이 아니다. 내려 (……마멸……) 처음에 원각 [圓覺,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인 보리달마(菩提達磨)의 시호] 이 동으로 양(梁)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고, 비로소 대홍 [大弘, 중국의 밀교(密敎)의 초조인 금강지(金剛智)의 시호] 이 북으로 위(魏) 나라에 노닐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리하여 스승과 제자가 의기가 투합하여 넘겨준 것이 일색이었고 초조(初祖)의 법을 서로 이어 마음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이는 한 송이 꽃이 홍연히 피어난 뒤에 여섯 잎이 거듭 피

---

3) 진공대사는 사병원외(司兵員外) 김확종(金確宗)의 아들로 신라말 고려초의 고승임. 고려 태조 23년(940) 7월에 진공대사가 죽자, 그 해에 고려 태조가 부도탑과 탑비를 흥법사에 세웠는데 글을 고려태조가 썼다. 문장이 전아하고 글씨가 힘찬 것으로 유명하다. 이 비를 반절비(半折碑)라 하기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왜구가 이 비를 수레에 싣고 가져가다가 죽령(竹嶺)에 이르러 부러져 두 동강이 나자, 그 중 한 개는 가져가고 나머지 두 조각만이 남았다. 《海東金石苑, 三韓金石錄, 朝鮮金石總覽》

4) 추령(鷲嶺) ; 중인도 영추산(靈鷲山)의 약칭. 석가모니가 이곳에서 설법을 하였다고 한다.

5) 계산(雞山) ; 중인도에 있는 계족산(雞足山). 마하가섭(摩訶迦葉)이 이곳에서 죽었음.

6) 경희(慶喜) ; 석가모니 십대제자 중의 한사람. 아난(阿難)·환희(歡喜)·무염(無染)이라 부르기도 한다.

7) 화수(和修) ; 4~5세기경의 북인도 학승(學僧). 소승(小乘)에서 5백부, 대승(大乘)에서 5백부의 논(論)을 지어 천부논사(千部論師)라 일컬어진다. 바수반두(婆藪槃豆)·벌소반도(伐蘇畔度)·세친(世親)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8) 마명(馬鳴) ; 북인도의 고승. 불멸(佛滅) 후 5~6세기경에 태어났다. 바라문교(婆羅門敎)를 받들다가 나중에 불교로 돌아왔고,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대장엄논경(大莊嚴論經) 등을 지었다.

9) 용수(龍樹) ; 마명의 뒤에 출세하여 인도의 대승불교를 크게 선양한 사람.

어난 것이다. 근대에는 강서 〔江西, 당나라 고승 도일(道一)〕 로부터 해동(海東)에 흘러들어 왔고, 또 봉림 〔鳳林, 신라 고승 진경대사(眞鏡大師)를 말함〕 이 장경(章敬, 당나라 고승)에게서 선종을 전수받았으며, 그의 증손인 우리 대사(大師)는 우리의 불도를 다시 선양한 사람이다.

대사의 법휘(法諱)는 충담(忠湛)이고 속성(俗姓)은 김씨인데, 그 선대는 계림(鷄林, 신라)의 대족이고 토군 〔兎郡, 현토군(玄兎郡)〕 의 큰 지손(支孫)으로 섬(島)에 (……마멸……) 하여 따로 번성하고 상진 〔桑津, 불문(佛門)의 별칭〕 에 의탁하여 파를 달리하였다. 윗대의 선조는 많이 (……마멸……) 도잠 〔陶潛, 진(晋)나라 때의 산림처사〕 을 (……마멸……) 하여 왕후(王侯)를 섬기지 않았으니, 가후 〔賈詡, 삼국(三國) 위(魏)나라 때 조조를 섬겨 집금오(執金吾)를 지냈음〕 를 바라 어찌 녹위(祿位)를 구할 것인가. 그래서 사림의 도를 즐겨 일찍이 장자(莊子)·열자(列子)의 글을 다루었고, 숨은 인재들과 시를 읊조리며 저자와 조정의 칭송을 피하였다. 어머니가 (……마멸……) 어진 아들 (……마멸……) 하니 어찌 성선(聖善, 성스러움과 선함)을 닦을 마음이 없겠는가. 이 영기(靈奇)를 감통(感通)하고 법윤(法胤, 불자와 같음)을 낳기를 기도하여 함통 〔咸通, 당의종(唐毅宗)의 연호〕 10년 〔신라 경문왕(景文王) 9년(869)〕 정월 1일에 대사가 탄생하였다.

대사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상(相)을 지녔고 어릴 때 실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마멸……) 성령(性靈)이 월등하고 신오(神悟)가 뛰어나 괴시(槐市)[10]에서 경서(經書)도 횡행하고 행원(杏園)[11]에서 붓대를 달렸다. 양친(兩親)이 일찍이 관상보는 사람을 불러 상을 보게 하니, 하는 말이 『만약 감나(甘羅)의 나이[12]가 되면 진취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고 나중에 가의(賈誼)의[13] (……마멸……) 에 이르면 (……마멸……) 부모를 여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장순선사(長純禪師)가 있었다. 그를 인도하는 스승으로 삼고 세상을 스쳐가는 인연을 닦았으니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귀던 공문

10) 괴시(槐市) ; 대학(大學)의 별칭. 한 대(漢代)에 장안성(長安城)의 동쪽, 상만창(尙滿倉)의 북쪽에 있던 시장의 이름. 괴화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있었는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제생(諸生)들이 이곳에 모여 물품과 서적·악기류 등을 매매하였으며, 예의범절을 논하기도 하였다. 《三輔黃圖》

11) 행원(杏園) ; 시험장의 별칭. 당대(唐代)에 진사(進士) 급제한 사람에게 잔치를 내리던 곳임. 《摭言》

12) 감나(甘羅)의 나이 ; 12세를 말함. 전국시대 때 감나가 12세의 나이로 진(秦)나라의 사신으로 조(趙)나라에 가서 유세를 잘하였으므로 비유한 것임. 《史記 卷71 甘茂傳》

13) 가의(賈誼)의 ; 20세를 말함. 원문에 빠진 글자는 문세로 보아 해 년(年)자로 추측됨. 가의는 한(漢)나라 낙양(洛陽) 사람으로 젊었을 적에 매우 영특하였다고 하는데 그의 나이 20세 때 문제(文帝)가 불러다가 박사(博士)에 임용하고 1년만에 벼슬이 태중대부(太中大夫)에까지 이르렀다. 《史記 卷84 賈誼傳》

(空門, 불가)의 벗이었다. 대사는 그 장로(長老)를 따라 (……마멸……) 속세를 (……마멸……) 하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마루에 올라 으슥진 곳을 보고 방에 들어가 깊은 곳을 살피게 하니[14], 달리는 발이 빨라 나중에 출발하였으나 먼저 이르고 깨닫는 가지는 늘어져 앞서 피어나고 늦게 맺어졌다. 이래서 선림(禪林)에 몸을 담고 (……마멸……) 에 노닐면서 (……마멸……) 인도(印度, 불법을 이름)가 거듭 빛남을 알았고 마침내 서로 전수하기에 이르러 능가(楞伽, 인도의 동남쪽에 인접한 섬. 역시 불법을 이름)가 다시 열림을 엿보았다. 이리하여 용기 [龍紀, 당소종(唐昭宗)의 연호 원년 [신라 진성여왕(眞聖女王) 3년(889)] 에 무주 [武州, 지금의 전라남도 광주(光州)] 영신사(靈神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이윽고 그 상부 [相部, 율종(律宗)의 일파] 를 익히고 비니(毗尼, 불가 계율의 총칭)를 정밀히 탐구하여 (……마멸……) 도를 논하였다. 배우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가는 물줄기도 끊임이 없으면 돌을 뚫고 마음을 함께 하면 쇠도 끊는다. 열심히 갈고 닦는다면 병 속의 물을 쏟듯 쉽게 되는 것이니, 모두가 조금씩 쌓아 가길 마지않고 종종걸음을 계속함에 따라 얼마 후에는 배움바다(學海)의 공을 이루고 길이 (……마멸……) 나아가 (……마멸……) 석자(釋子)를 (……마멸……) 하고 선승(禪僧)을 욕되게 한다. 여기는 뼈가 뒹구는 터이고 시체가 널려 있는 곳이다. 다른 산은 조용하니 어찌 이 땅을 피할 곳이 없겠는가. 이 땅은 위태로운 곳이니 끝내 산에 있을 계획을 말아야 한다.』 (……마멸……) 중국 (……마멸……) 함께 싣고 가서 그곳에 이르렀다. 이때 먼저 운개선우(雲蓋禪宇)에 올라가 경건하게 정원대사(淨圓大師)에게 예를 올렸다. 대사는 운학(雲壑, 구름이 덮힌 깊은 산) 속에 노닐고 석상(石霜, 당나라 고승)의 심인(心印)을 받았는데 (……마멸……) 대사가 멀리 떠나온 것을 알고 (……마멸……).

(……마멸……) 남쪽을 목표로 삼아 멀리 구름처럼 넓은 날개를 치고 예장(豫章)이 위를 향하여 높이 해를 건드릴 가지를 휘저었다.[15] 대사는 말하기를

『너는 이 단계에 이를려면 미리 그 교목(喬木)으로 옮기는 뜻[16]을 보여야

---

14) 마루에……하니 ; 차츰차츰 도(道)의 경지를 깨달음의 비유. 《論語先進》에 『유(由)는 마루에 올라 왔고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였다.(由也升堂矣未於室也)』 한데서 인용한 것임.

15) 남쪽을……휘저었다 ; 포부가 큰 것을 비유한 것. 《莊子逍遙遊》에 크기가 수천리가 되는 곤(鯤)이라는 물고기가 갑자기 한 마리 붕새(鵬)로 변하여 남쪽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그 날개는 마치 하늘가에 걸린 구름처럼 넓다고 하였다. 예장은 양질의 나무로 높이 자란다고 함.

16) 교목(喬木)으로 옮기는 뜻 ; 보다 더 발전해가는 것을 말함. 《詩經小雅伐木》에 『깊은 골짜기에서

한다는 것을 알라』 하여 그 곳을 떠나지 않고 (……마멸……) 하였다. 하동(河東)에서 (……마멸……) 하고 자악(紫嶽)에서 선문(禪門)을 참알(參謁)하였기 때문에 능히 성전(聖典, 불경)을 엿보느라 우혈 [禹穴, 파촉(巴蜀)] 의 주변에서 오랜 동안 노닐고 비로소 영종(靈蹤, 고승의 자취)을 보기 위해 연대 [燕臺, 하북성(河北省) 대흥현(大興縣)의 동남에 있는 대 이름] 가에 이르렀다가 천우(天祐) 15년 [신라 경명왕(景明王) 2년(918)] 6월에 (……마멸……) 도착하였다. 함께 질문하면서 경하하여 서로 교의(交誼)가 깊었다. 수개월 동안 선리(禪理)를 논하고 1년간 불법을 물었는데 한없이 말을 하고 계속 입을 놀리니 논리가 정연하고 어법이 (……마멸……) 알았다. 이 때에 헤아리기를 양쪽의 마음 (……마멸……).

(……마멸……) 전쟁의 광경을 수심스레 보았다. 그래서 홀연히 김해(金海)를 하직하고 멀리 옥경(玉京, 중국을 말함)으로 떠났던 것인데 오랜 동안 객지에서 보내다가 드디어 본국으로 들어오니, 마륵(摩勒)[17]이 다시 생기가 돌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담(優曇)[18]이 한번 나타난 것이었다. 내전(內殿)으로 받들어 영접하였다가 곧 (……마멸……) 상왕(象王, 석가의 별칭)의 설을 내뱉을 때마다 경탄한 나머지 거듭거듭 자리를 옮기고 공손하게 제자의 예의를 차려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왕사(王師)의 예로 정의(情誼)를 맺었다. 다음날 자리를 옮기기를 청하여 (……마멸……) 영원(永元) (……마멸……) 대사는 멀리 임금의 사신을 따라 두 번째 서울에 당도하였다. 그리하여 옥당(玉堂, 옥으로 꾸민 집)을 특별히 단장하고 승탑(繩榻, 끈으로 맺어 만든 편한 의자)에 오르게 한 다음 대사에게 『과인은 젊을 적에 무력에 전념하느라 학문을 정밀히 하지 못하여 선왕(先王)의 법을 알지 못하니 어찌 (……마멸……) 존망(存亡)의 뜻이겠습니까. 반가운 점은 한명제(漢明帝)의 꿈[19]을 꾸지 않고 서울에 모셔온 일입니다. 세종(世宗)이 마등(摩騰)을 만나고 양무제(梁武帝)가 보지(寶誌)를 만난 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생세세(生生世世, 태어나고 죽고를 계속 순환하는 것)토록 길이 향화(香火)의 공을 닦고 자자손손 끝까지

날아와 큰 나무로 날아가네(出自幽谷遷于喬木)』한데서 인용한 것임.

17) 마륵(摩勒) ; 향기가 나는 나무. 훈륙(薰陸)의 이명.

18) 우담(優曇) ; 삼천년 만에 한 번 꽃이 핀다는 우담발화(優曇鉢華). 아주 희귀한 일에 대한 비유.

19) 한명제(漢明帝)의 꿈 ; 후한(後漢) 영평(永平) 7년(64)에 명제가 머리 위에 일광(日光)을 띤 금인(金人, 금불상)이 날아서 궁전으로 들어온 꿈을 꾸고 사자(使者) 장건(張騫), 우림낭중(羽林郎中) 진경(秦景), 박사제자(博士弟子) 왕준(王遵) 등 18명을 인도에 보내 불경 42장(章)을 베껴 왔다고 한다. 《廣弘明集 卷一 牟子理惑論》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흥법선원(興法禪院)을 일으켜 (……마멸……) 주지하게 되니 길상(吉祥)의 땅임을 (……마멸……) 과거의 아름다움을 논하니 다시 복을 맞는 터임을 알고, 그곳에서 현세(現世)를 마칠 뜻을 두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곳에서 선경(禪扃)을 높이 열자, 오는 자가 구름 같고 배우는 사람이 안개와 같았다. 꾸준히 유리(瑠璃) (……마멸……) 나라에 (……마멸……) 흥법사(興法寺)에서 설법을 듣지 (……마멸……) 대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는 곳곳에 정사(精舍)를 마련하고 그들이 푸대접하였는데, 하루종일 전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고 하룻밤도 절대로 머물러 자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뜻하였으리요, 대사는 본디 병이 없어 충분히 (……마멸……) 하여 좌품(座品)과 달랐는데 (……마멸……) 5년 〔고려 태조(太祖) 23년(940)〕 7월 18일 아침에 문인에게 이르기를 『만법은 다 공(空)한 것인데 나는 떠난다. 한 마음이 근본이니 너희는 힘쓰도록 하라.』 하고 평상시와 다름 없는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서 (……마멸……) 하니 속년(俗年)은 72세이고 승(僧) (……마멸……).

그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졌으며 구름이 수심에 쌓이고 해도 서글퍼 하였다. (……마멸……) 사방에 슬픔이 가득하여 천인 〔天人, 천신(天神)과 중생〕은 학통이 끊긴 슬픔이 더하고 어찌 곳곳에 애통함이 통할 뿐이겠는가. 사서(士庶, 중생)는 스승을 잃은 슬픔에 울었다. 과인은 갑자기 천화(遷化, 죽음)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층 더 애닯고 큰 공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였다. 대사는 특히 종림(宗林, 불가)의 선백(禪伯)이며 말세(季葉)의 고황(古皇, 뛰어난 인물)으로 (……마멸……) 만수(萬壽)의 오랜 수명을 (……마멸……) 많은 사람의 경앙하는 마음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들보는 비록 부러졌다해도 집은 수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처음에는 깊은 물에 고기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황폐한 숲에 새들이 흩어지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겠다. 바라는 것이란 하루빨리 의식을 밝히고 예를 바로 하는 일이다. 마땅히 (……마멸……) 진공대사(眞空大師)라 증시(贈諡)하고 탑호(塔號)는 (……마멸……之塔)이라 하였다.

대사는 설산(雪山, 눈 쌓인 산)에서 도를 이루고 연동(煙洞, 안개 깔린 고을)에서 마음을 깨달아 십팔대의 조종(祖宗)을 전하고 삼천년의 선교를 이었으니, 그 슬기는 부세(浮世)에 흠뻑 적시었고 그 넓은 것을 들어 말하자면 곧 땅

과 같다. (……마멸……) 향기가 사라졌는데 나비의 마음이 끌리고 (……마멸……) 일을 잊었는데 갈매기의 흥취가 생긴다. 얼마나 많이 감화되었을까, 그 공덕 끝없이 드러나니 신독〔身毒, 천축(天竺)〕의 풍속을 선양하고 축건(竺乾,부처)의 법을 부연하였다고 할만 하다. 문도제자(門徒弟子)는 5백 (……마멸……) 세월이 가면 푸른 산이 골짜기로 변할까 두려워 (……마멸……) 정을 하소연하여 특별히 비문을 청하고 정성을 표하여 계속 공덕을 구하였다. 과인이 바라는 것은 무위(無爲, 자연)의 교화를 드러내어 수운(水雲, 물과 구름)에 남겨 두고 불후(不朽)의 인연을 꾀하여 금석(金石)에 새기는 일이므로 (……마멸……) 슬픈 마음으로 말을 얽어 문인을 위로 (……마멸……) 하고 백대(栢臺)에 아름다움을 돌려 국사(國士)들이 추모하는 뜻을 드러낸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마멸……) 사람들 배우고 훌륭한 자 달려왔네 (……마멸……) 초개를 (……마멸……) 자신을 알고 보화를 간직하여 심법 알았는데 사랑의 배는 침몰하고 밝은 횃불 꺼졌어라 은둥과 돌탑이요 (……마멸……)

靈鳳山故王師眞空大師碑陰

들으니, 탕왕은 하(夏)나라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그물을 풀어준 인자함을 베풀었으며 무제(武帝)는 (……마멸……) 서역(西域)의 가르침을 (……마멸……) 하고 친히 보지(寶誌, 중국 양나라 때 고승)를 엿보아 동하(東夏)의 교화를 말하였다. 이리하여 조정 신하를 전부 모이게 하고 거마를 갖추어 받들어 맞이하는데 스님은 마침 동원(東苑)에 나가 노닐고 있었다. 가마에 태우고 함께 (……마멸……) 우리 나라는 이한(二韓)과 서로 버티고 서 있어 피차간에 진실 여부를 모르다가 한 나라가 웅비하여 홀연히 전쟁의 우열이 가려졌다. 성덕(聖德)을 많이 입고 널리 (……마멸……).

대사는 표문(表文)으로 아뢰기를 『전하는 정기가 사유(四乳)와 같고 눈은 쌍동(雙瞳)[20]이 빛납니다. 이 때문에 이찰(梨察)은 원황(元皇)의 좌석에 있었고 도징(圖澄)은 조수(趙主)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

20) 사유(四乳)와……쌍동(雙瞳) ; 사유는 젖이 네 개가 있는 사람이고 쌍동은 눈동자가 두 개씩 있는 사람. 순(舜) 임금이 눈동자가 두 개였고 주(周) 문왕(文王)이 젖이 네 개였다고 함.

멸……) 소승은 오가는 것을 꺼리고 뜻은 산수에 있습니다. 무성한 숲속의 산가(山家)는 도인(道人)이 머무는 곳이며 궁벽하고 물결치는 해국(海國, 바닷가)은 군자가 마음이 편안한 곳입니다. 엎드려 비오니 이 처지를 가련히 여기시어 (……마멸……)』 하니, 임금은 답하기를 『대사께서 이제 낙토(樂土)를 마다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자 한 두루마리의 글월을 높이 날려 구중(九重) 대궐로 보내왔으나 과인과 대사와는 정이 교칠(膠漆, 아교와 옻)보다 깊고 의리는 (……마멸……) 동국을 교화시켰오. 맹서하오니 그 홍법선원(興法禪院)은 비록 오래된 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지역에 있으니 화상(和尙) 생전에 길이 거처할 곳으로 하시오.』 하였다.

대사의 남아 있는 제자 (……마멸……) 고을 관원.

통현상좌(通玄上座), 낭중(郎中), 민회내마(閔會乃末), 김순내마(金舜乃末)
광휴장로(廣休長老), 시랑(侍郎), 홍림대마(興林大末), 수영대마(秀英大末),
혜태장로(惠泰長老), 상등(上奈), 신희등(信希奈)

2. 1929年 現況調査資料

〈1929년 3月 故 小川敬吉 現地調査〉 飜譯 ; 金 正 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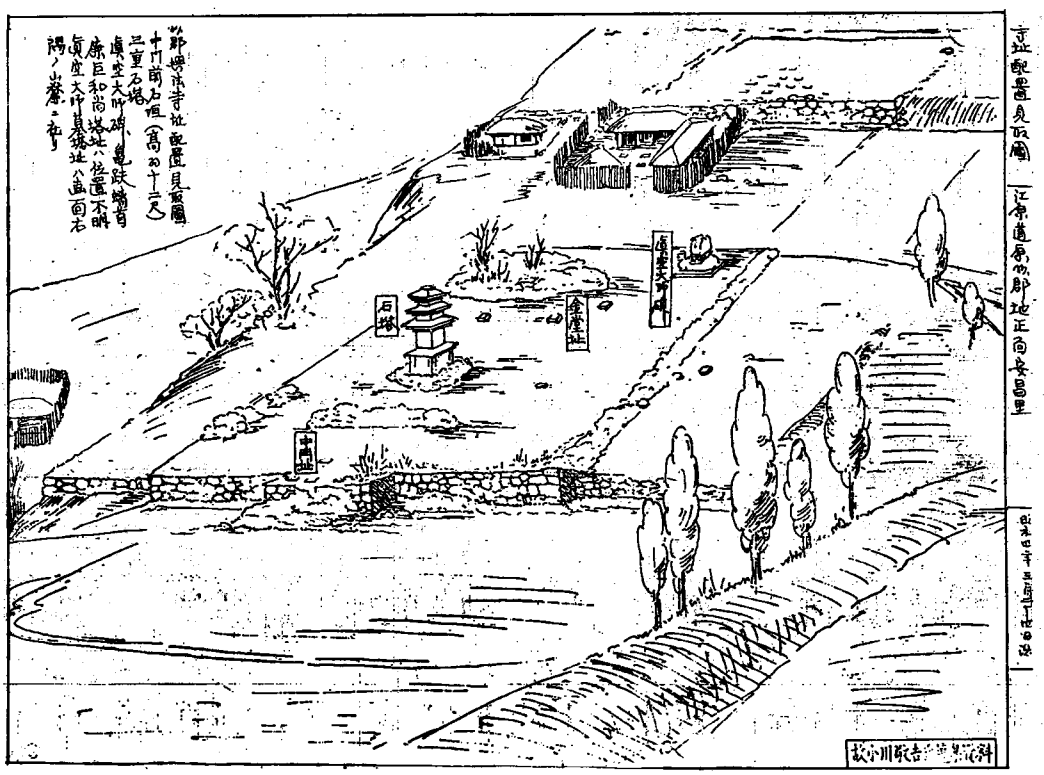
● 興法寺址 鳥瞰

原州郡 興法寺址伏瞰圖

中門前 石築(高 約 12尺), 三層石塔, 眞空大師碑 龜趺 螭首

廉居和尙塔址는 位置不明

眞空大師墓塔址는 畵面右側 모서리 方向의 山麓에 있다.



興法寺址 鳥瞰圖

眞空大師墓塔址에서 興法寺伽藍址를 멀리서 바라볼 때 전방쪽 중앙부의 흰 橫線은 漢江上流로서 이 부근에서는 蟾江이라 부른다. 중앙부 草屋 밑이 三層石塔이며 그 오른쪽 雜草에 덮인 石壘가 金堂址이고, 그 뒷쪽 草屋이 있는 곳

이 講堂址로 보여진다.

三層石塔 밑의 黑點이 眞空大師墓碑(舍利塔碑)의 殘石(龜趺 및 螭首)이고 이 부근 一廓이 寺址의 中心지점이다.

中門址(寺址前面)는 石壇에서 얼마간 突出하였는데 石壇은 높이 약 12尺 정도이다. 삼층석탑과 金堂址에 돌무더기가 있으며 民家가 있는 곳은 講堂址였을 것이다. 그 背後에도 높이 10尺, 길이 160~170尺의 石壇이 있다.

이 寺址는 東面하여 얼마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新羅時代의 가람은 대부분 南向하고 있다. 初期는 평지에 南面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後期가 되면 山地에 가람을 경영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방향도 뜻대로 南面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寺勢에 따라서 方位를 결정하고 있다.

이 伽藍址가 東面하고 있다는 것과 山麓에 經營되어 있는 것은 新羅後期에 創立된 사찰일 것이라고 推察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 興法寺址 前面

伽藍의 정면을 巨石으로 쌓아 올리고 상면을 平坦하게 하여 堂宇를 배치하는 것은 山麓의 경사면에 經營되는 伽藍의 常用手段이며, 또 매우 莊重하게 보이는 構築法으로서 신라시대 후기에 즐겨 채용된 것이다. 그 유명한 慶州 佛國寺 가람의 정면이 대표적인 것으로 巨石으로 축조된 初層 石壇 위에 다시 巧妙한 治石長大石의 上壇을 重疊한 것으로서 여기(興法寺址)에서는 거대한 山石을 높이 쌓아올린 單層築臺이다. 그러나 그 意趣(뜻과 趣向)는 같은 것이다.

石壇 중앙부, 左端 쪽 崩壞된 부분이 中門 앞 階段의 廢址이고 그 위가 中門址이며, 그 뒤가 三層石塔이다. 또 그 뒤로 金堂址, 講堂址이다.

기단(石築)을 構築하는 석재는 거대하고 높다. 背後의 산은 建登山이라고 하나 옛날에는 靈鳳山이라 했던 것 같다.

높은 거석의 축대 중앙부에 中門이 높게 솟아 兩端에서 步廊이 길게 뻗어서 圓柱가 羅列되어 있었을 것이다. 옛날에는 매우 壯麗한 것이었을 것이다.

● 三層石塔

中心廓 중앙부에 孤立하는 3층 塔婆이다. 二重基壇上에 삼층을 重疊한 석탑으로서 下層基壇은 낮고 上層基壇은 높다. 面石에는 各面 共히 3具의 眼象을

刻出하고, 상층기단은 各面 共히 柱形으로서 2具씩 구분되어 있다. 塔身은 상층기단의 탑신괴임 위에 섰고 (塔身)四隅에는 柱形을, 정면에는 扉形을 刻出하고 그 위에 屋蓋를 올렸다. 옥개처마 밑에는 4단의 逆階段式 옥개받침이 있다.

三層의 탑신, 옥개는 下層의 것과 같으나 키가 낮고 조금 작을 뿐이며 그 형식은 初層과 같다. 露盤 이상은 지금 缺失되어 없다. 전체적인 자태는 溫和하며 各部의 均衡이 輕快하며 重厚하지 않다. 線이 가늘게 느껴지는 것이다.

● 眞空大師塔碑의 一部

碑身이 없고 螭首와 龜趺가 포개어져 있다. 비신은 파손되었으나 지금 總督府博物館에서 保存하고 있다. 碑文은 고려 태조의 撰文이고 唐太宗의 글씨를 集字한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어느 시기인지 모르나 원주군청에 운반되어 있었다. 大正 初에 金石總覽을 편찬할 때 군청의 창고 속에서 끌어내어 京城으로 옮겼으나 귀부와 이수만은 여전히 廢寺의 現位置에 방치되어 있다.

龜趺는 地臺石과 함께 거대한 一石에서 刻出된 것이다. 面相은 怪奇하고 口中에 玉을 물었으며 목은 짧고 머리 위는 扁平하다. 龜甲紋 안에는 華紋 및 卍字文을 조각하고 龜背 중앙부에 刻出된 碑身座 측면에는 彫出된 眼象의 모습이 古調를 띠며 내부에 강하게 浮彫된 寶相華紋도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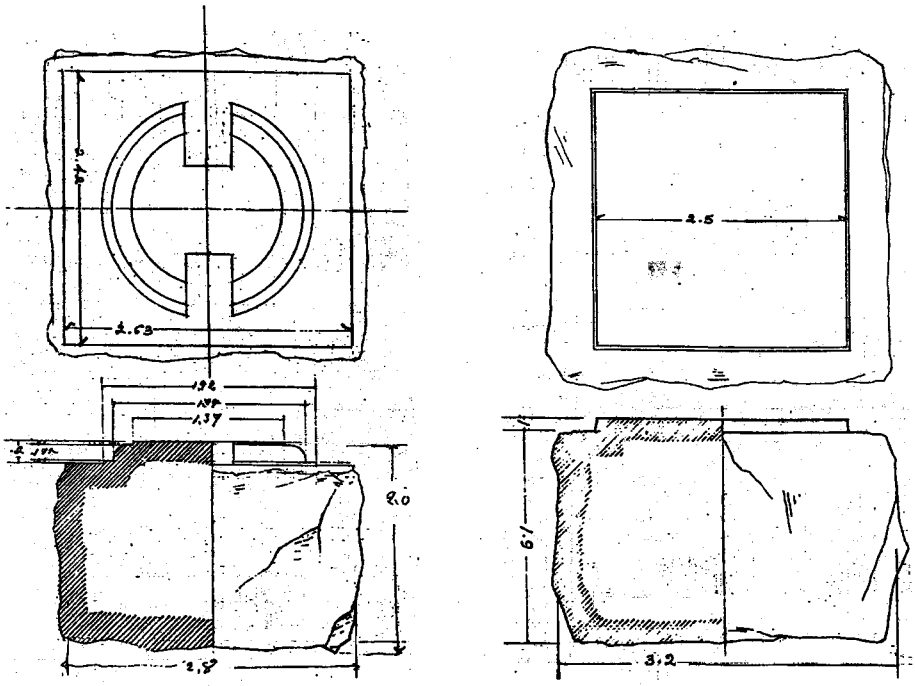
雲紋 中에 蟠居하는 龍을 刻出한 螭首도 巧妙하고 四隅에 가슴을 내밀어 목을 치켜 든 모습도 의미가 있다. 정면 중앙에는 대칭되는 雙龍과 雲紋으로 篆額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그 안에 篆書로 眞空大師라는 넉자를 陰刻하였다. 이것도 唐太宗의 筆跡일 것이다. 아깝게도 頂部의 寶珠를 잃고 있다.

전체적인 형식은 新羅式을 계승한 것으로 高麗 특유의 기분은 조금도 아직 表顯되지 않은 것 같다.

● 興法寺址 柱礎

方形의 礎石은 金堂址 근처에 散在하는 것의 하나로서 아마도 금당의 柱礎였을 것이다. 크기는 方 3尺 2寸~3尺 3寸, 두께 2尺 정도의 花崗石을 切取하여 上面만을 잔다듬질 하여 方 2尺 3寸, 높이 1寸의 方座를 刻出하고 있다.

이 礎石은 자연석 초석 다음으로 加工이 簡單하기 때문에 옛부터 後世까지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제작년대의 추정은 어려우나 新羅後期를 즈음하여 제작



礎石遺構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주초와 同形·同質의 것으로 크기가 조금 小型인 초석이 有存하고 있다. 본 사찰의 小建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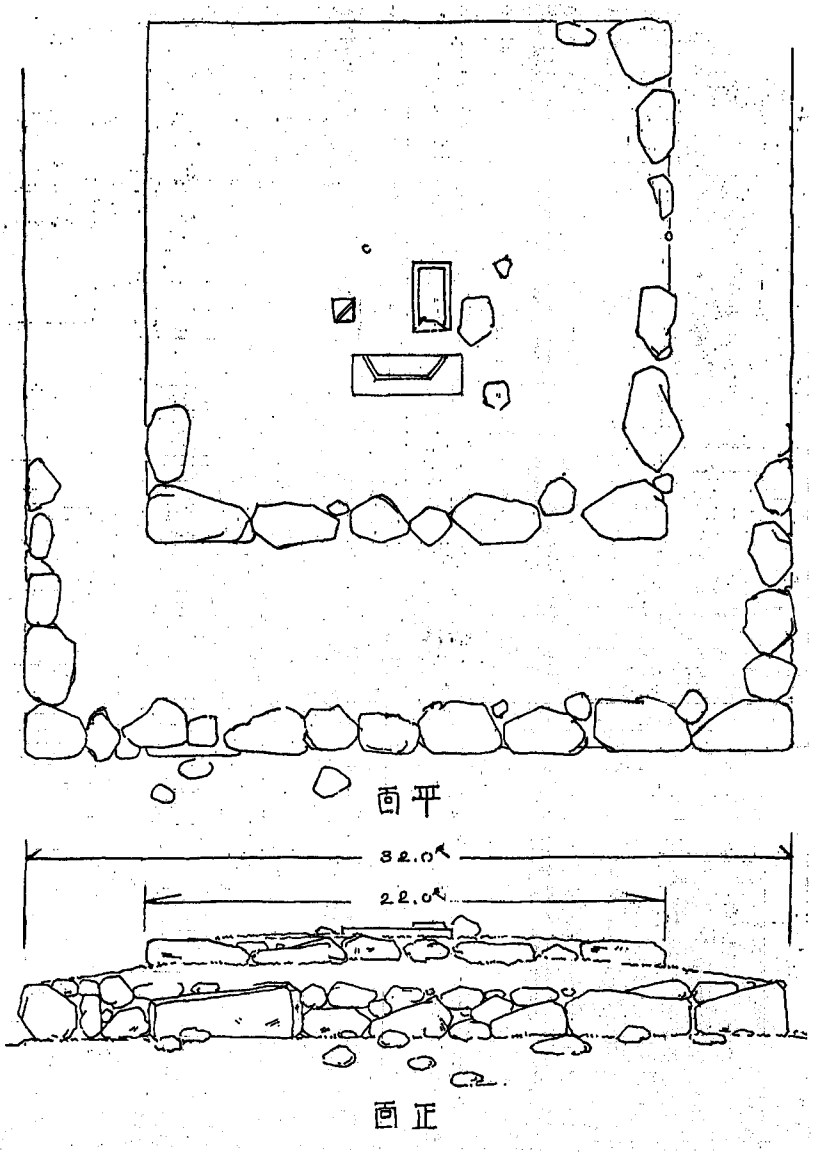
圓形柱座礎石은 講堂址 背後의 積石 위 高臺에 각종 초석과 함께 混在했던 것의 하나로 아마도 後世에 재사용할 때 羅列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方 2尺 8寸, 두께 2尺 정도로 方形의 주초 상면에 다시 圓形彫出 柱座를 重複시킨 것이다. 이 2단의 几帳面(기둥 모죽임의 형식으로 깎은 것을 말함) 孤形 깎음한 圓形柱座는 新羅統一期에 즐겨 제작되었던 형식으로서 手法으로 볼 때 羅代의 제작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圓形柱座 兩端의 깎아낸 부분은 後世에 재사용할 때의 工作이라고 推考된다.

● 眞空大師 浮屠址(墓塔址)

이 遺墟는 興法寺址 金堂의 西北 3町 쯤 山麓 경사면에 巨石을 뒤에 받치고 그 앞에 축조된 것이다. 옆으로 길게 山石이 石列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眞空大師墓塔의 전면기단이 崩壞된 狀況이다. 二重基壇으로 하층기단은 높이 約 3尺, 幅 32尺의 方形이고 상층기단도 역시 높이 約 1尺, 幅 22尺의 方形壇이

다. 상층기단의 중앙에 묘탑이 건립된 것이었으나 大正 初年度頃에 京城으로 옮겨져 한때 塔洞公園(파고다공원)에 있었다가 昭和 6年(1931) 總督府博物館 마당으로 移建된 것이다.

● 眞空大師墓塔址 廢墟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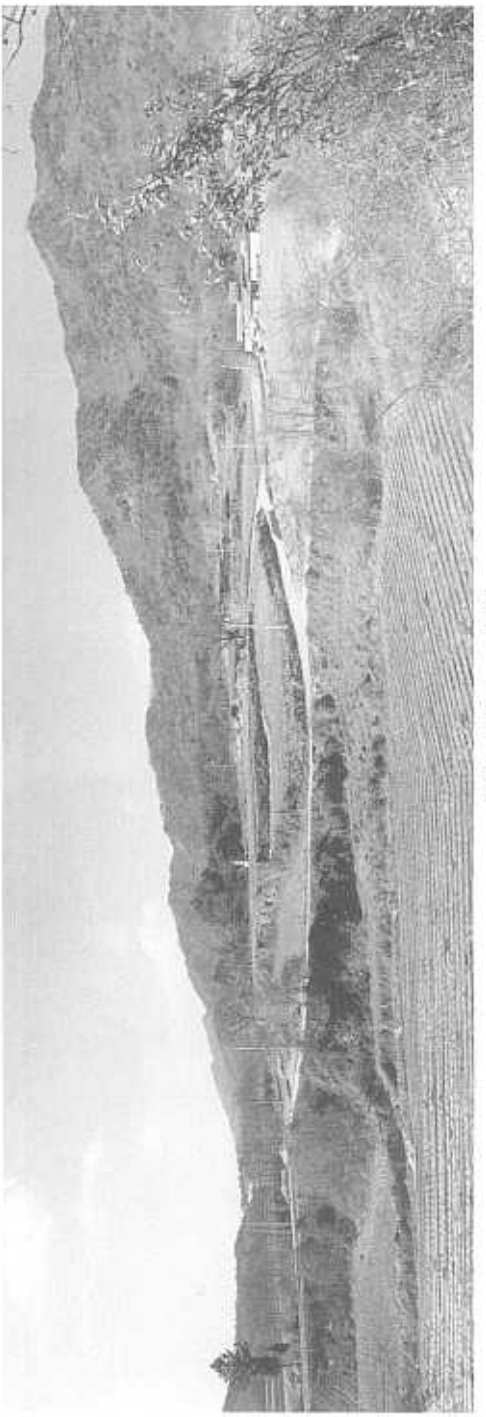
眞空大師墓塔址

眞空大師 墓塔을 移轉한 터에 남아있던 石棺 等 기타석물이 墓塔基壇 중앙부의 파내어 구덩이가 된 곳에 남아 있었다. 석관은 일부 파손되고 蓋石은 缺失되었다. 그것은 이 廢墟에서 數町 떨어진 小部落에 있는 小溝의 다리로 사용하기 위해 운반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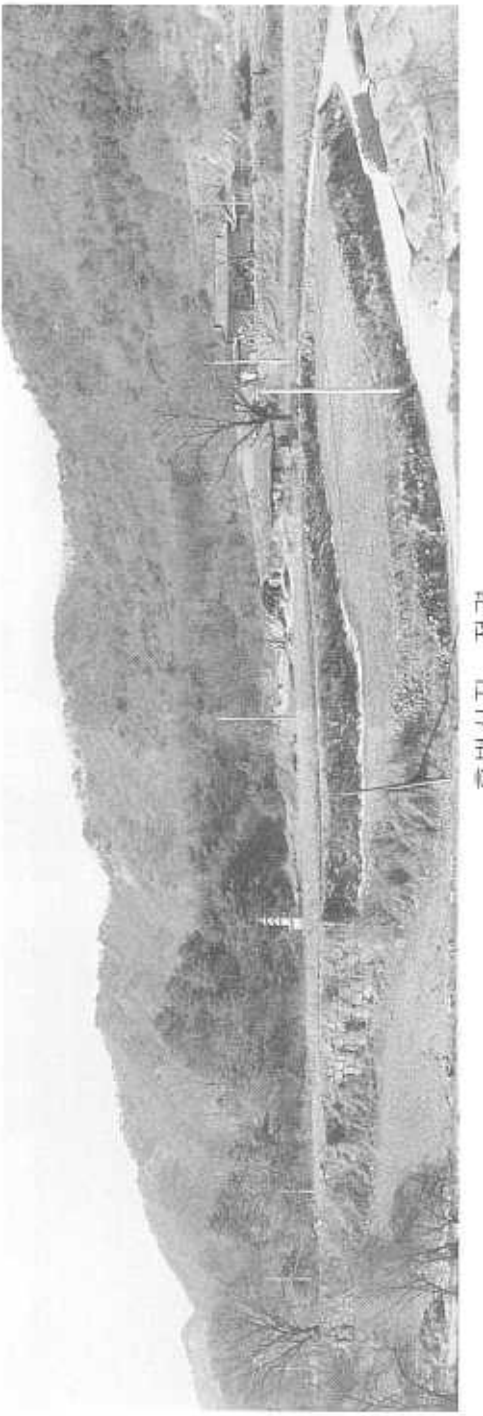
처음 파고다 공원에서 廉居和尙의 墓塔과 眞空大師墓塔을 박물관으로 移轉하려고 할 때 살펴보니 兩 墓塔 共히 맨 아래쪽의 地臺石을 缺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훌륭한 묘탑이 지대석을 잃은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이들 묘탑을 原州에서 京城으로 운반한 당시의 관계자에게 問議하였다. 그런데 그 대답은 廉居和尙墓塔의 地臺石은 너무 커서 운반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부의 塔石만 가지고 왔다고 하였고 지대석은 現場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모처럼 박물관에 移建하는 경우이기에 地臺石을 가지고 와서 完全하게 할 필요를 認定하여 興法寺址 調査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廉居和尙墓塔의 지대석으로 보이는 것을 찾지 못하고 그 舊位置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眞空大師塔址와 石棺과 묘탑의 地臺石 一部를 발견하여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板石 上面에 八角形의 일부를 刻出한 것이 현장에 남아있던 지대석의 一片이었다. 이 지대석은 廉居和尙塔의 크기에 一致하지 않고 眞空大師塔과 그 크기가 一致하였으며 石棺의 하부에 陰刻되어 있는 眼象의 모습 또한 진공대사탑의 안상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 廢墟의 殘石들이 廉居和尙塔의 것이 아니고 眞空大師塔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뜻밖이었다.

黑白寫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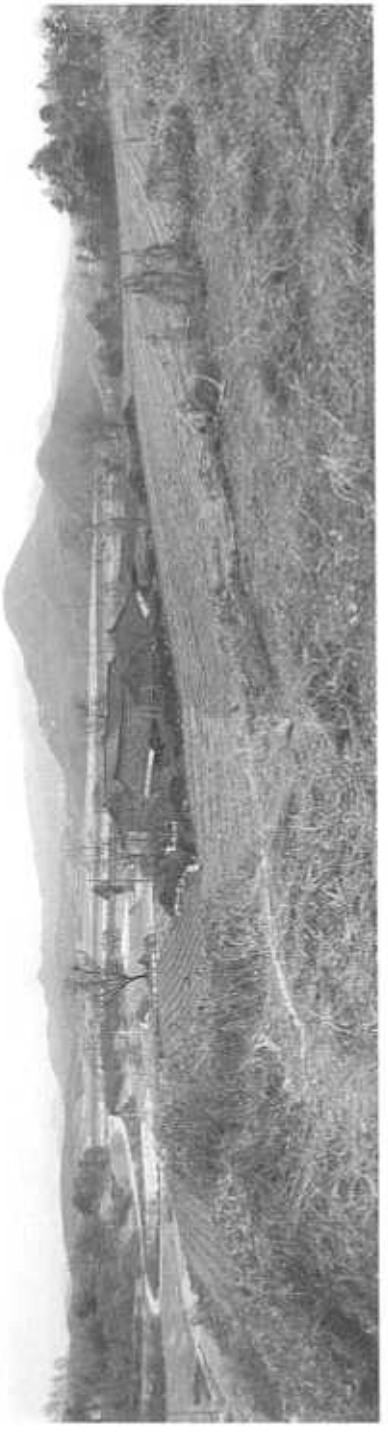
충남 삽지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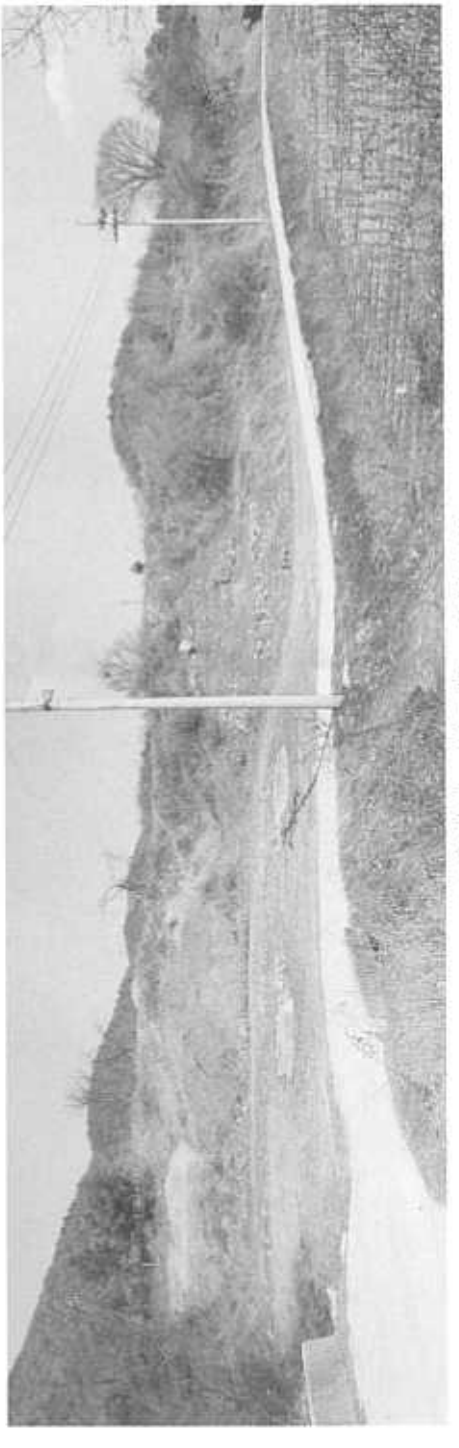
충남 삽지 전경

흥법사지 중심곽 전경

흥법사지 중심곽 후반부 현황



후면쪽에서 바라본 흥법사지



남측에서 바라본 흥법사지

흥법사지 전면석축

전면석축 붕괴된 모습

석축 축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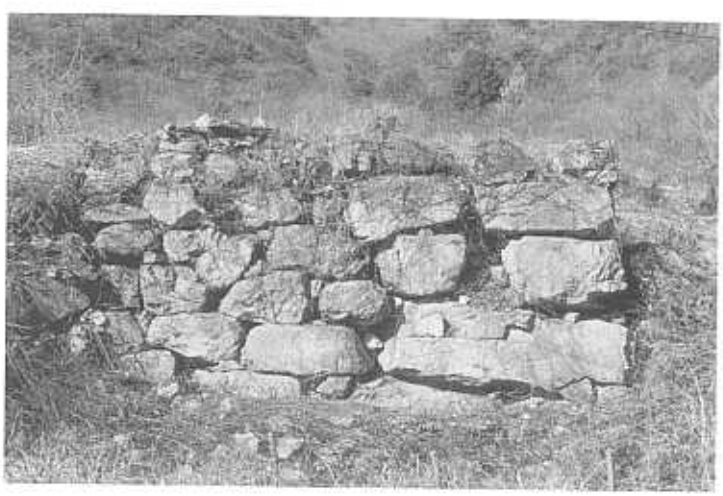
사지 남단부
석축모서리

사지 남단부
잔존석축(동측)

사지 남단부
잔존석축(남측)

중심곽 상단부
석축현황

민가내 돌담장



상단부 석축
잔존부위

진공대사탑 및 석관

진공대사탑 (동면)

진공대사탑 (남면)

진공대사탑
기단부(동면)

진공대사탑 중대석

진공대사탑 하대석

진공대사탑
기단부(남면)

진공대사탑
지대석 · 하대석

진공대사탑
기단부(북면)

진공대사탑 (남동우)

진공대사탑 상부

진공대사탑 옥개석(귀꽃)

진공대사탑 탑신석 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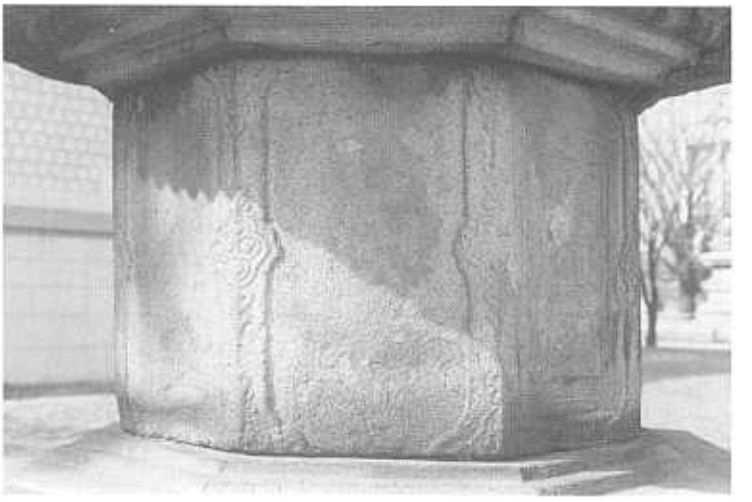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옥개석 처마밑

진공대사탑
탑신석 및 옥개석

진공대사탑
탑신석(동면)

진공대사탑 상대석

진공대사탑 중대석



진공대사탑 탑신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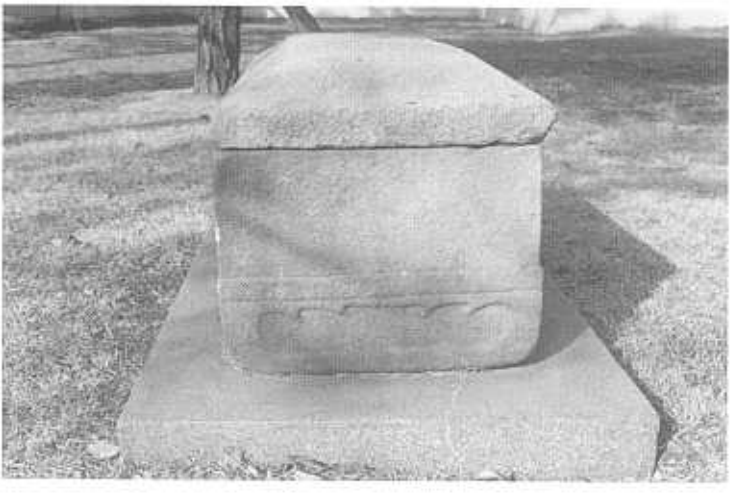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옥개석

진공대사탑
옥개석 상부

진공대사탑 보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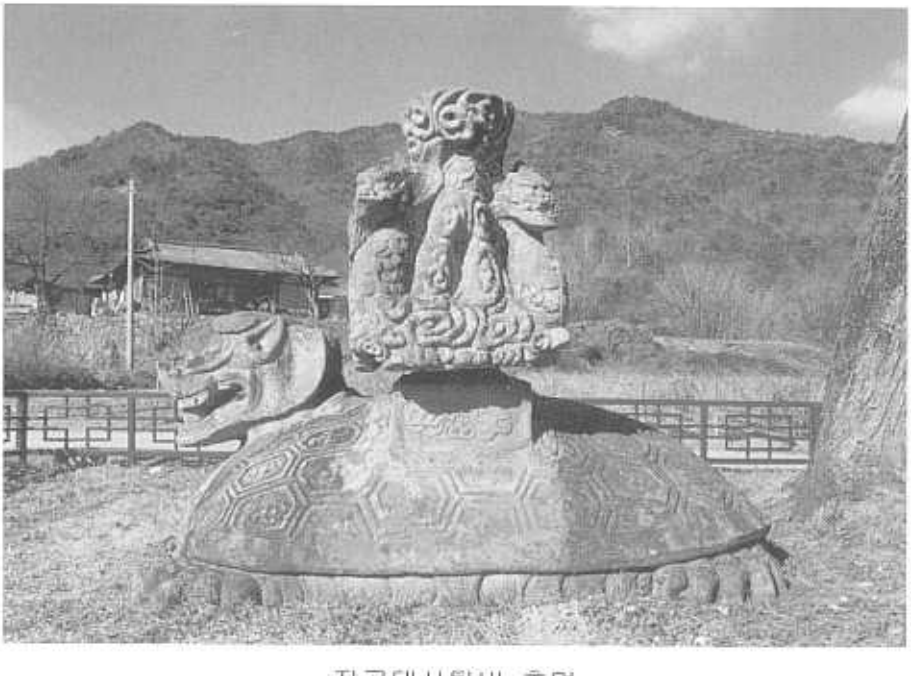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부(附) 석관

석관 정면



석관 측면

진공대사탑비 정면



진공대사탑비 측면

탑비 거북머리

탑비 귀부 좌측

탑비 이수의 전액

탑비 이수 측면

탑비 근경

탑비 배면

탑비 배면 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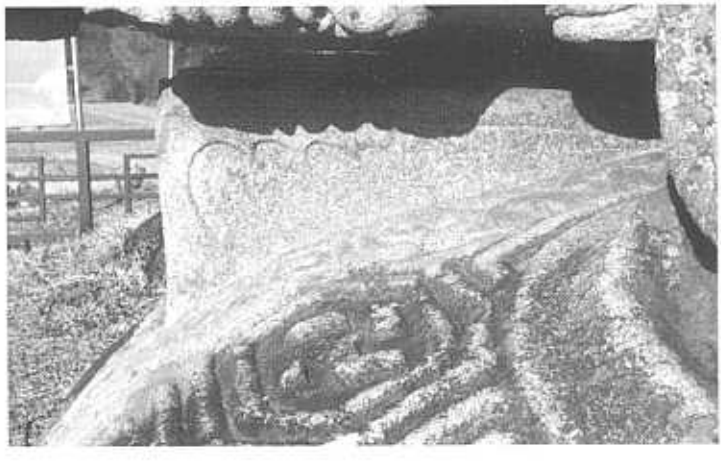
탑비 귀부

탑비 귀부(전면쪽)

탑비 귀부(우측)

탑비 귀두(측면)

탑비 귀두(상면)



탑비 비좌 안상

탑비 이수

탑비 이수(정면)

탑비 이수(우측)

삼층석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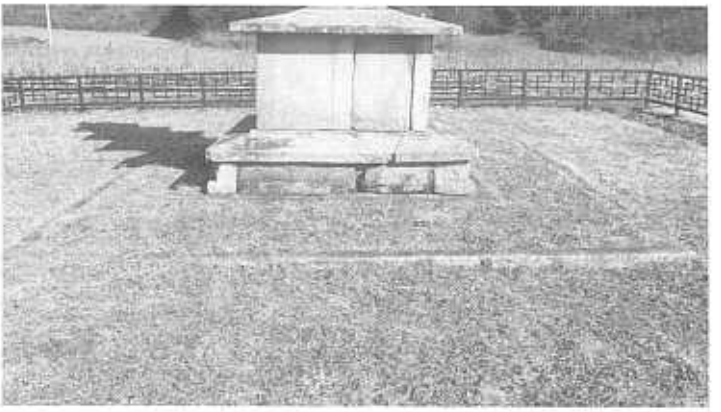
삼층석탑 전경(남동우)

삼층석탑 (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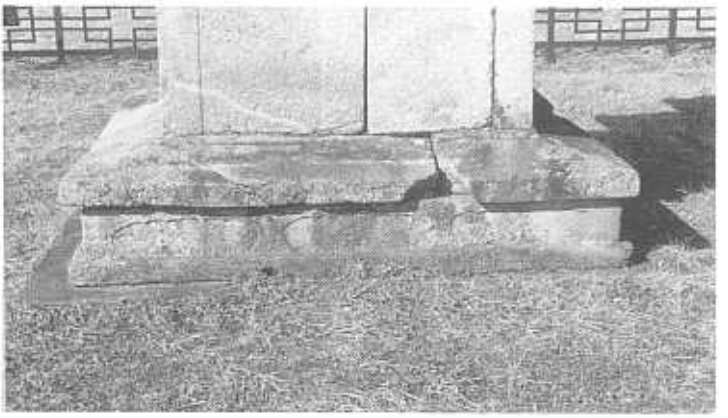
삼층석탑 (서면)

삼층석탑 (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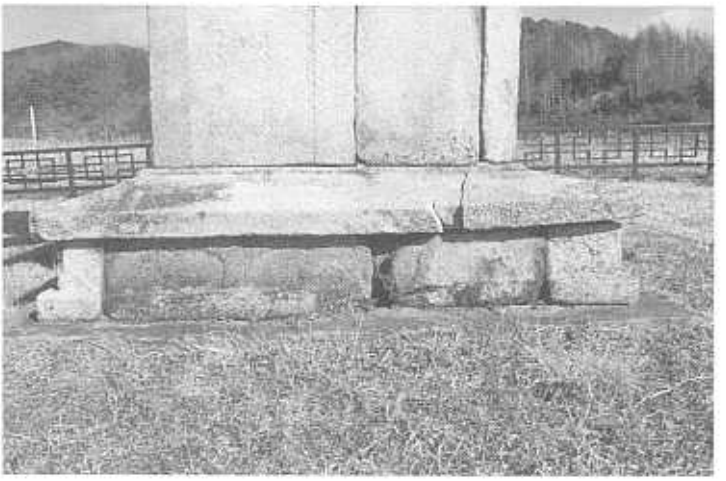
삼층석탑 (북면)



삼층석탑 기단부



삼층석탑
하층기단(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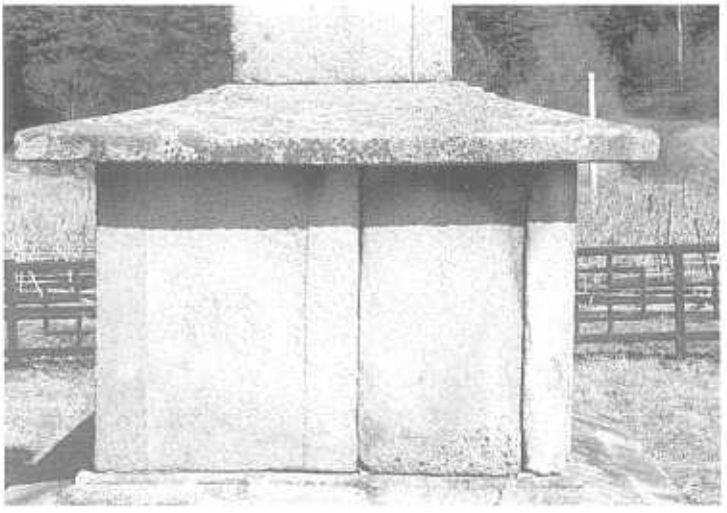
삼층석탑
하층기단(남면)

삼층석탑 (북동우)

삼층석탑 탑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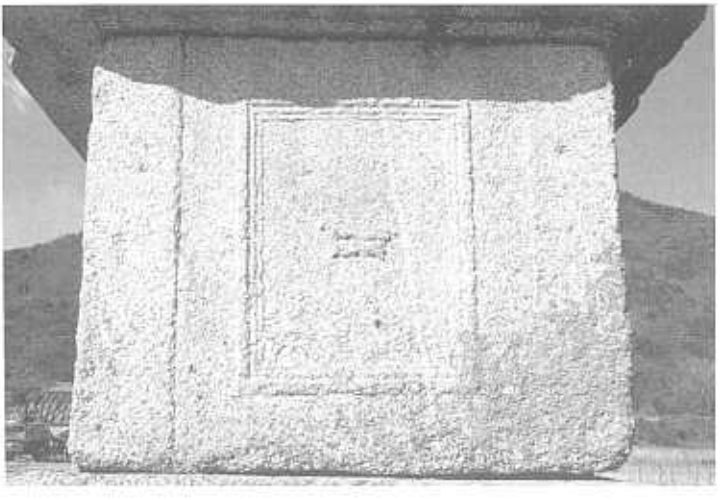
삼층석탑 옥개석

삼층석탑 상부



삼층석탑 상층기단

삼층석탑
1층 탑신부



삼층석탑 1층
탑신석(동면)

삼층석탑 상부

삼층석탑 상륜부

삼층석탑
하대석 안상

석축상단의 초석

초석(1)

초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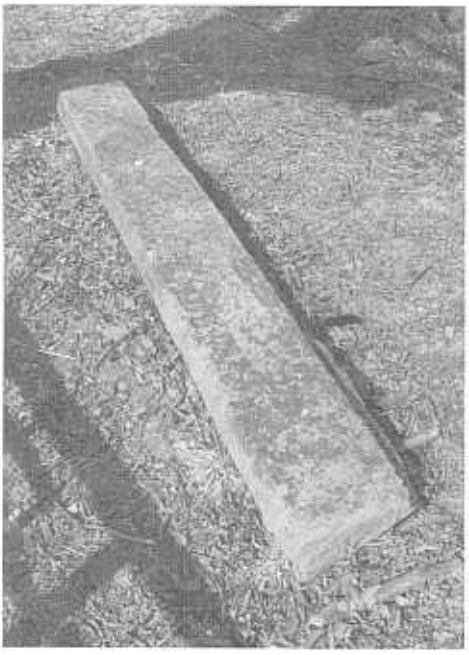
초석(3)

초석(4)

기단 면석

석축상단의 초석

석축상단의 초석



기단 갑석

비석

석등 하대석

석등 하대석

석등 하대석 복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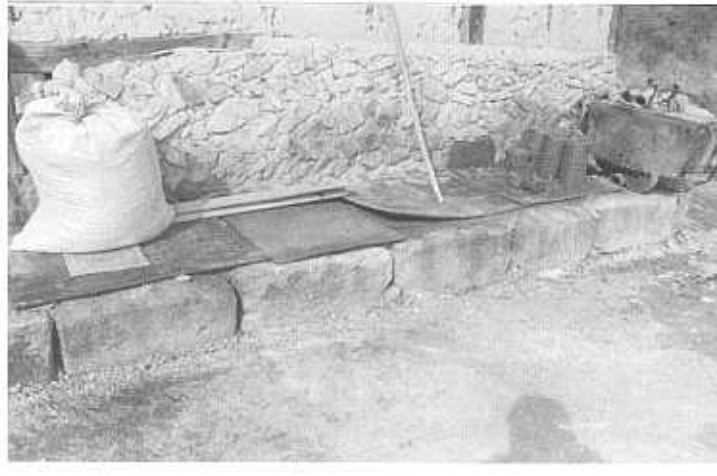
민가에 활용된
기단석

민가 장독대의 석재

민가에 활용된
기단석

민가 장독대의 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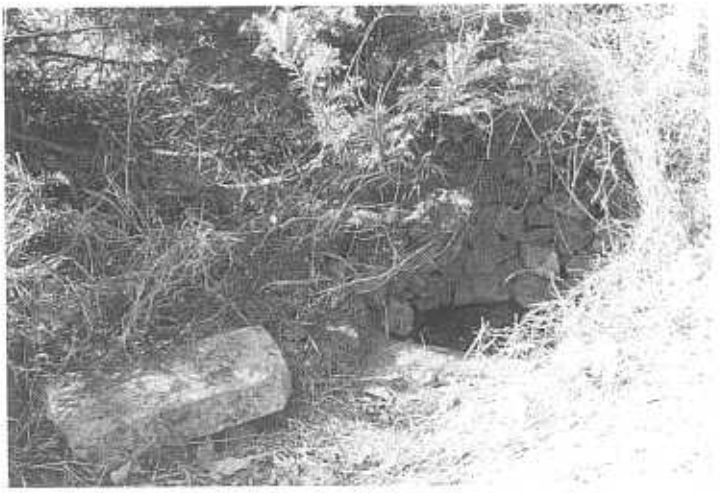
민가에 활용된
기단석



민가에 활용된
기단석

묘탑지 남쪽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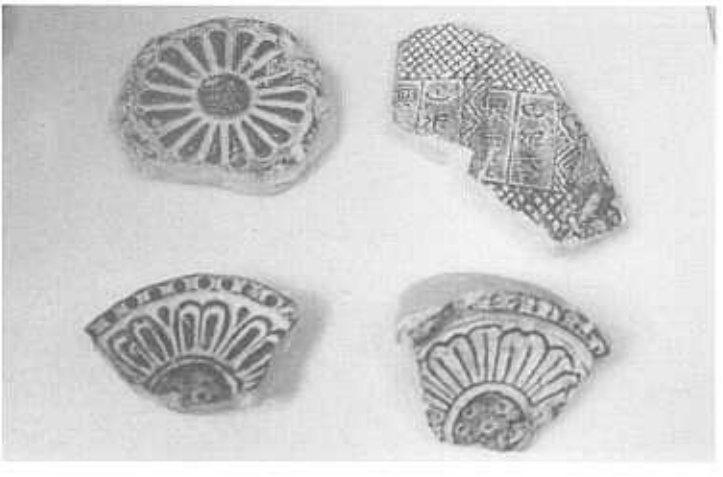
사지 남서쪽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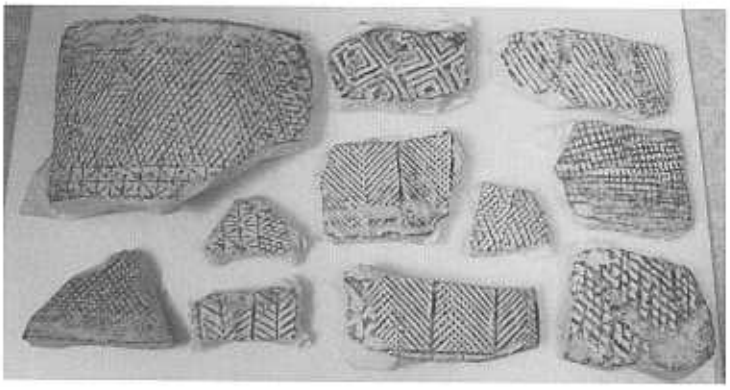
사지 북서쪽 샘

암막새 · 숫막새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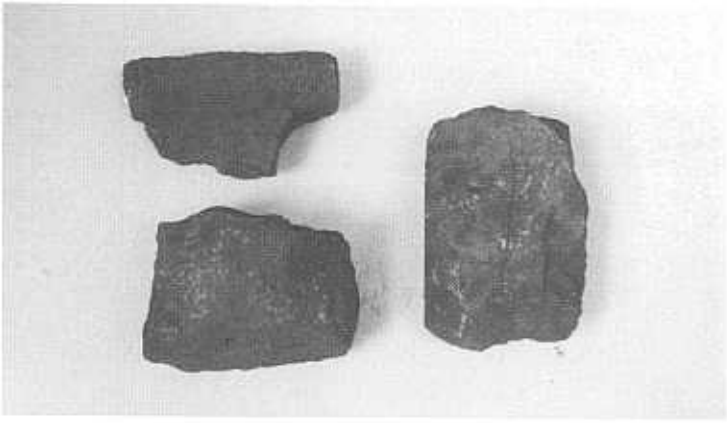
암막새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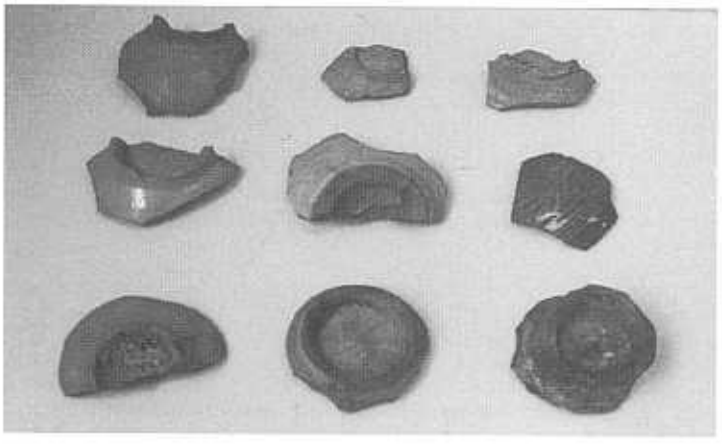
숫막새 문양



기와등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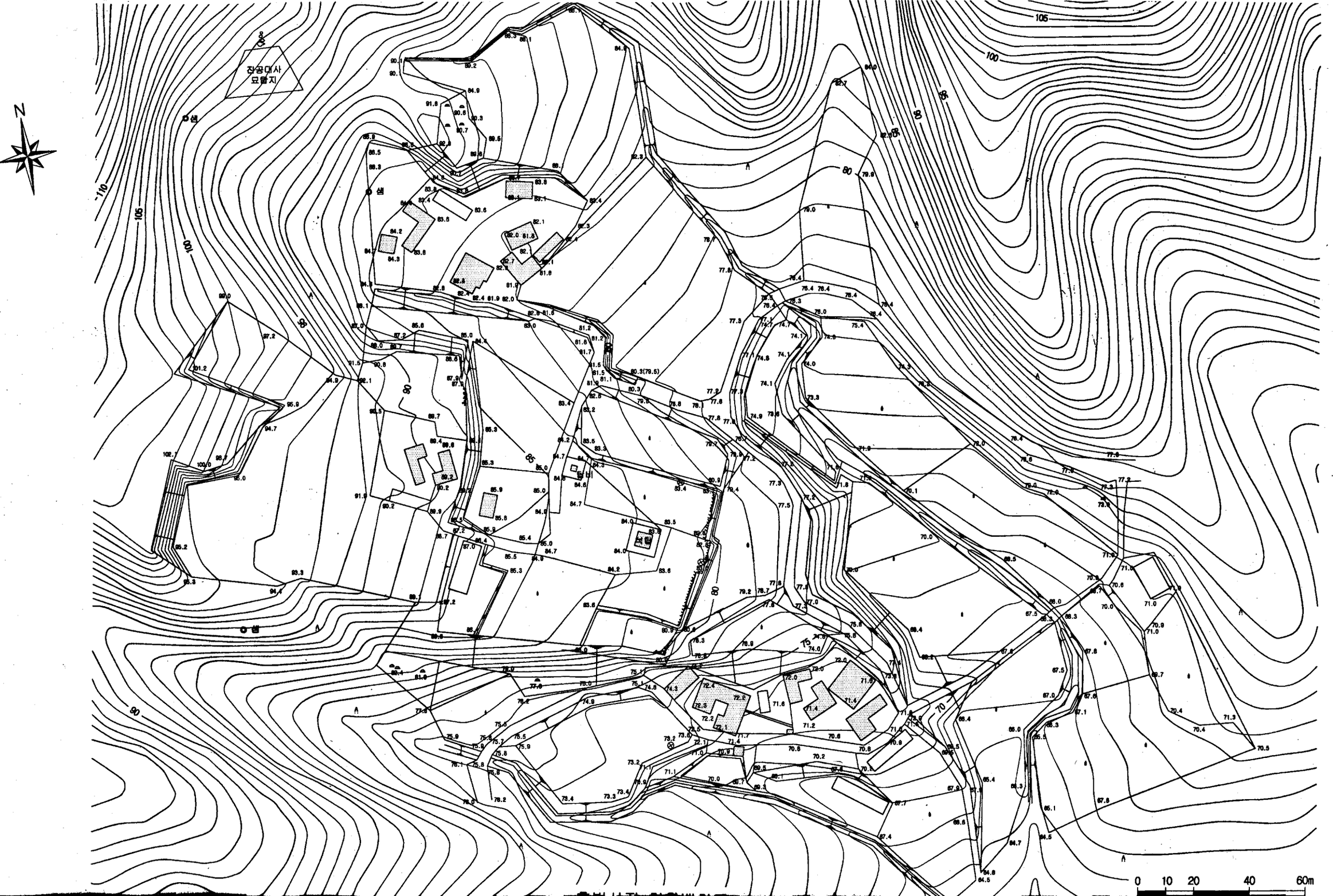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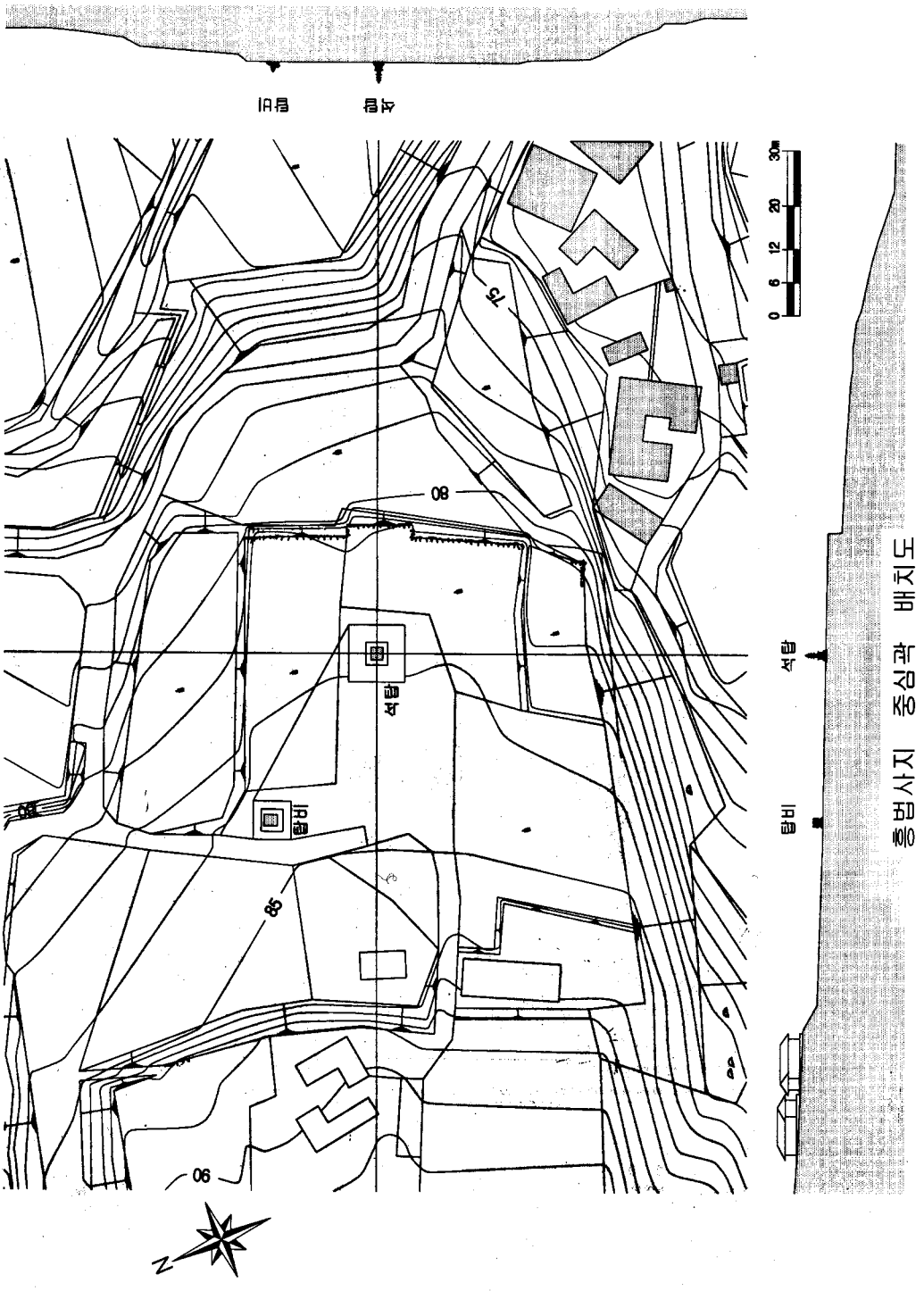
전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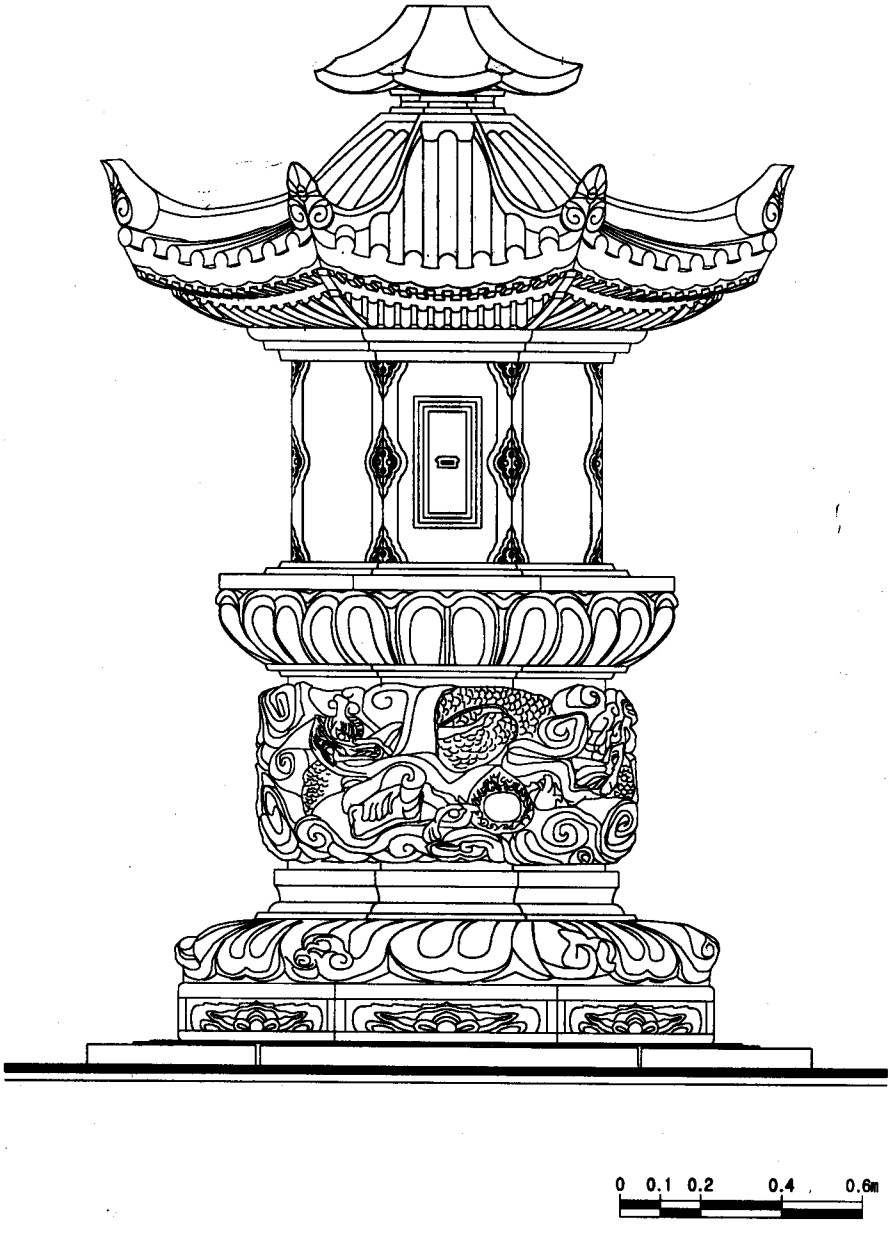
도자기편

圖面圖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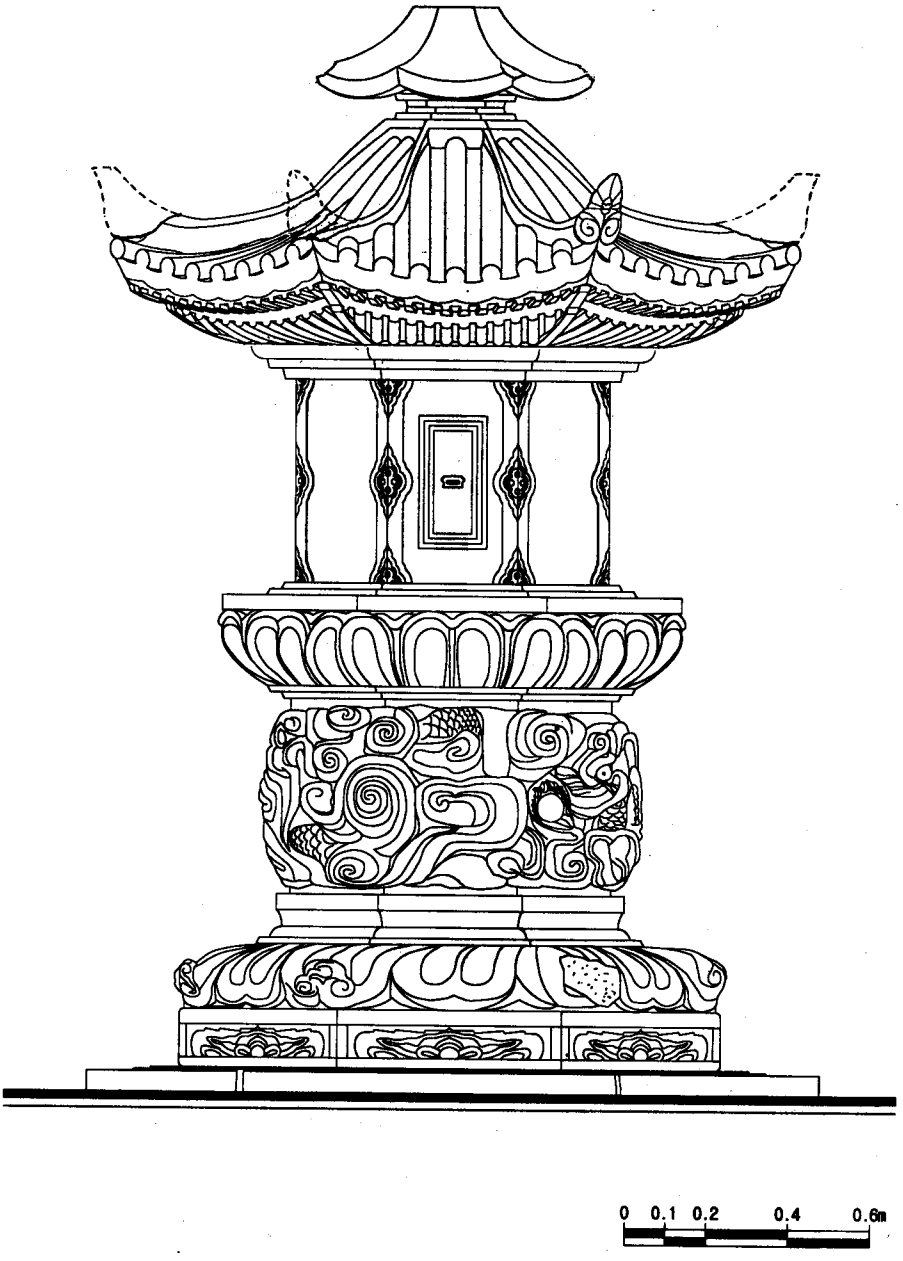

N
장공대사
묘탑지
샘
샘
샘
0 10 20 40 6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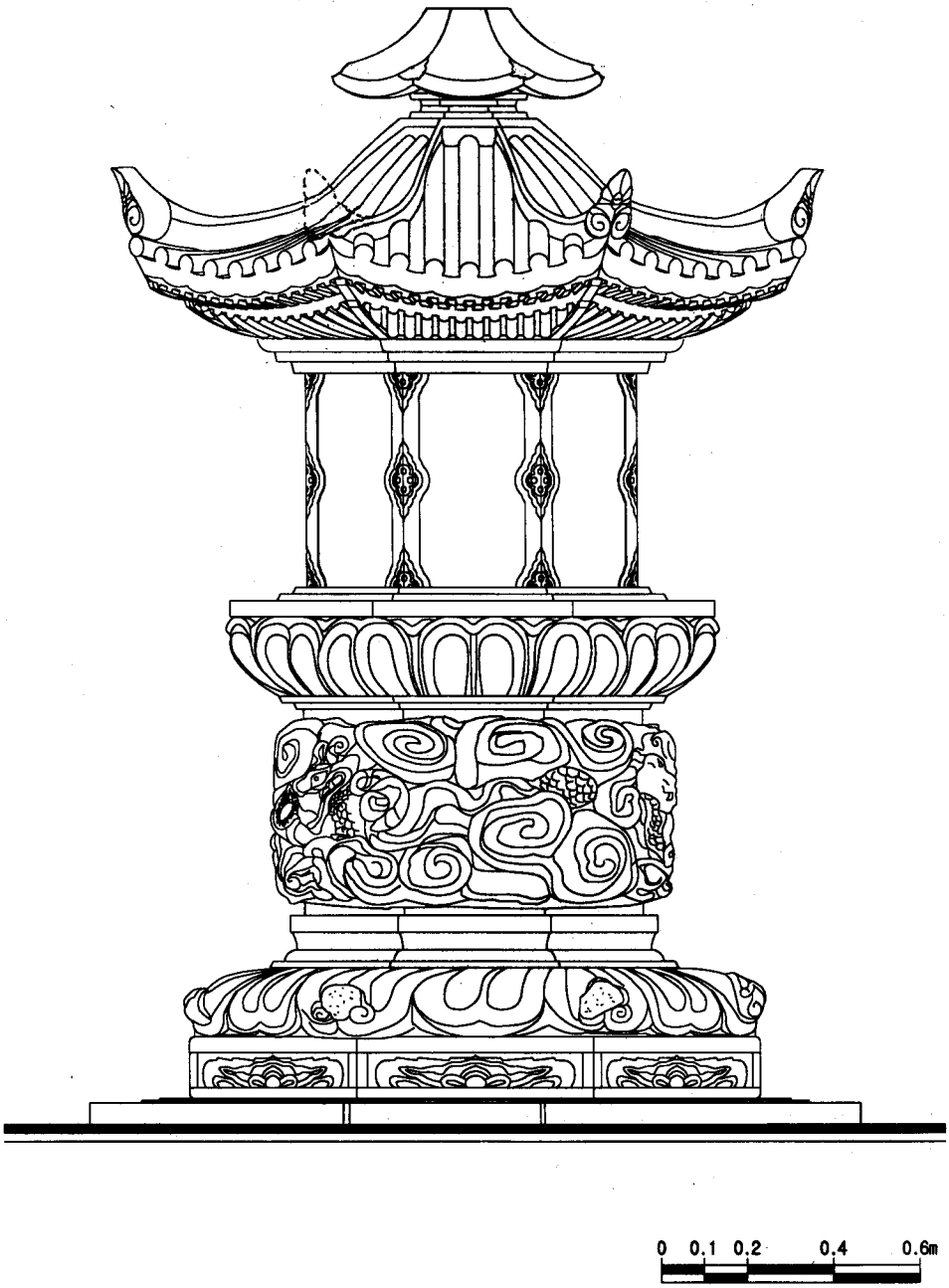
흥법사지 중심곽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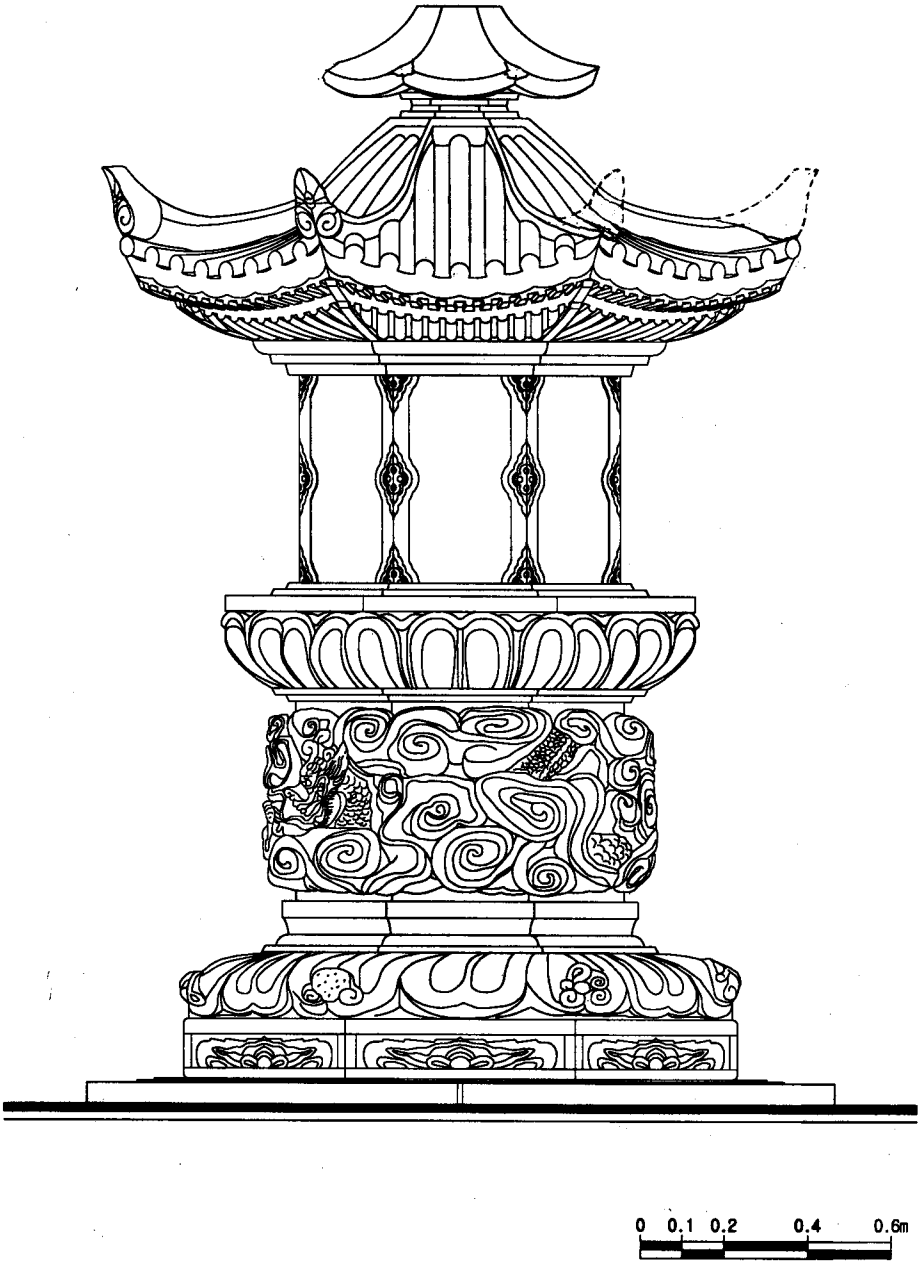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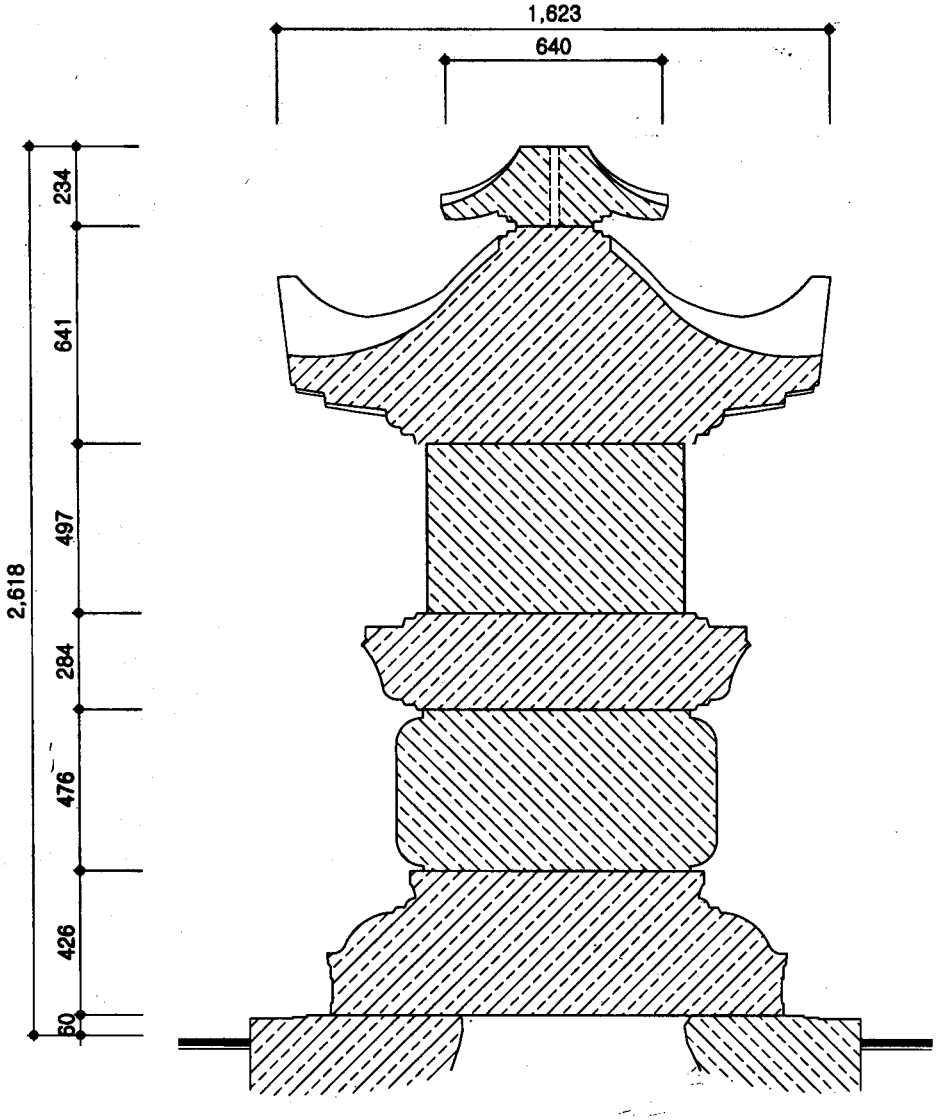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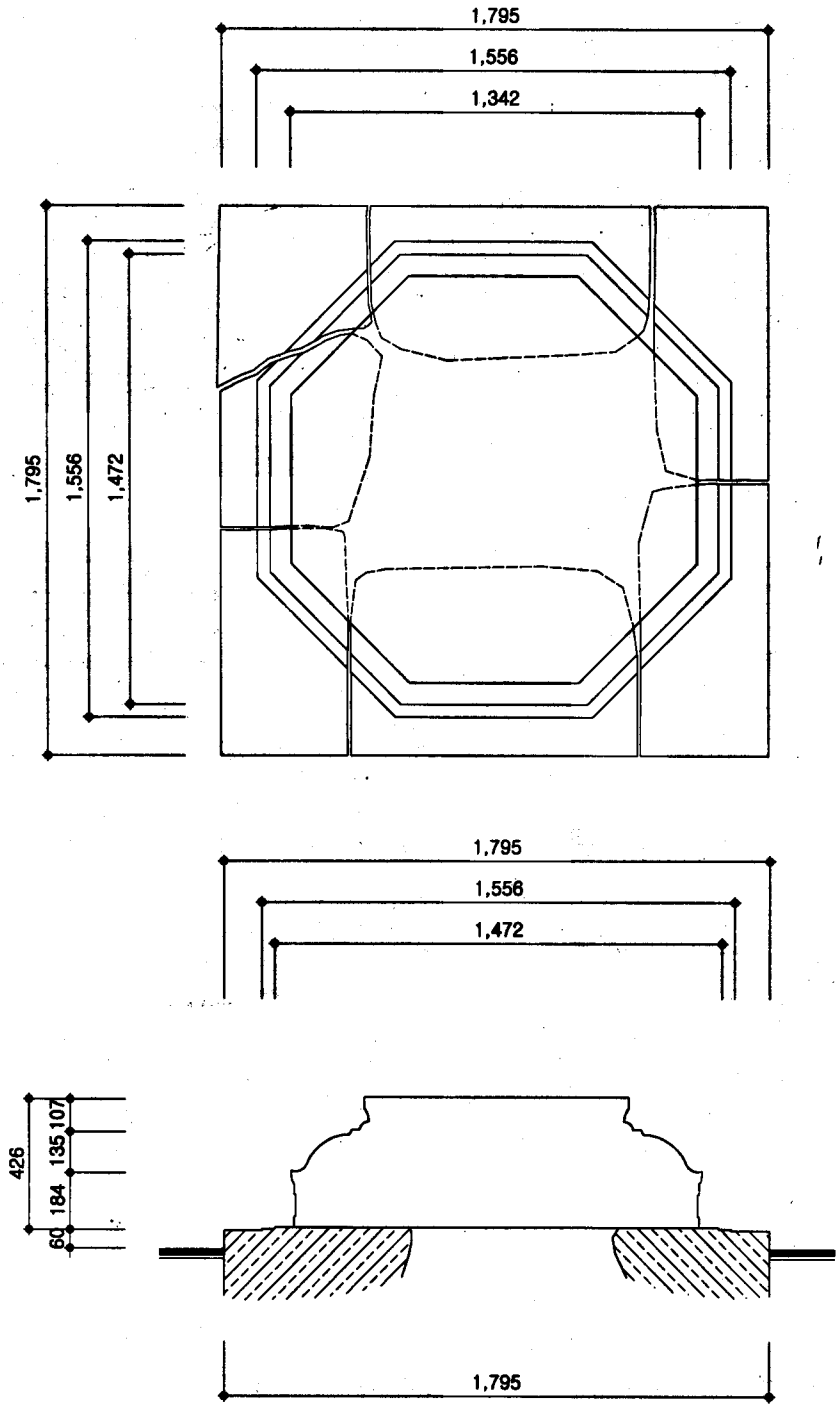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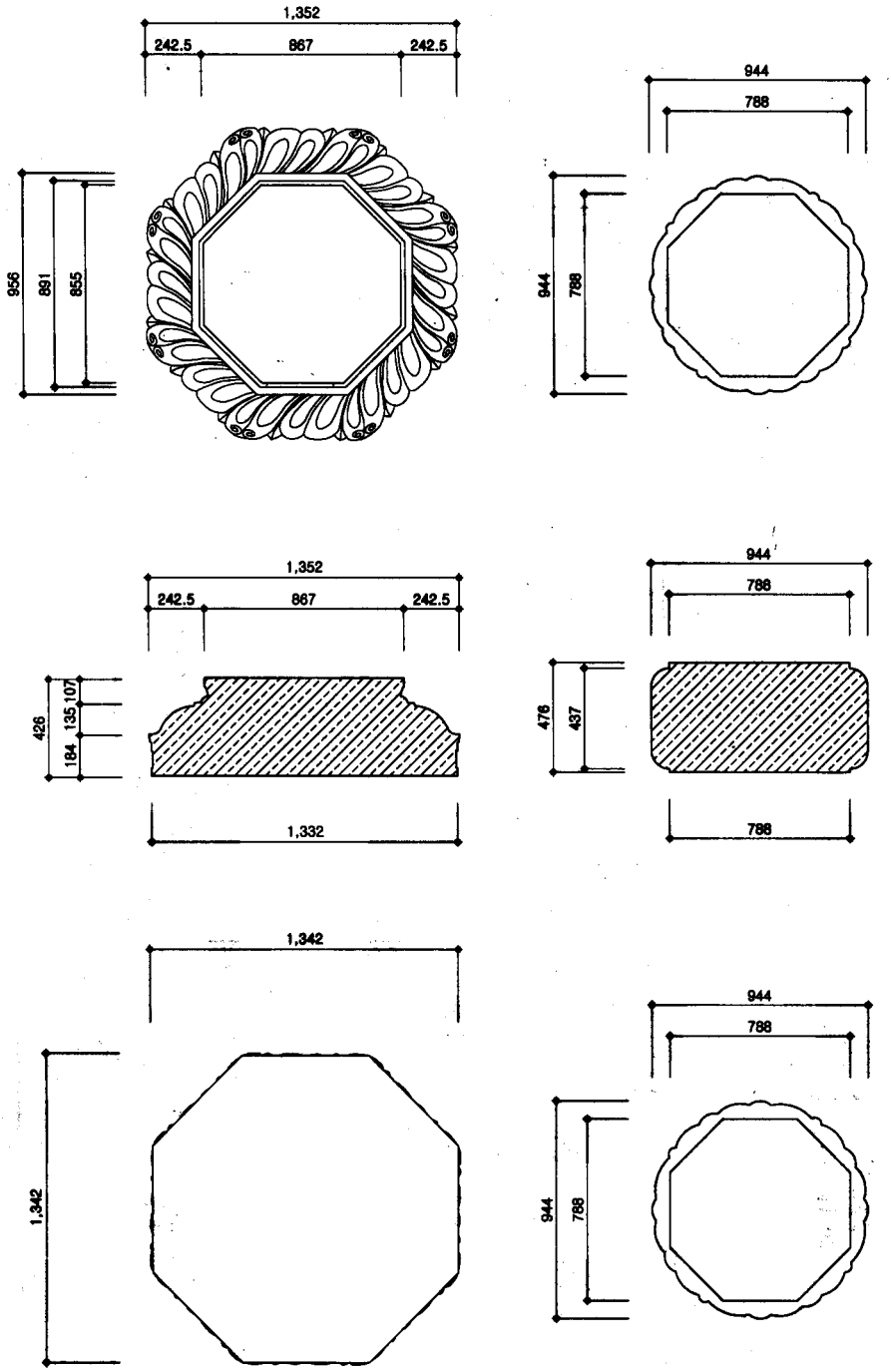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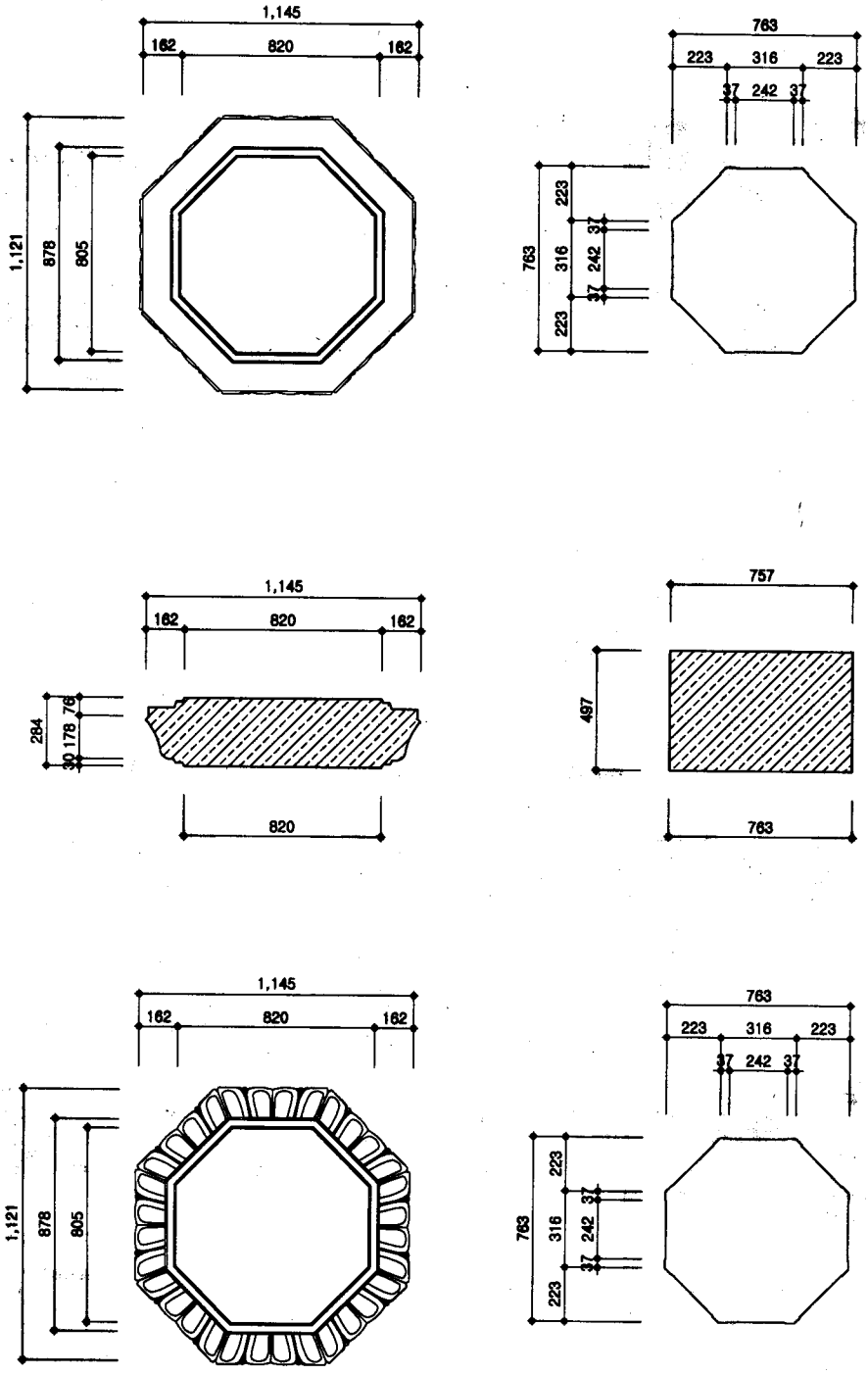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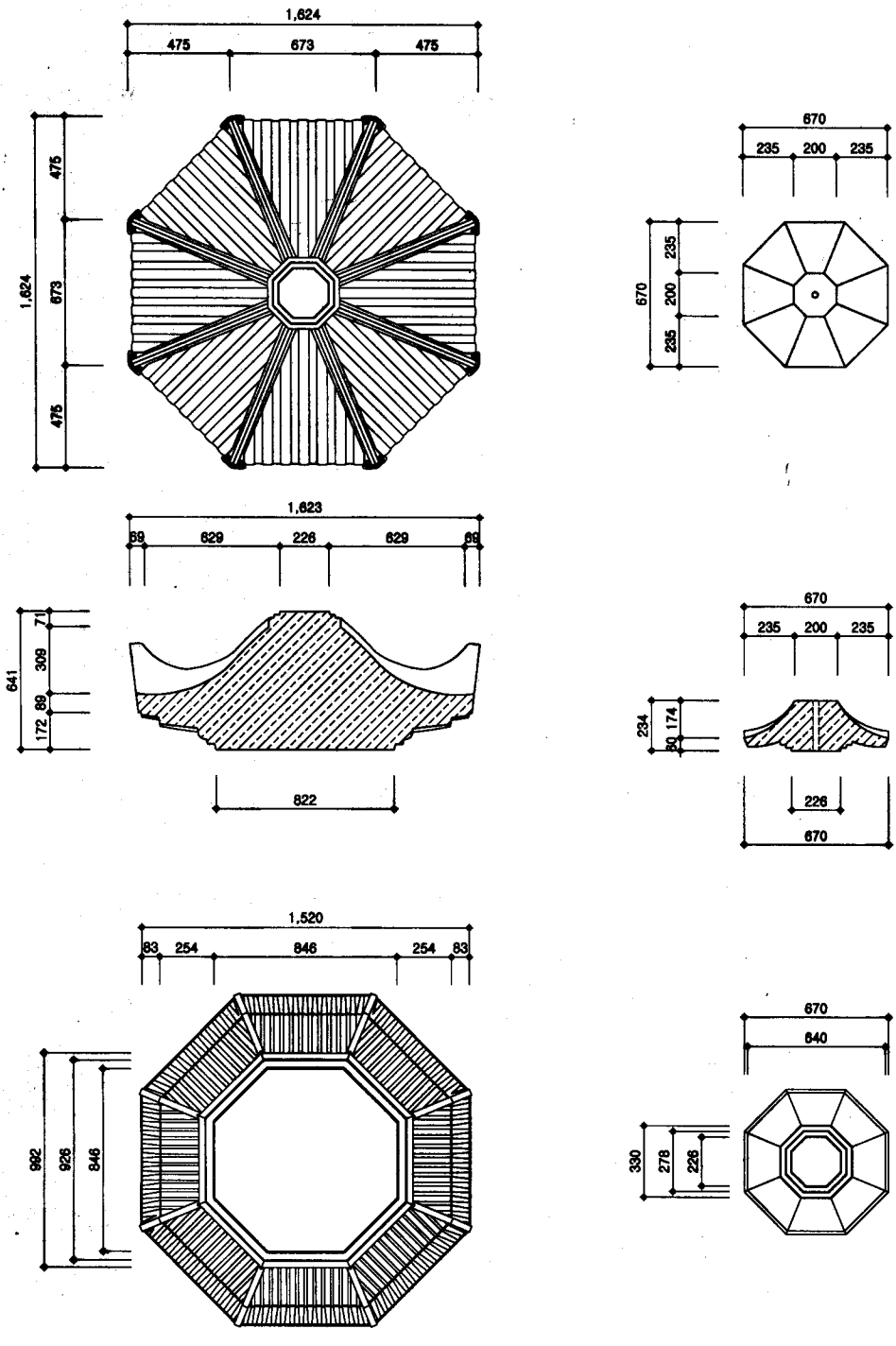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지대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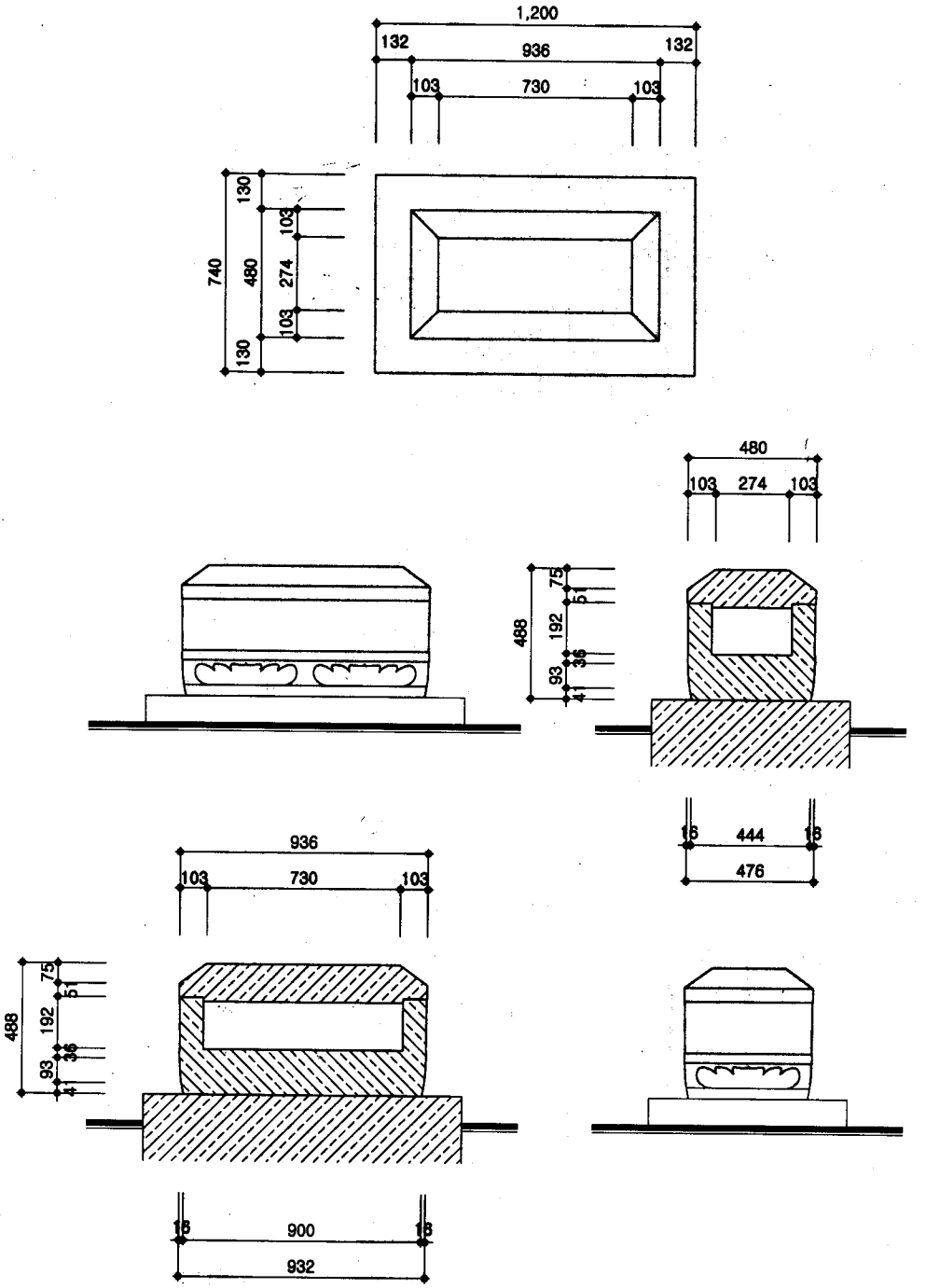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하대석·중대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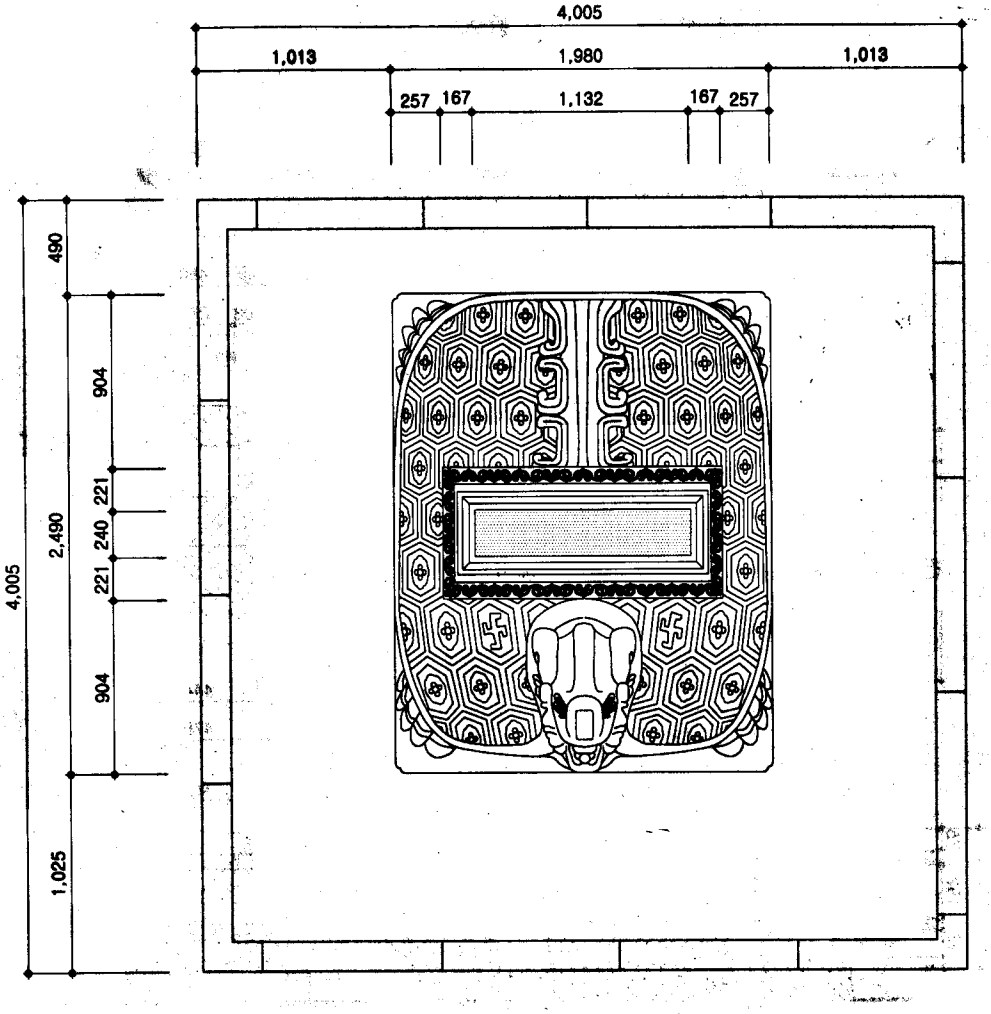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상대석 · 탑신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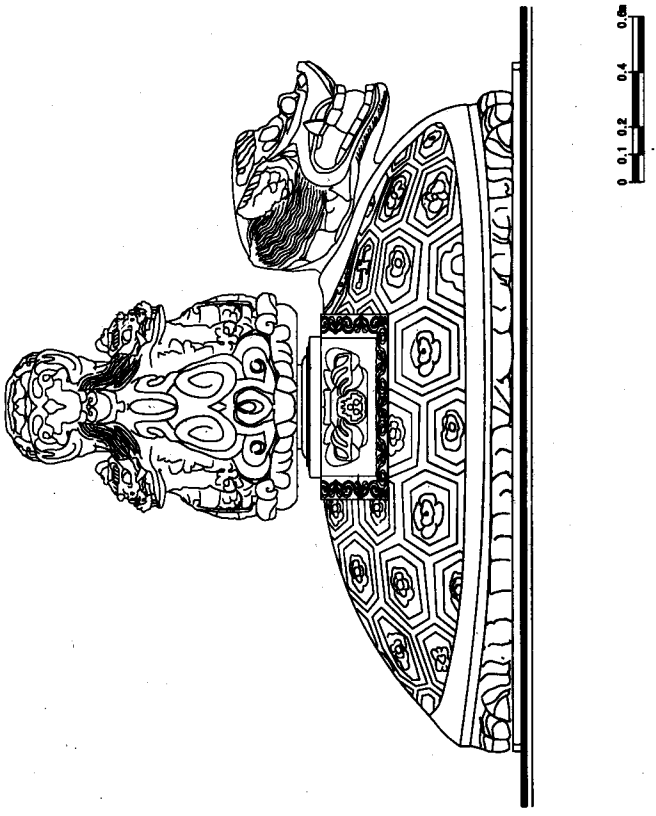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옥개석·보개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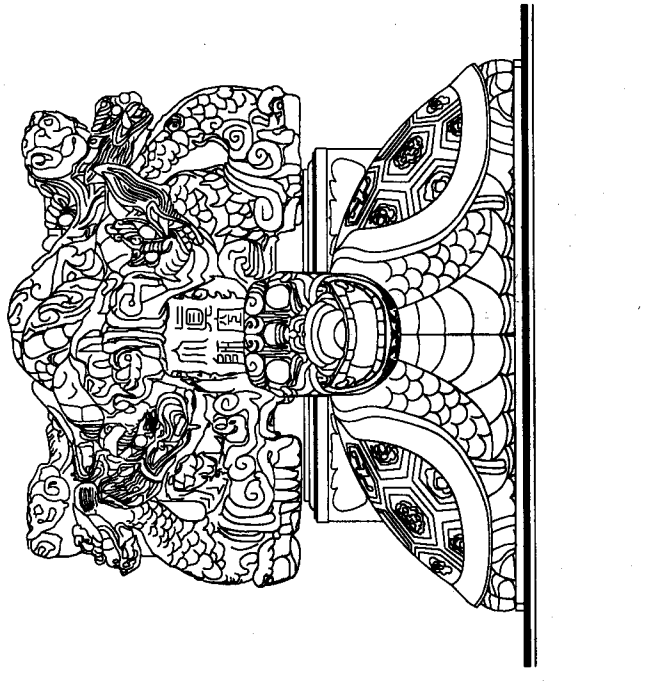


진공대사탑 부(附) 석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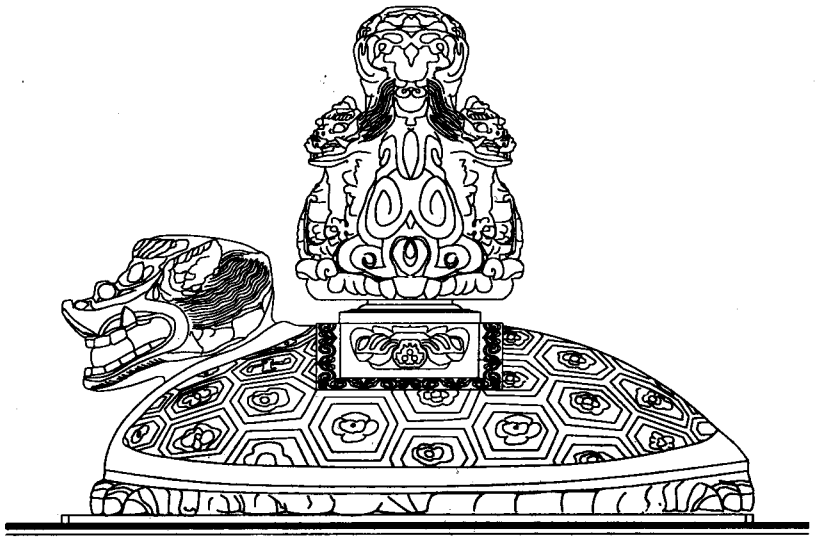

4,005
1,013
1,980
1,013
257
167
1,132
167
257
490
904
221
240
221
904
2,490
4,005
1,025

진공대사탑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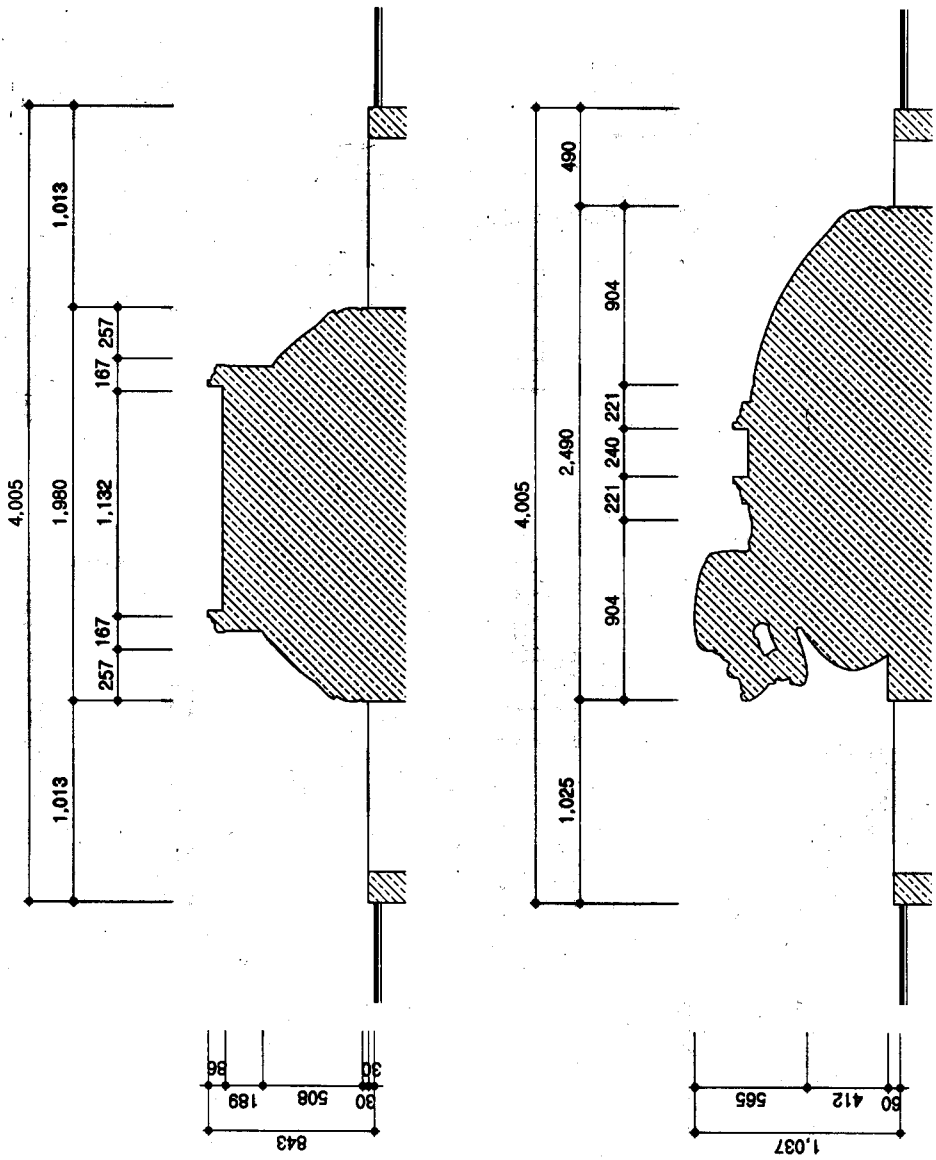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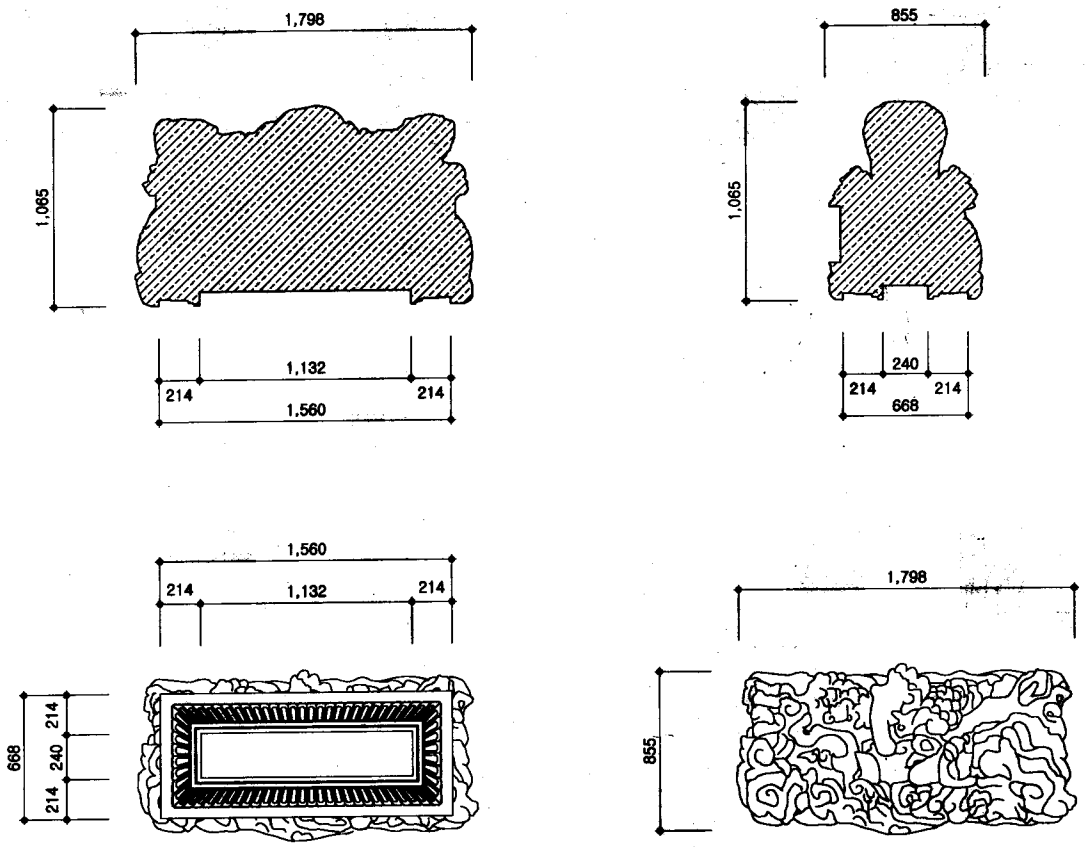
진공대사탑비 정면도 ·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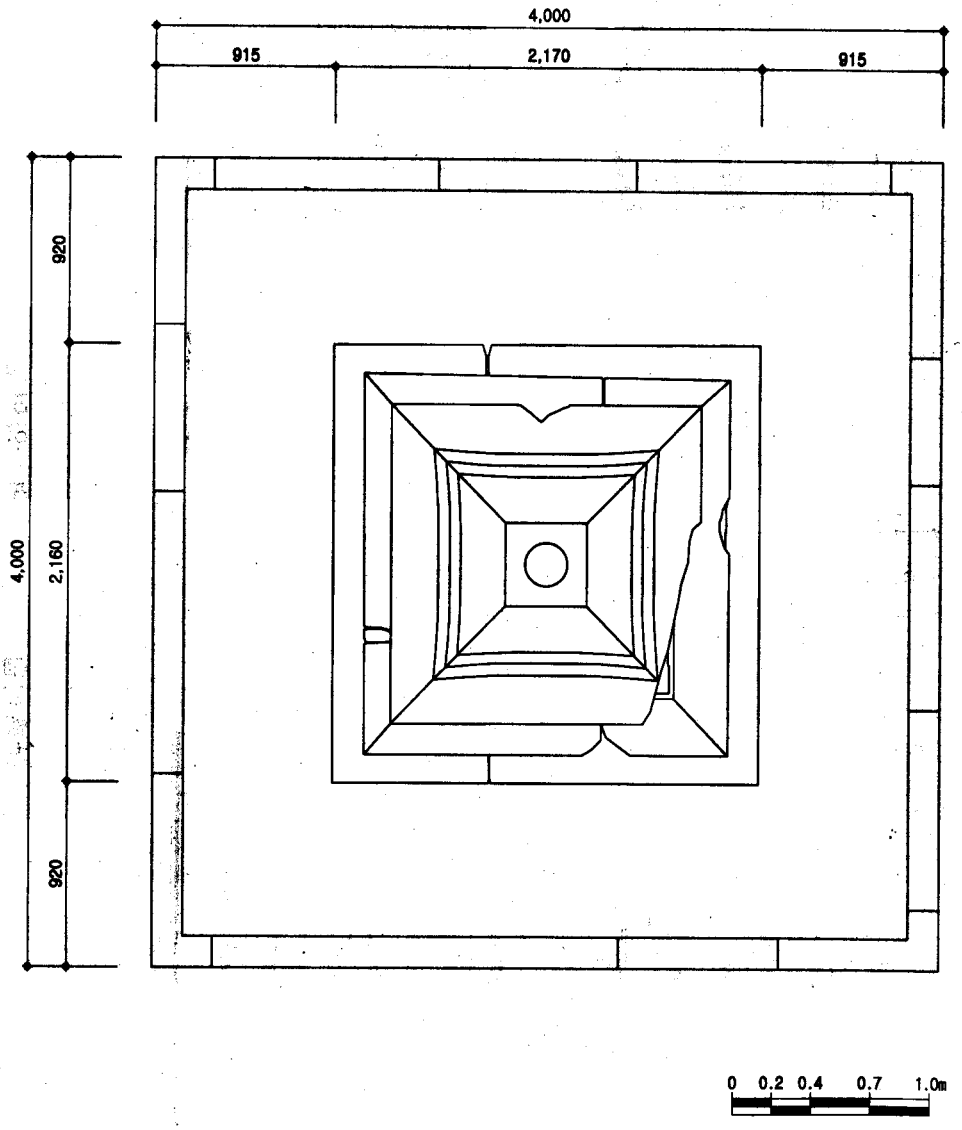
진공대사탑비 우측면도 ·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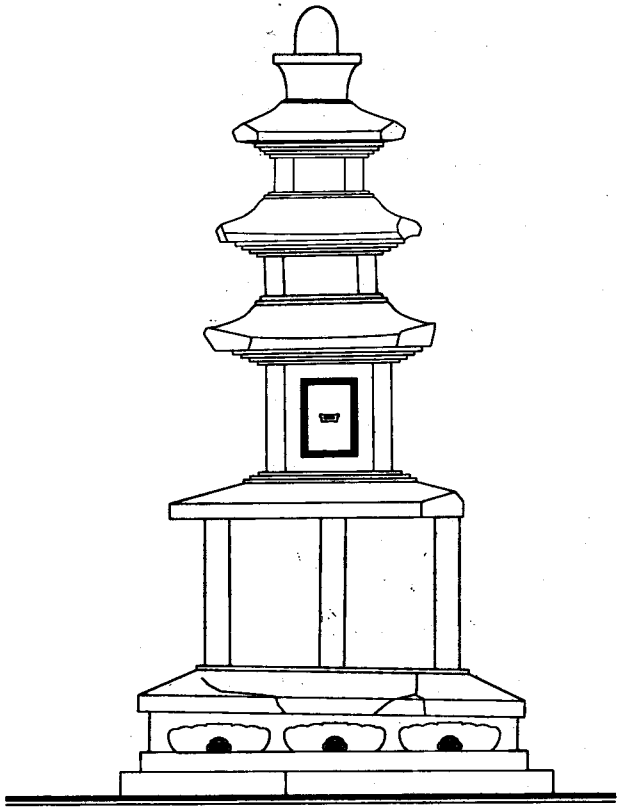
진공대사탑비 귀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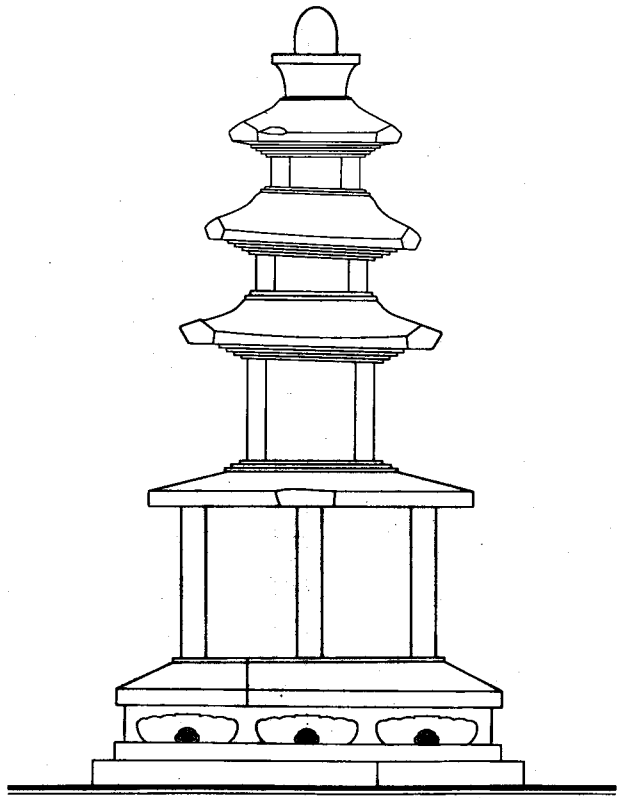


진공대사탑비 이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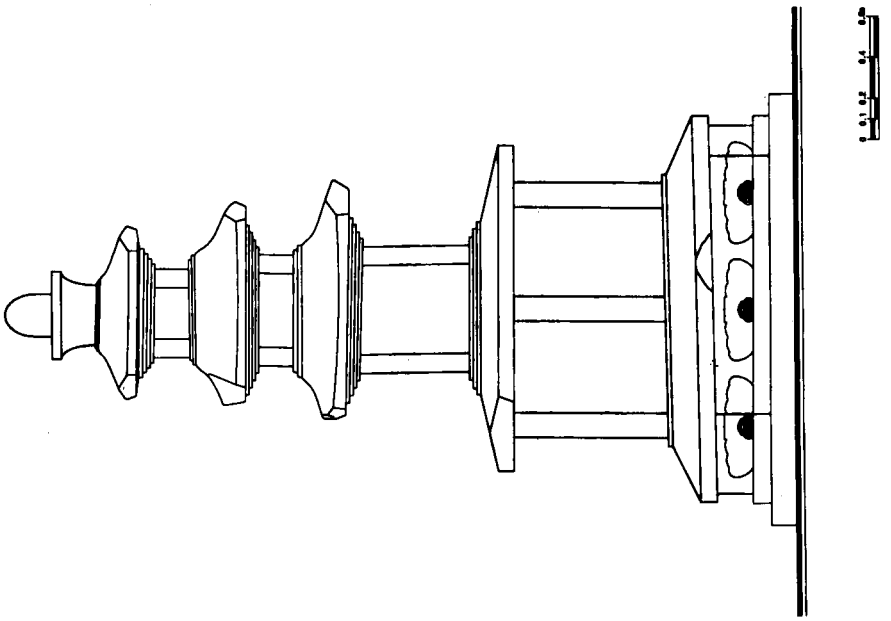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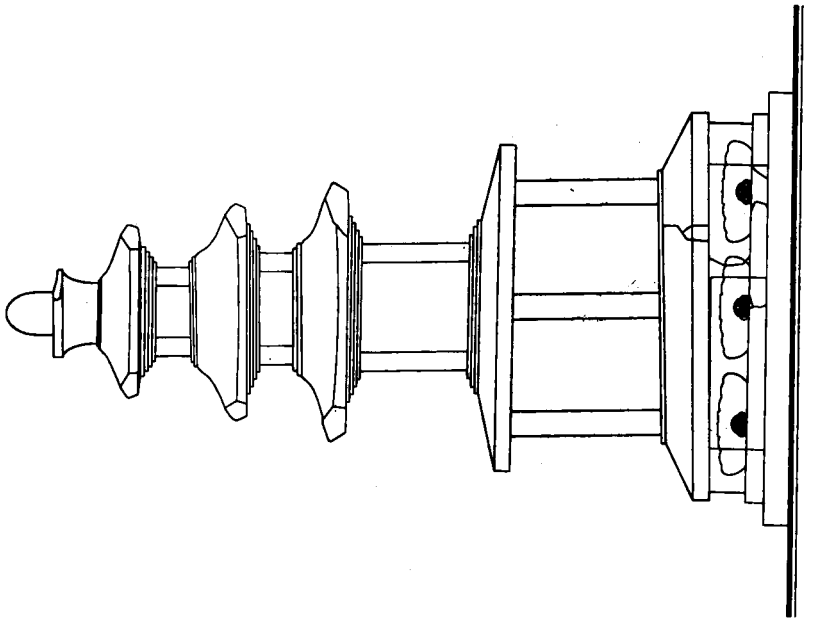
삼층석탑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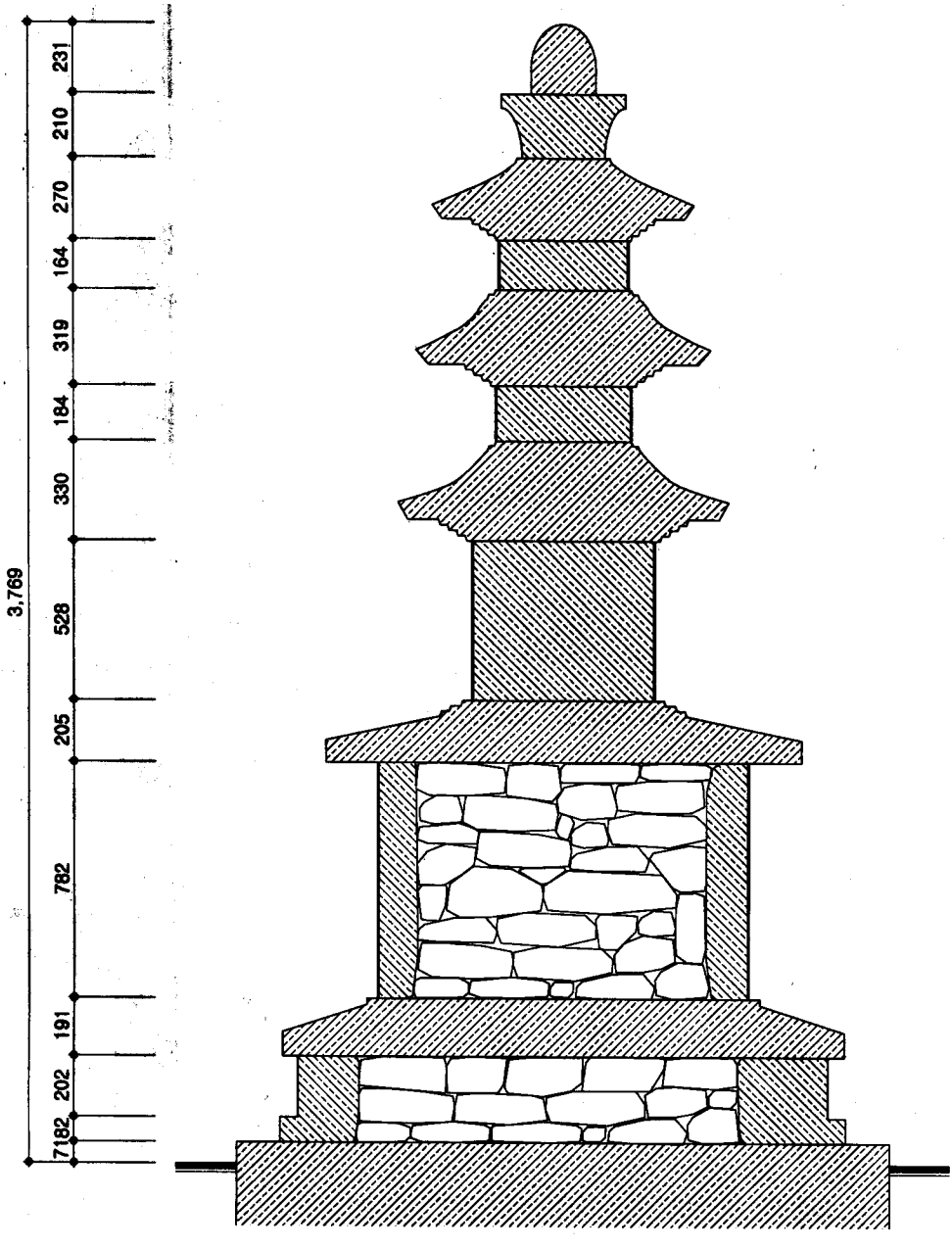


삼층석탑 동면·서면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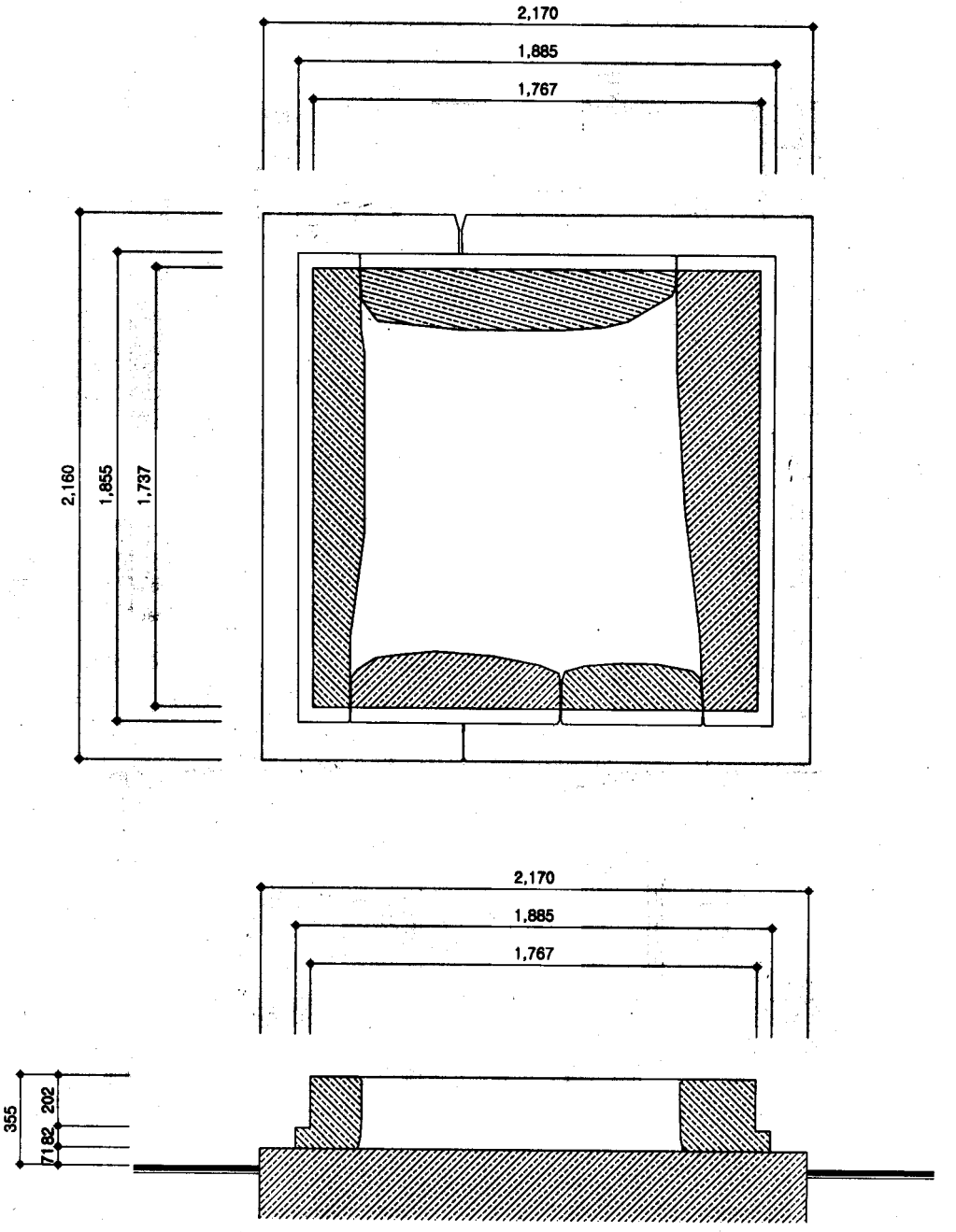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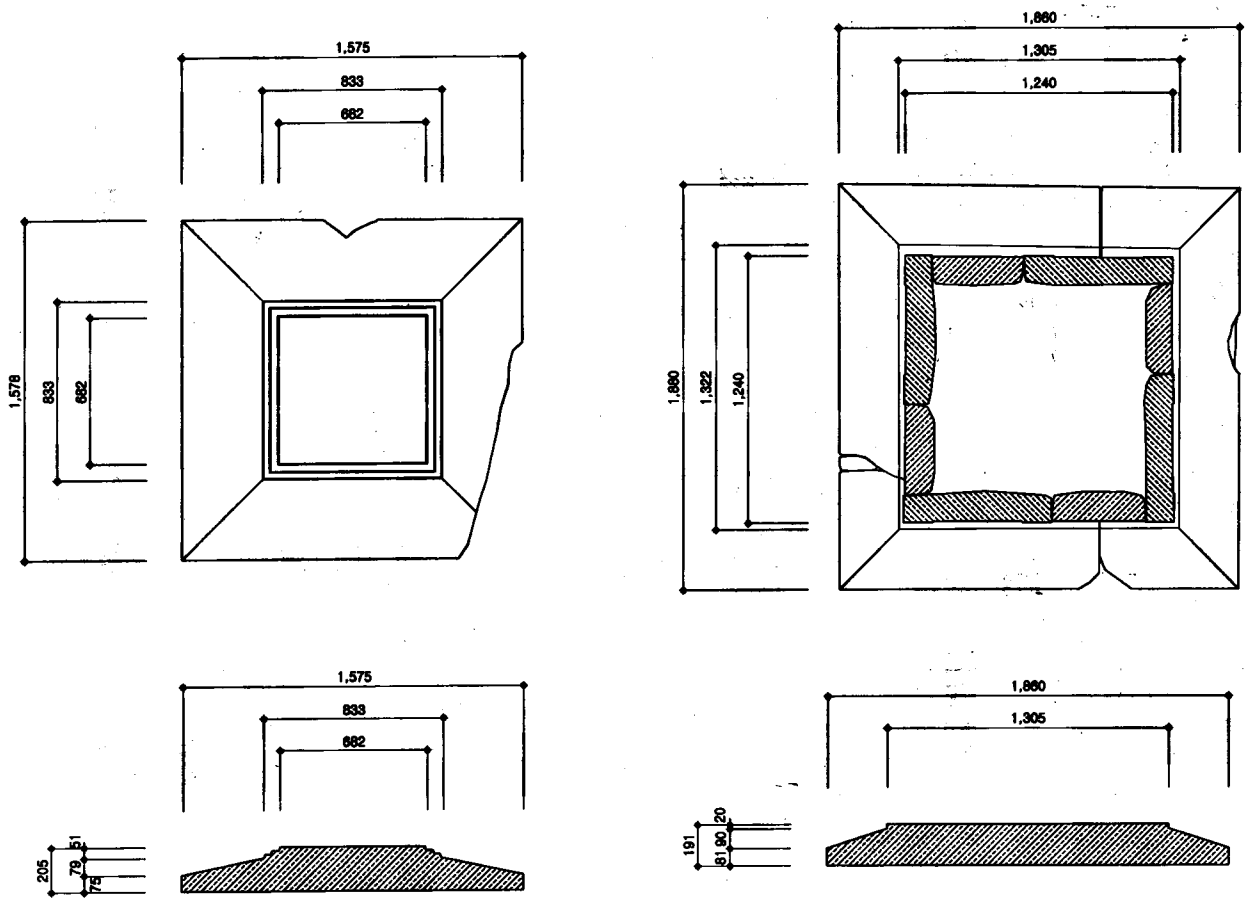
삼층석탑 남면·북면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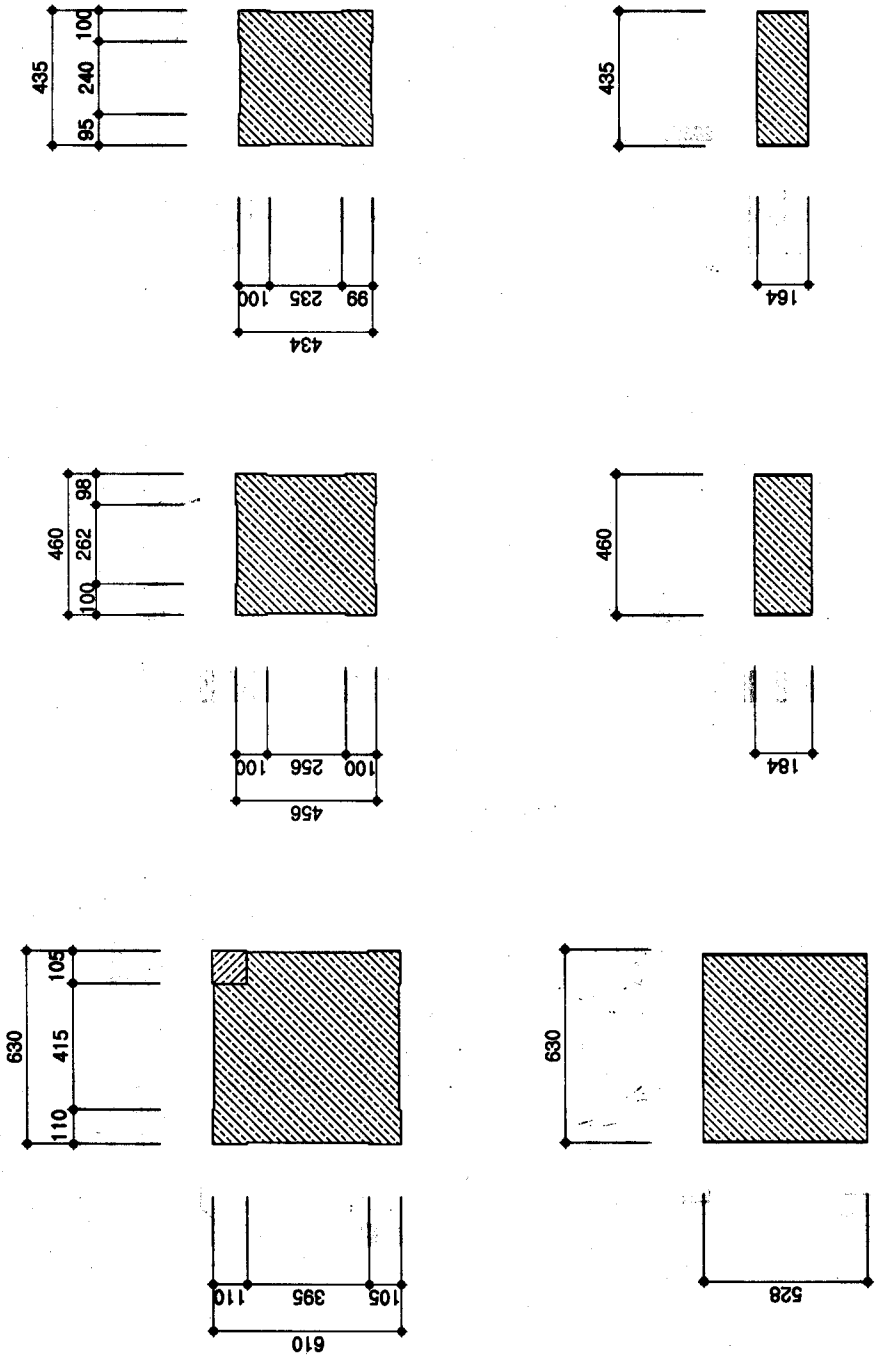
삼층석탑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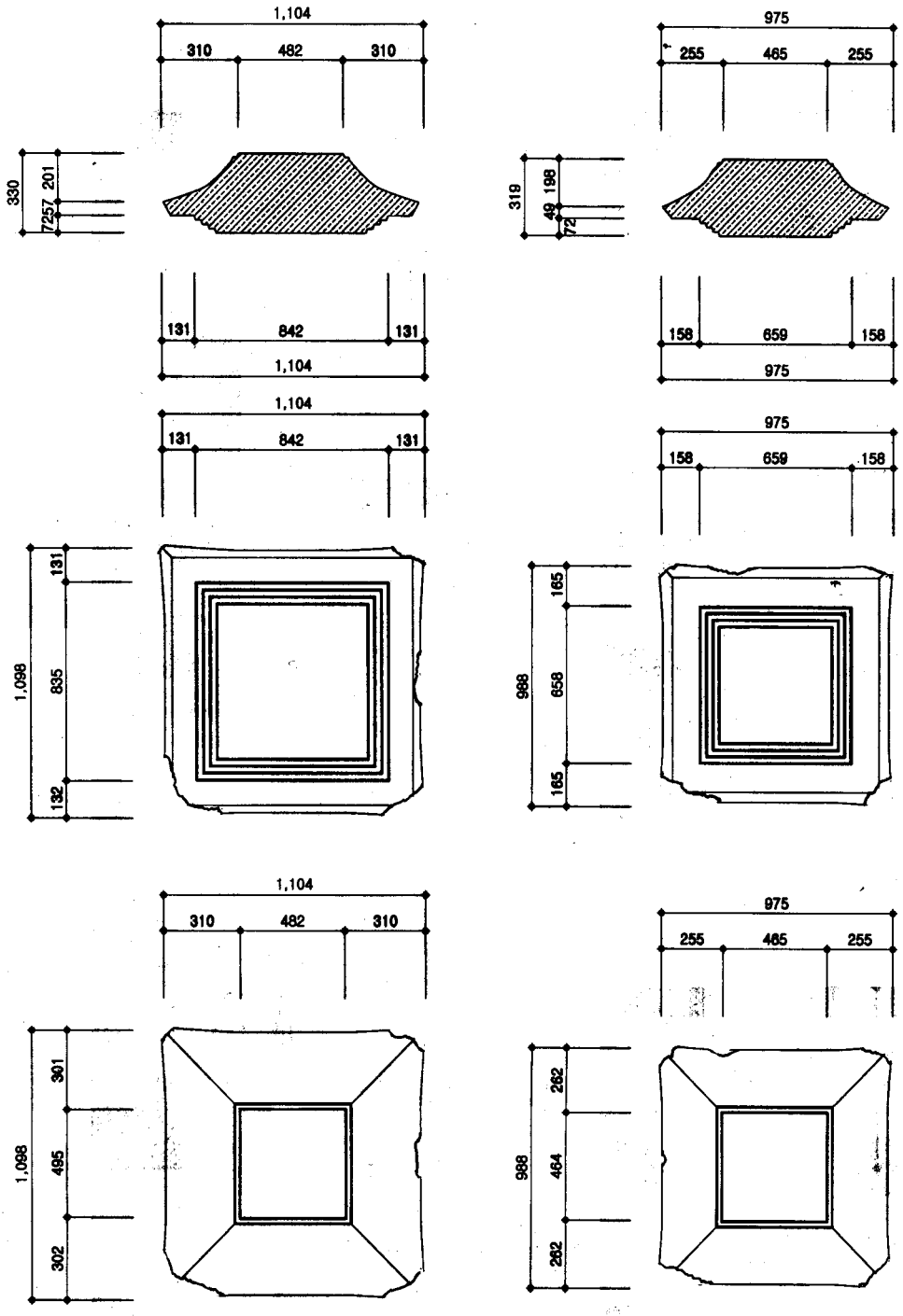
삼층석탑 지대석·하대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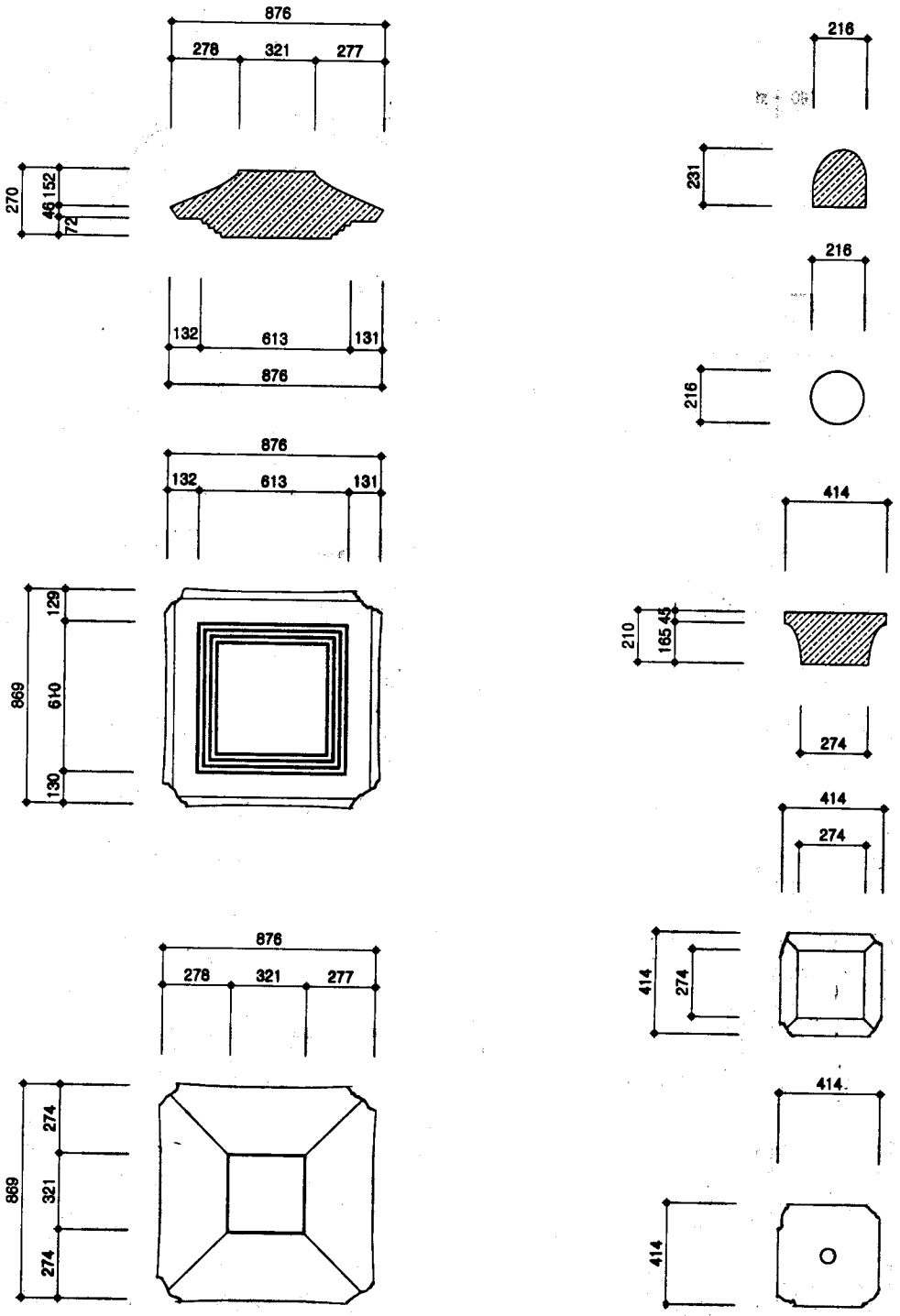
삼층석탑 상·하층 기단갑석 상세도


435
100
240
95
434
100
235
99
435
164
460
98
262
100
456
100
256
100
460
184
630
105
415
110
610
110
395
105
630
528

3층석탑 탑신석 상세도



3층석탑 1층·2층 옥개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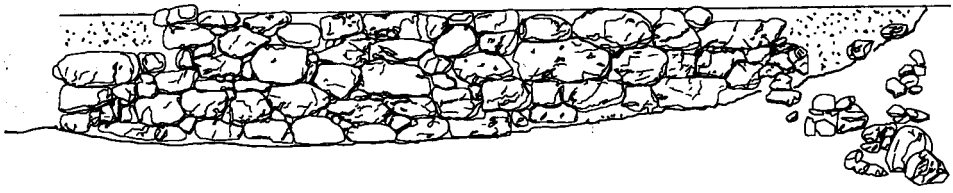

876
278
321
277
270
152
46
72
132
613
131
876
876
132
613
131
129
869
610
130
876
278
321
277
274
869
321
274
216
231
216
216
414
210
165
45
274
414
274
414
274
414
414

3층 옥개석 및 상륜부재

석물유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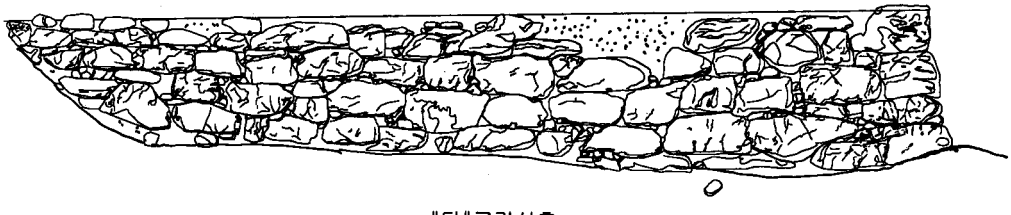
거 리	추가거리	상부고	하부고	석축고
0.00	0.00	83.10	80.90	2.20
5.53	5.53	83.20	80.70	2.50
4.40	9.93	83.27	80.87	2.40
4.10	14.03	83.34	81.64	1.70
3.10	17.13	83.40	83.40	0.00
2.19	19.32	83.00	80.70	2.30
5.57	24.89	83.01	82.11	0.90
6.00	30.89	83.01	81.71	1.30
2.03	32.92	83.25	83.25	0.00
3.28	36.20	83.31	80.91	2.40
1.50	37.70	83.33	80.63	2.70
2.90	40.60	83.38	80.47	2.91
7.80	48.40	83.52	80.32	3.20
2.34	50.74	83.56	80.76	2.80

석축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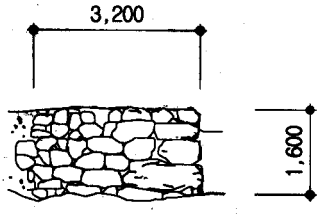


"가"구간석축

"나"구간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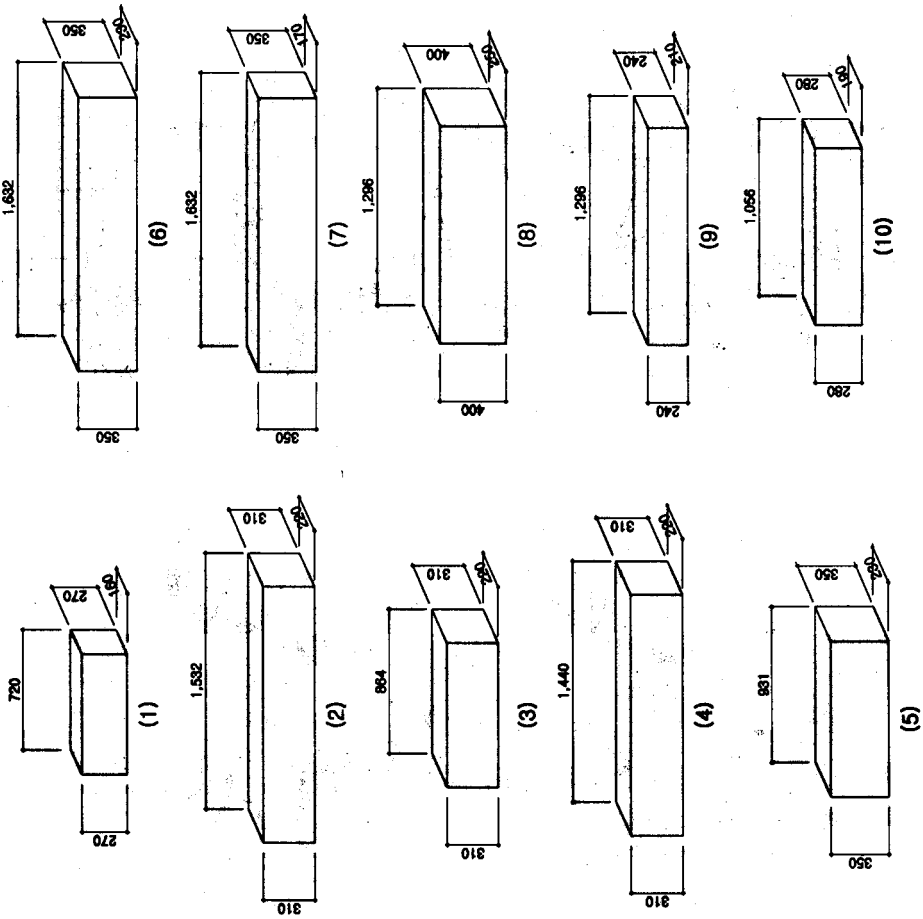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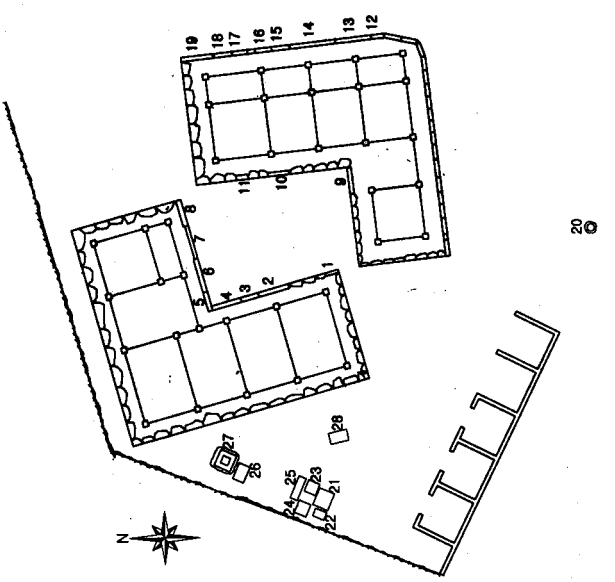
"다"구간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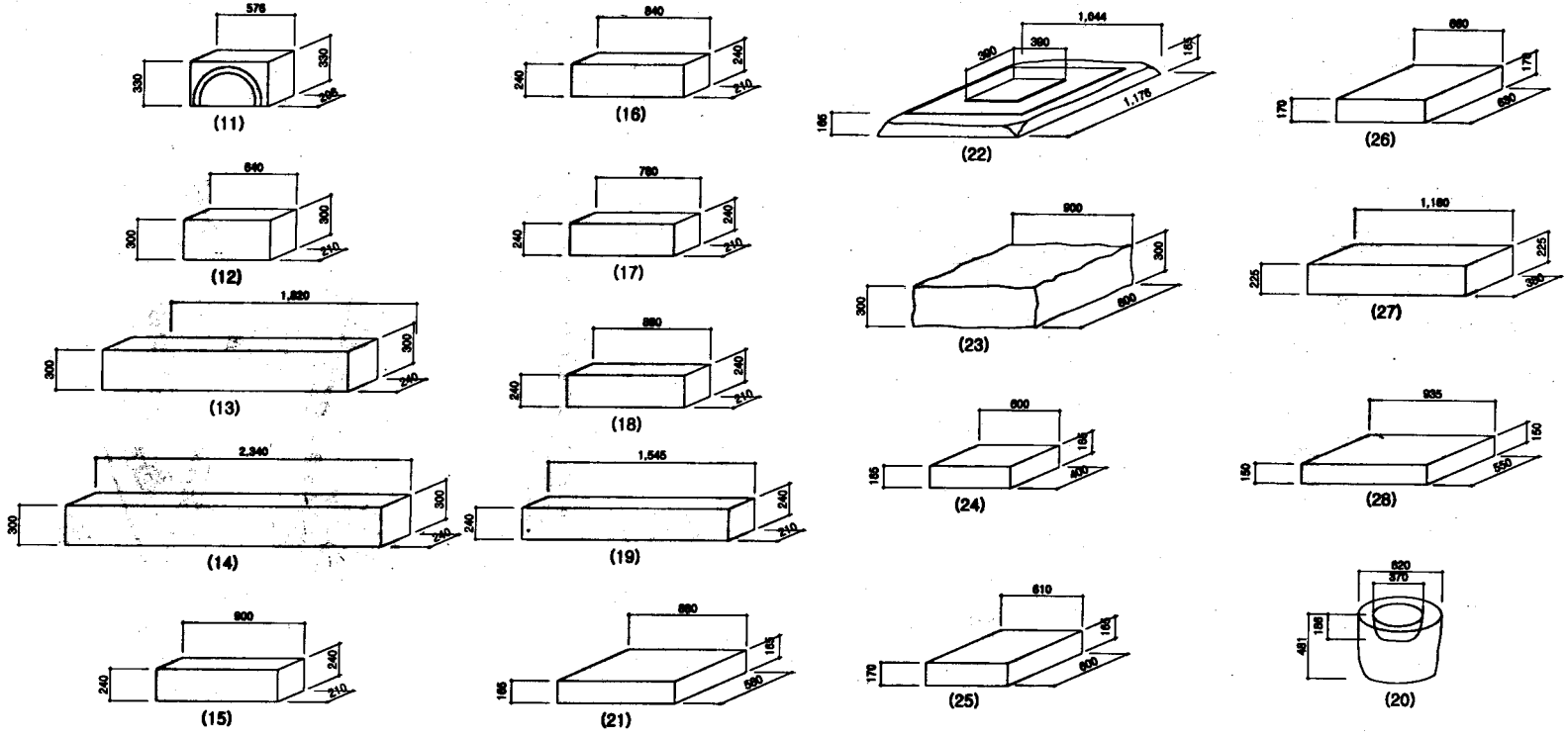
"라"구간석축

석축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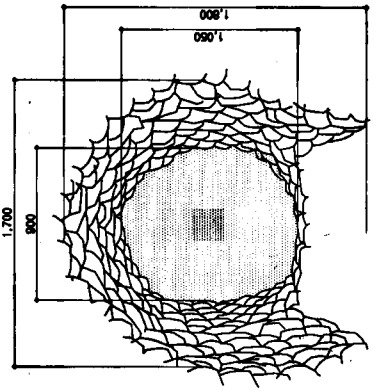

(1)
720
270
270
180
(2)
1,532
310
310
(3)
864
310
310
(4)
1,440
310
310
(5)
881
350
350
(6)
1,632
350
350
(7)
1,632
350
350
(8)
1,296
400
400
(9)
1,296
240
240
(10)
1,056
280
280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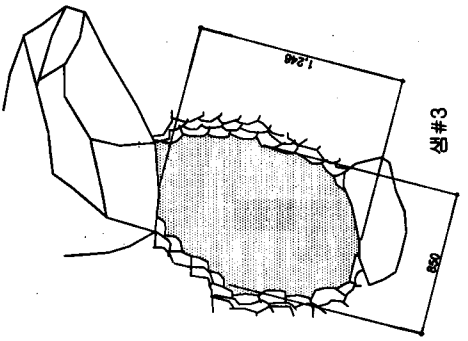
A지역 석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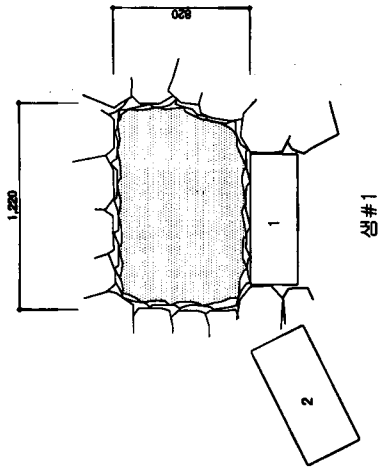
A지역 석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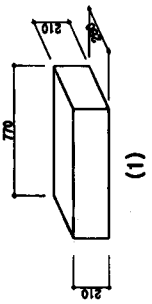
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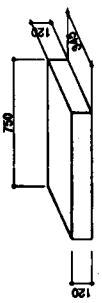
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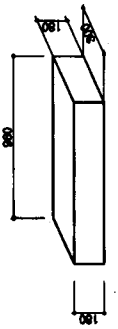
샘#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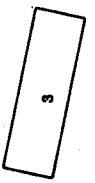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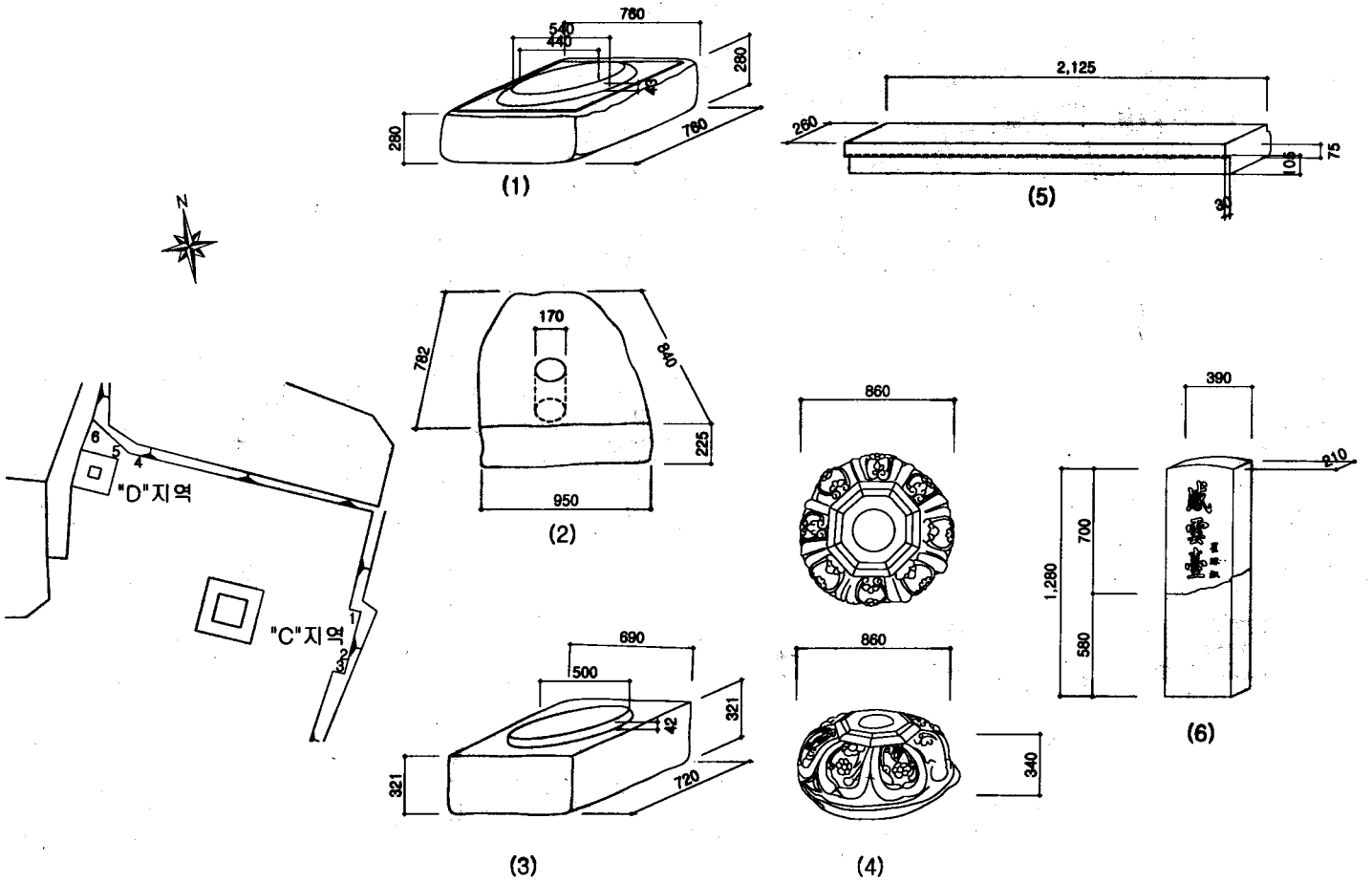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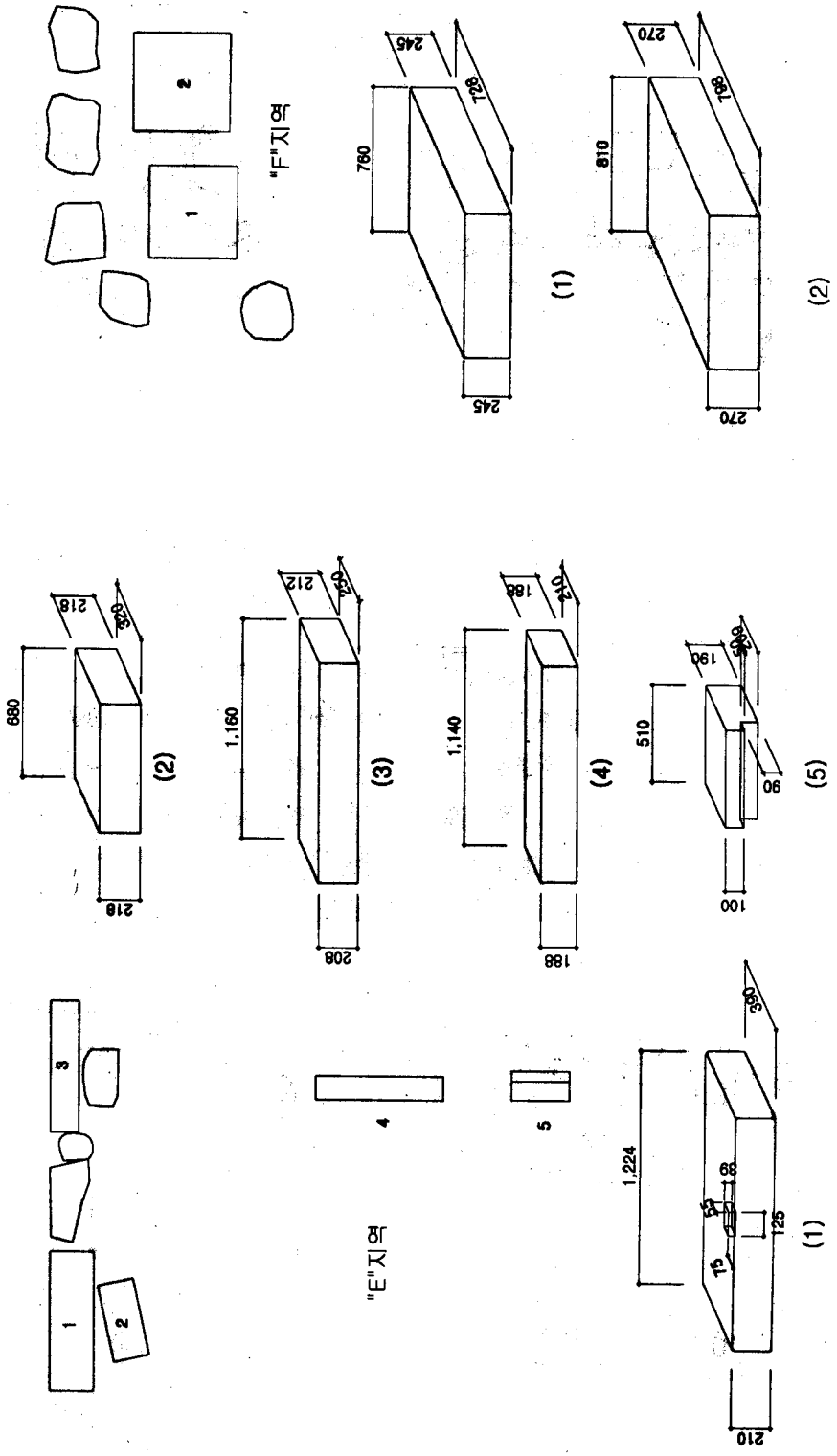
B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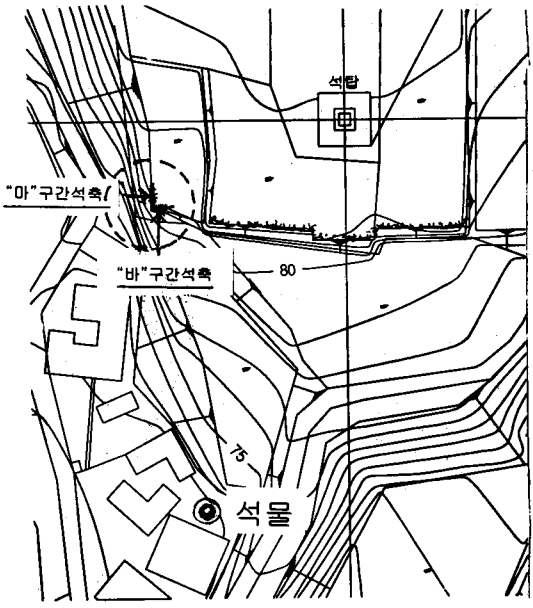
샘 및 주변석물 상세도


760
540
440
280
42
280
760
(1)
2,125
260
75
105
30
(5)
N
"D"지역
6
5
4
"C"지역
1
2
3
170
782
840
225
950
(2)
860
390
210
700
1,280
580
(6)
690
500
42
321
321
720
(3)
860
34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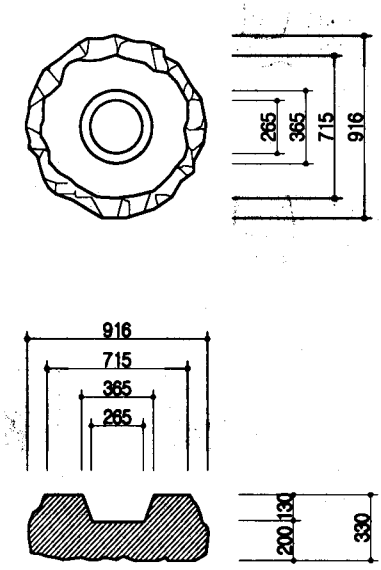
C · D지역 석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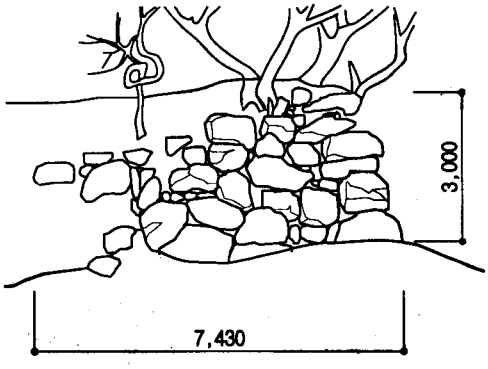
E · F지역 석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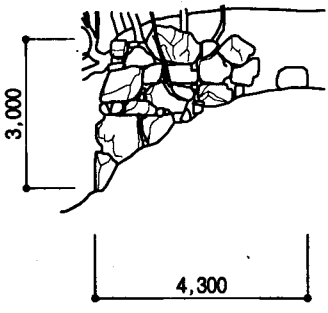
KEY-PLAN



"F"지역 아래쪽 민가의 석물



"마"구간 석축



"바"구간 석축

參考文獻

- 高麗史
- 新增東國輿地勝覽 (國譯本)
- 朝鮮金石總覽 (朝鮮總督府)
- 世宗實錄地理志
- 輿地圖書 (舊邑誌, 國史編纂委員會)
- 大東地志 (金正浩)
- 興法寺址現況調査復命書 寫本 1929 小川敬吉
- 文化遺蹟總覽 1975 文化財管理局
- 서울金石文大觀, 1987. 6 서울特別市
- 文化財大觀 (國寶・寶物篇, 文化財管理局)
- 中原文化圈 遺蹟調査報告書 1985. 12 檀國大博物館
- 北原의 香氣 1981. 7 原城郡
- 高達禪院址 地表調査報告書 1984. 10 驪州郡
- 中原 塔坪里寺址 地表調査報告書 1986. 7 中原郡
- 居頓寺址 地表調査報告書 1986. 12 原城郡
- 乾鳳寺址 地表調査報告書 1990. 8 高城郡
- 法泉寺址 地表調査報告書 1992. 12 原州郡
- 韓國의 佛教美術 1974. 11 黃壽永 著
- 韓國古建築斷章(上卷) 1975 申榮勳 著
- 韓國古建築斷章(下卷) 1975 金東賢 著
- 韓國塔婆의 研究 1975. 12 高裕燮 著

興法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

2000年 7月 25日 印刷
2000年 7月 28日 發行

發 行 處 : 原 州 市
調査·編纂 : (株)신평綜合建築
印 刷 : 申 企 劃

(非賣品·限定版)